



한러 교류

중개자로서의 러시아 한인

Русско-корейцы, как посредник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и и Кореи

한러 교류
중개자로서의
러시아 한인



2013 시·베·리·아·연·구·국·제·학·술·회·의



한러 교류 중개자로서의 러시아 한인

-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과 한러교류의 역할 -

Русско-корейцы, как посредник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и и Кореи
-Идентич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х роль между 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일시 : 2013년 4월 12일(금) ~ 4월 13일(토)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최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강원도민일보, 사할린 새고려신문, 강원대 DMZ HELP 센터
- 주관 : HIRS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후원 : 한림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강원도, 양구군, 한국연구재단

한러 교류 중개자로서의 러시아 한인

- сахалин 한인의 정체성과 한러교류의 역할 -

Русско-корейцы, как посредник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Идентич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х роль между 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일시 : 2013년 4월 12일(금) ~ 4월 13일(토)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최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강원도민일보, сахалин 새고려신문,
강원대 DMZ HELP 센터
- 주관 : HIRS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후원 : 한림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강원도, 양구군,
한국연구재단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어느덧 신록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4년 설립된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그동안의 연구경험 바탕으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러 교류에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 할 시베리아·극동지역 연구의 중심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인 사할린에 한 세기 이상 거주해 온 한인들은 한인디아스포라의 특별한 사례이며,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중개자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 형성 및 발달과정의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공동의 협력관계를 다지고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2013년 4월 12일(금)에 강원도민일보사, 강원대 DMZ HELP 센터,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와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러시아의 한국학 학자들과 사할린 한인 학자 및 각 분야 주요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행사로서,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의 국제적 홍보 및 연구 네트워크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금번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최태강

프로그램 일정

시 간	내 용
제1일차 11:00~11:30	<p>개회사 :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최태강) 환영사 : 한림대학교 총장 (노건일) 축 사 :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중석) 사할린 방문단 대표 (리에데 상복; Лиеде Сан Бок) 강원대 DMZ HELP 센터 소장 (김창환)</p>
11:30~12:00	<p>기조강의 : 최태강(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한러교류와 러시아 한인(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p>
12:00~13:00	중 식
13:00~15:00	<p style="text-align: center;">제1부: 재러한인의 역사와 한러교류</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한중만(배재대학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Ланьков, А. (국민대학교) "Некоторые соображения о будущ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미래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단상)" 2. Ким Ен Сун (Байк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Южной Кореи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концесс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иски и предпосылки(The use innovative potential South Korea through concessions mechanism in construction of transports infrastructure of the Sakhalin Region: risks and preconditions)" 3. Лиеде Сан Бок (Аспирант СахГУ)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ограммы, проекты,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формированию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ях(민족교육학의 공간: 민족 전통에 근거한 가치 있는 대상 형성)" 4. Е.А.Иконников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литерату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бщий обзор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에 나타나는 한국적 요소: 20 후반 - 21세기 초)" 5. 이재혁 (한림대학교)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인구의 형성과 발달(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s in Sakhalin, Russia)" <p style="text-align: right;">토론: 이용권(한림대학교), 계용택(러시아리서치센터), 김정훈(배재대학교) 번역 및 통역: 박승의(사할린대학교)</p>
15:00~15:30	휴 식

<p>15:30~17: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2부: сахалин 한인의 정체성과 한러교류의 역할</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성원용(인천대학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Пак Сын Ы(국립 сахалин대학교)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한국과 сахалин 주 간 교류의 실태조사)" 2. Ку Хен Гу(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достижений медици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ефор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 주 보건 개혁에서 한국 의학의 업적)" 3. Кон Но Вон(сахалин 한국어교육협회) "Состояние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1945-2013 гг. и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1945-2013년 러시아 сахалин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 4. Бэ Виктория(Сахалин.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새 고려신문: 어제, 오늘, 내일)" 5. Ян С.(Сахалинская писа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 связующий мост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한러 교류에서 сахалин 한인의 가교 역할)" <p style="text-align: right;">토론: 원석범(한림대학교), 홍응호(동국대학교), 윤상원(동국대학교), 허남훈(김포시 сахалин동포회) 번역 및 통역: 이리나(한림대학교)</p>
<p>18:00~21:00</p>	<p style="text-align: center;">만찬, 문화공연 및 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진행: 박미현(강원도민일보), 이리나(한림대학교), 이재혁(한림대학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민속 예술문화 공연 - 시 낭송, 판소리 공연, 수필 낭송, 퓨전 국악공연 외 2. 러시아 민속 예술문화 공연 - 러시아 민속춤, 러시아 가곡, 합창곡, сахалин 한인 창작곡 외 3. 분야별 간담회 - 정치·경제, 의료, 교육, 문화, 학술 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제2일차</p> <p>09:00~15:00</p>	<p style="text-align: center;">북방 경계지역으로서의 DMZ지역 답사 - 한인 디아스포라의 북방경계지 또는 결절지 -</p> <p>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해안면 일원 (Янгу, Канвон-до)</p> <p style="text-align: center;">답사진행 :정해룡(강원대 DMZ HELP 센터), 이태희(강원대 DMZ HELP 센터), 윤숙(한림대 러시아연구소), 김예나(한림대 러시아연구소)</p>

기조강의

한러교류와 러시아 한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최 태 강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11

주제발표

제1부 재러한인의 역사와 한러교류

Некоторые соображения о будущ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미래 한인 디아스포라 전망에 대한 단상)

Ланьков, А. | 국민대학교 22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Южной Кореи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концесс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иски и предпосылки

(The use innovative potential South Korea through concessions mechanism in construction of transports infrastructure of the Sakhalin Region: risks and preconditions)

Ким Ен Сун | Байк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35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ограммы, проекты,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формированию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ях

(민족교육의 공간 : 민족 전통에 근거한 가치 있는 대상 형성)

Лиёде Сан Бок | Аспирант СахГУ 59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литерату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бщий обзор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에 나타나는 한국적 요소: 20세기 후반 - 21세기 초)

Е.А.Иконникова |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83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인구의 형성과 발달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s in Sakhalin, Russia)

이 재 혁 | 한림대학교 101

제2부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과 한러교류의 역할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한국과 사할린 주 간 교류의 실태조사)

Пак Сын Ы | 국립 사할린대학교 145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достижений медици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ефор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주 보건 개혁에서 한국 의학의 업적)

Ку Хен Гу |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197

Состояние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1945-2013 гг. и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1945-2013년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

Кон Но Вон | 사할린 한국어교육협회 204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새 고려신문 : 어제, 오늘, 내일)

Бэ Виктория | Сахалин.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18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 связующий мост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한러 교류에서 사할린 한인의 가교 역할)

Ян С. | Сахалинская писа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237

문화공연 및 간담회

1. 한국 민속 예술문화 공연 249

- 시 낭송, 판소리 공연, 수필 낭송, 퓨전 국악공연 외

2. 러시아 민속 예술문화 공연 250

-러시아 민속춤, 러시아 가곡, 합창곡, 사할린 한인 창작곡 외

3. 분야별 간담회 251

- 정치·경제, 의료, 교육, 문화, 학술 분야

DMZ지역 답사

북방 경계지역으로서의 DMZ지역 답사 255

- 한인 디아스포라의 북방경계지 또는 결절지 -

기 조 강 의

한러교류와 러시아 한인

최태강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주 제 발 표

제1부 재러한인의 역사와 한러교류

Некоторые соображения о будущ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미래 한인 디아스포라 전망에 대한 단상)

Ланьков, А. | 국민대학교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Южной Кореи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концесс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иски и предпосылки

(The use innovative potential South Korea through concessions mechanism in construction of transports infrastructure of the Sakhalin Region: risks and preconditions)

Ким Ен Сун | Байк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ограммы, проекты,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формированию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ях

(민족교육학의 공간 : 민족 전통에 근거한 가치 있는 대상 형성)

Лиёде Сан Бок | Аспирант СахГУ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литерату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бщий обзор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에 나타나는 한국적 요소: 20 후반 – 21세기 초)

Е.А.Иконникова |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인구의 형성과 발달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s in Sakhalin, Russia)

이재혁 | 한림대학교

한러교류와 러시아 한인

최 태 강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1. 한민족 분산의 역사

한민족 분산의 역사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의 한민족 유민은 유민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유민상태의 한인은 오로지 상대국의 의사에 따라 그 처지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민족유민들은 심한 탄압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바로 이 같은 유형의 이민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의 한민족 이민은 유민의 상태가 다수를 이룬다.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토지를 상실하게 된 한국 농민은 주로 만주 및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인들의 이민에 일본정부는 어떠한 지원정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민족은 또한 현지에 도착하면 법적 뒷받침이 없이 온 유민으로서 불이익을 받아야 만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민족은 여전히 유민의 상태로 이주한 것이다.

셋 번째 시기의 한민족의 이민정책 하에 이민은 가속화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토지가 협소한데다가 과잉인구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태평양지역, 유럽, 남미 등지로 한민족이 뺏어나 가게 되었다. 이 시기는 해외 한인들이 유민적 상태를 벗어나서 정식이민이 주류를 이루고 합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부의 축적을 이루는 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들어와 재이주 현상이다. 특히 재외동포들 가운데 소연방해

체가 본격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동포들 사이에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증가하였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연해주로 재이주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일부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역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있다.

요약하면, 인구규모에 비하여 유례없이 해외동포를 많이 가진 우리민족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모국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화교들처럼 재외동포들도 현지 사회와의 화합도 이루고, 한국인들간 서로 도움을 주고, 다른 민족인종들과 공존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열린 민족정체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2. 러시아 한인의 이주사

러시아 한인의 역사는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150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정치 이데올로기의 큰 변화와 거주 지역이 대 이동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역사의 연속성의 단절을 의미할 만한 구획을 지을 수 없다.

1) 러시아 한인의 이주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이다.

1860년은 우리 해외 이민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때이다. 이 해부터 본격적인 이민의 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1863년 두만강과 블라디보스톡 중간에 위치한 포시에트라는 곳에 한인 13호가 살기 시작했다.

그후 한인 농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1869년 후반기에는 반년 사이에 6천5백명의 한인이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주했다. 1900년 시베리아 철도가 부설되어 유럽의 러시아인이 대거 이주하기 이전에는 이곳 연해주에 오하려 한인들의 수가 러시아인들보다 많았다.

두 번째 시기는 1920년대 이후이다.

1920년대부터 - 1930년의 국경폐쇄 때까지는 조선민족의 봉기가 실패한 이후 일제의 혹독한 식민지정책을 피해 많은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떠나왔다. 이 시기에 재소한인들은 소비에트라는 생소한 정치제도와 집단농장제도, 공산당이라는 방식과 맞닥뜨려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놀랄만한 토지생산력의 향상과 각종 기간산업 건설에 커다란 성과를 거

두며,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향유했다.

세 번째 시기는 2차 대전을 전후이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이 낮은 땅으로 8000키로 미터나 떨어진 황무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이다. 강제이주는 1937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네 번째 시기는 세계대전의 종결과 한반도 해방의 첫 몇 년간이었다.

세계대전 때 일제가 일시 강점한 사할린 남반주에 주로 남한 청년들이 일본 군벌의 강제징용에 의해 집단적으로 끌려왔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소련 군정기 몇 년 동안에 그곳 노동자들이 주로 사할린, 꾸릴열도, 캄차트카 반도로 일정기간의 노동계약에 따라 파견되어 왔는데 그들 중 일부는 노동계약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정착하였다.

다섯 번째 시기는 1991년 12월 구 소련의 붕괴되면서, 독립한 중앙아시아국가들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제3의 이주이다.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기존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구 소련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탈린에 의해 단행된 강제이주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국가들은 독립했지만 그 결과 공동언어였던 러시아어가 각 공화국의 민족어로 바뀌었다. 이것은 한인에 있어서 교육과 고용 면에서 새로운 차별대우를 낳은 원인으로 되었다. 특히 타지크에서는 소수민족탄압이외에 내전으로 1990년 이후 수백명이 살해되었고, 수천 여명이 탈출하지 못해 현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인으로 하여금 민족박해에서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3. 중앙아시아지역 한인들의 재 이주의 실태와 동기

1) 중앙아시아지역 한인들의 재 이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이주가 혈연과 같은 연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업과 상업으로 직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집안의 가장이 단신으로 재 이주하여 정착가능성을 진단한 다음 가족 전체의 재 이주를 시도하려는 사례도 있다.

넷째, 연해주로 재 이주한 가족 가운데 일부만 정착촌에 입주한 경우도 있다.

2) 재 이주 동기

첫째, 교육문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이후 채택한 현지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지어를 가르치기보다는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직업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이민족 배격에 따른 현상으로서 현지어 정책과 자민족 우대정책 등으로 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농사의 경우에도 현지인들의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점차 농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셋째, 귀속욕구는 이들이 러시아 영토내의 다른 지역이 아닌 연해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곳은 선조들이 살던 지역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까닭에 재 이주를 결심하였다.

중앙아시아 한인 일부가 연해주 재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지의 재산 처분이 어려운 점, 향후 생계수단의 불확실성 같은 요인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에 그대로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유이민이 역사적 배경과 시기를 달리하고 있고, 그 성격도 각각 달리함을 알 수 있다.

4. 러시아 한인의 민족정체성 회복의 과제

러시아 한인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안정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인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한인의 민족 정체성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이 있다.

- 첫째, 구소련 각지에 정규 한인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어를 비롯한 민족교육을 활성화한다.
- 둘째, 한인동포의 본국과의 각종 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셋째, 난립해 있는 한인단체들이 통일성과 조직적 지도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한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들이 뒤따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인 스스로가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에 따른 단합된 노력 및 조직적 결속과 통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Чой Тэ Ганг
Халлим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1. История расс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сю историю расс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можно разбить на 4 периода.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ские мигранты первого периода в основной своей масс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ынужденным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Положение этих корейцев зависело от воли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поэтому они постоянно подвергались репрессиям и несли урон.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редней Азии, это кровные потомки таких кочующ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Корейские мигранты второго период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это опять же вынужденные переселенцы. 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свои земли в результате экспроприации земель японцам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ереселяться в Манчжурию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но в связи с таким пересел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не оказывалось никакой помощи.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дя на новое место поселения, у них не было какой-либо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оэтому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в крайне трудном положен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ни все также были вынужденным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В связи с проведением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мигр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ускорилась, это был третий виток миграции. Причиной тому стала нехватка зем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перенаселение, которое привело к истощению жизненных основ. В следствие этого,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был вынужден переселяться в Америку, Канаду, стран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Европу, Южную Америку и т.д. В результате, третий период переселения уже можно назвать официальной иммиграцией корейцев, основанной

на закон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Четвертый этап приходится на 90-е годы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братную миграцию. Так например,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выросло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обратно в Россию из стр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али селить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роме того,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ста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Особенно много среди н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иммигрировали в Америку.

Подводя итог,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которая насчитывает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обходимо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чтобы суметь подстроиться к обществу страны, где они проживают, жить в гармонии с другими нациями и расами, а также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как это делают евреи или китайские эмигранты,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азбросаны по всему миру, сохраняют прочные связи со своей родиной, но также нужна и поддержка в отношении гражданских прав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 стран, в которых они проживают.

2. История миграции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берет начало с 1890-х годов и насчитывает уже более 150 лет. Но за это время они пережили и смену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ологии и большое переселение.

1) Вся историю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5 периодов.

Первый период – 1860-й год.

1860-й год – очень важное время в истории миграци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за рубеж.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с этого года началась основная иммиграция. Если верить записям, то в 1863 году в мест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осъет,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между рекой Туманной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стали проживать 13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После этого число крестья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увеличивалось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869-го года всего за 6 меся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оссии переселилось 6,5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В 1900-м

году, когда была построена Транссибирск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магистраль и до того, как началось массовое переселение русских из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в восточну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оживало даже больше корейцев, чем русских.

Второй период – после 1920-х годов.

Начиная с 1920-х годов и до 1930-го года, когда была закрыта граница, после подавления восст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жестокого насилия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корейцы стали переселяться в Россию. В то время корейцам, находящим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с еще неустановившейся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ой СССР, системой коллективных хозяйств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Однако им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отлич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повышени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земл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различных базов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ем самым обеспечив себе стабильн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как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так и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лане.

Третий период – это начало 2-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1937 году по указанию Сталина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вш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ереселиться в среднюю Азию на пустынные новые земли, удаленные на 8000 км от родных мест.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оходило с сентября по декабрь 1937 года.

Четвертый период приходится на окончание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первые год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олодежь из юж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была насильно привезена япо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в южные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были временно захвачены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ей. А во времена присутствия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работу по контракту на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Камчатку, но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контракта не ста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а остались жить там.

Пятый период – это треть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живавш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 Средней Азии, связанное с крушение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декабре 1991 года.

Вместе с распадом СССР начались быстрые перемены в устоявшихся жизненных условиях, и корейц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ов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бывшего Союза. В частности, страны Средней Азии, куда во времена Сталина были сосланы корейцы, обрел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в новых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вместо бывшего единым для всех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язык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ого. Э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нек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цев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работы. В частност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где кроме притеснения малых наций, происходили и внутренние вой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ых были убиты сотни человек,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не смогли выехать из страны и до сих пор живут там.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не оставила корейцам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спастись от притеснений нации.

3. Ре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мотив обрат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1)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ре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обрат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следующие моменты.

Во-первых, повтор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происходит по принципу кровного родства.

Во-вторых, смена рода деятельности вместе с переселением.

В-третьих, есть примеры, когда глава семьи переселяется один, 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удостоверится в возможности закрепиться и остаться жить на новом месте, к нему переезжает вся его семья.

В-четвертых, бывают случаи, когда некоторые члены семей, вернувших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поселяются в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е.

2) Причины обрат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Во-первых, это проблема с образованием.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бывшие советские республики в Средней Азии перешли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во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ого, что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тал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ым, поэтому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уч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местному языку, у которого неопределенное будущее,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более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продолжать обучение в России.

Во-вторых, проблема с работой. Вследствие мер по переходу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родного языка и привелегий,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местным нациям, а такж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рудностей стр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других наций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занятые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фере, теряют работу. Та же ситуация 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 из-за нега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местных наций корейцы все больш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в удержании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В-третьих,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мотивов, побуждающ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яться обратно именно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а не какой-либо другой район, это то, что именно там жили их предки, и что это наиболее близкий к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регион.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мечтают переселить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однако трудности с продажей имущества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со средствами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на новом месте не позволяют им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и мечты, поэтому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ает жить на старом месте.

Из вышесказанног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сколько разной была история и предпосылки вынужденного и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разницу в их характере.

4. Проблема возр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воеобрази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Суть проблемы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то они, будучи малой нацией, не могут обрести надежный статус в обществе, котором они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этой связи необходима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воеобрази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воеобрази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предложений.

Во-первых, создание постоянных школ дл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ыло бы сделать упор на 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ввести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вторых, активизация различных обменов с Кореей,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ка таких взаимобменов.

В-третьих, помощь в объединени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движени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Эти предложения будут эффективны, если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оказана актив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отношении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Кроме 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стрем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самих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зрешить внутренние проблемы, 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ы сплоченные усилия и единство.

НЕКОТОРЫЕ СООБРАЖЕНИЯ О БУДУЩ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Н.Ланьков
Кукмин Университет

Вот уже почти 70 лет как существует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этническ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Она в целом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ССР, но обладает целым рядом важ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о ней как об особой и во многом специфической группе этой диаспоры. Сегодня я бы хотел высказать некоторые соображени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аково вероятное будущее этой диаспоры, и как мы (точнее,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а) можем на это будущее повлиять.

ГРУСТНОЕ: НЕИЗБЕЖНОСТЬ ЯЗЫКОВОЙ АССИМИЛЯЦИИ

Прежде чем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его может добитьс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Сахалина, следует, наверно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сказать о том, чего корейцам Сахалина, скорее всего, добиться не удастся.

Начиная разговор о будуще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щины, необходимо однозначно признать печальный факт: культурная и языковая ассимиля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зашла очень далеко, и дальнейшая языковая ассимиля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еизбежно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общины в своей массе владею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только на бытовом уров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корейски уже фактически не говорят.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тоже во многом утеряны или сильно видоизменен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ечь идет о проявлении едва ли не глобальной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 точно такую же картину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например, и в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ах США, Японии, стран Европы 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Любопытно,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хожие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ят и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итая, судьба которой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а и показательна. Историческ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столетия, корейцы Китая являлись едва ли не единственной крупной корейской зарубежной общиной, большинство членов которой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охраня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поколений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ли в мо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деревнях, располагающихся вдоль китайско–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и получали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Однако с начала 1990–х годов ситуация 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е Китая стала быстро меняться. Корейцы и раньше являлись самым высокообразованным этническим меньшинством Китая, существенно превосходя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ханьцев (доля лиц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КНР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среди ханьцев). Однако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подавляющее их большинство все–таки было занято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 последние 15–20 лет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Китая стремятся отправ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в вузы и обеспечить им условия для городской карьеры.

Это вполне понятное стремление означает,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казываются вырванными из корейской языковой среды. Оказавшись в китайских вузах, где преподавание, естественно, ведется по–китайски, они быстро подвергаются языковой ассимиляции. Вдобавок все мен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родителей стремится посылать своих детей в школы с преподавание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бо люди, окончившие такие школы, испытывают некоторые трудности с обучением в китайских вузах.

В результате в Китае произошло то же, что мы можем видеть и в США, и в России и большинстве других стран, где существуют заметные корейские общины. Нацеленность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столь

характерная д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бъектив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языковой ассимиляции в тех случаях, когда эти ценности приходится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иноязычном и инокультурном окружении, то есть в условиях диаспоры.

Нет никаких оснований думать, что в будущем сколь-нибудь заметн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сумеют сохран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Разумеется,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т и дела учиться в вузах Южной (а потом, кто знает, может быть,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удут, конечно, и браки с корейцами полуострова. Выпускники корейских вузов и корейские супруги будут великолепно владеть языком и, скорее всего, сыграют немал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и поддержан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Однако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доля таких людей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будет не очень велика. Скорее всего, третье и четверт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воем большинств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ладеть не будут.

Разумеется, следует всячески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тех энтузиастов,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преподав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рганизую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учебные центры и кружки. Однако надо понимать, что для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которых родным языком является, безусловно, русский,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простую задач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владеть корейским на сколь-либо приемлемом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ы немалые усилия и врем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как правило, не дает серьезных карьерных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преимуществ, поэтому, скорее всего, количество энтузиастов, которые сумеют овладеть корейским на всяческих курсах и кружках, будет оставаться очень и очень небольши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обходимо понимать, что даже полная языковая ассимиляция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означает ассимиляцию культурную. В частности, тут можно вспомнить евреев, которые и в России, и в США и в большинстве других стран уже давно перешли на язык окружающего населения и, в общем и целом, ассимилированы в культуру большинства. При этом, однако, евреи сохраняют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равно как и четко выражен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которая оказывает немалое влияние на их систему ценностей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згляды.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нечто похожее случится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Сахалина и, шире говор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бывшего СССР.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корейцев не будет владеть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дай бог, если хоть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будет в состоянии с трудом и по слогам разбирать тексты на хангыле). Однако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ни того, что они откажутся от своего пристрастия к кимчхи и его постсоветским вариантам – включа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ую морковку и «прочие корейские салаты», ни того, что они полностью потеряют собствен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интерес (а также и симпатии) к родине своих предков.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или, иначе говоря, на ближайшие 1–2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ждет судьба полуассимилированной этнической группы – группы, которая потеряла или почти потеряла свой язык, но при этом сохранила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отдельные элементы традиционной бытовой культуры.

О более далеких перспективах говорить было бы несерьёзно. Автору этих строк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дело кончится полной ассимиляцией, не только языковой, но и культурной, чему, например, немало способствует быстр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смешанных брако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уществует, пусть и небольшая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бывшего СССР сумеет продержаться еще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екоторые из таких языково–ассимилированных общин с четко выраж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ью существуют столетиями (типичный пример такой общины – это ирландцы,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перешло на английский уже несколько столетий назад).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КАК МОС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Понятно, что существование такой общины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немалое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й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л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разделение Кореи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еще долго и даже при определенном повороте событий стать постоянным. Впрочем, в случа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логич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в силу сво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менно с Южной частью полуострова,

равно как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среди общины антипатии к КНДР, в основном они будут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Сеул 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этом качестве корейцы могут играть двоякую роль, являясь,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а, с друг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и в России.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пост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могут и,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самых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орейские фирм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ши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будут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охотнее брать к себе на работу персонал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Некоторую роль, конечно, тут будет играть и знание языка – пусть и самое элементарное, базовое. Но, конечно, в основном этот подход будет вызван вполне понятн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ли, если хотит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ми) симпатиями.

Теоретически подобные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могут иметь и свою негативную сторону. Известно, что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этнические диаспоры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качестве инструмен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гр – причем сами члены диаспор, как правило, от подобных амбиций элит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ничего не выигрывают. Однако я бы рискнул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в случае с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вероятность такого поворота событий крайне невелика.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Россия и Корея не имеют сколь–либо серьез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трений и взаимны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етензий (если не считать, конечно, малоизвестного и где–то отчасти комического спора вокруг давно исчезнувшего песчаного острова Ноктундо в нижнем течении Тумангана). Поэтому угроза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политических игр и манипуляци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 очень велик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неизбежно становя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 причем реч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дет не столько об аутентич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то есть культуре полуострова, сколько о том ее варианте, который сложился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России СССР. Впрочем, с прак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разница между аутентичным и русифицированным

вариантом культуры не столь уж политически значительна. Те россияне, которы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глощают корейскую морковку, неизбежно начинают воспринима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инарную культуру как нечто интересное и позитивное (кстати сказать, при этом ни малейшего значения не имеет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морковка в самой Корее абсолютно неизвестна).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корейск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движению 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е (в той степени, конечно, в какой она сама существует именно как община, а не как группа индивидуумов) необходимо ставить перед собой реалистические, но не слишком приземленные цели.

Преподавание языка.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автор этих строк крайне скептически относится к перспективам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е Сахалина. Для молодого корейца, выросшего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являющегося по языку, фактически, русским,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райне сложную задачу. Играет роль тут и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синтаксис, и иная идиоматика, и множество иных пробл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умеренно свободного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не «кухонным» его вариантом, а литературным языком) необходимо потратить очень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сил.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потенциальных студентов эти вложения просто не имеют смысла.

И,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гда найдётся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готовы, если им предоставя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тратить это время и эти силы. Некоторую роль может здесь сыграть желание найти работу,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ную с Кореей, но некоторые из студентов могут просто отличаться интересом 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к языкам. Поэтому имеет смысл создав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как формальную систему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в школах и институтах), так и систему кружков и курсов с гибким графиком. При том,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таких курсов быстро отсеется,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всё-таки овладеет языком, а остальные получат хотя бы базовые понятия о корейском (что тоже полез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Поддержка культурн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язык постепенно (и неизбежно) выходит из употребления, прекращает играть роль важного маркер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общине,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оль элементов традиционной бытово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Умение готовить по-корейски, петь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танце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танцы (или, скажем цинично, то, что считается таковыми танцам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важный фактор идентификации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й бытово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и увеличению престиж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оссийском окружении. Поэтому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кружк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ина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и т.д.

Популяриз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было отмечено таким феноменом как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по планет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Пока этот феномен не слишком затронул Россию, однако потенциал для успеха 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имеется.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корейцы диаспоры могут взять на себя лидирующую роль в деле ознакомления россиян с современным корейским кинематографом (включая и телевизионные драмы) и корейской эстрадой. Группы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и сериалов, кружки любителей К-роп'а, разнообразные фестивали и проч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спорт. Общеизвестным фактом стал успех тэквондо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Поддержка тэквондо и, шире говоря,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может стать важной частью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К сожа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тернета традиционная бумажная пресса явно переживает сейчас не лучшие времена. Кроме того, перех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бщения,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завершившийся, тоже заставляет опасаться за будущее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И, тем не менее, крайне желательны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газет и журналов — пусть и не слишком тиражных, и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убыточных. Существова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пусть и выходящей в основном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является еще одним напоминанием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общины. Кроме тог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неизбежно становится цент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Никакой интернет-сайт заменить газету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не может (хотя, спору нет, сайты тоже должны существовать).

ФИНАНСОВЫЕ ВОПРОСЫ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вся описанная выше деятельность требует некоторых финансовых вложений. Разумеется,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могут взять на себя участники тех или и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нятно, что с участников кружков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инарии вполне можно брать деньги). Однак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корей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является убыточной, так что её невозможно вести без внешне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огда заходит речь о так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обычно думают об иностранной поддержк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нечно, о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фонд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оры нет,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корейские деньги играли немалую роль в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культурных и институто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Однако излишне полагаться на зарубеж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е следует по ряду причин.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ычно финансируют те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держка которых соответствует их представлениям о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пример, немалые средства тратятся на пропаганду корейской керамик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массовая культура зачастую игнорируется). Вдобавок,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являются не слишком гибкими. Наконец, временами они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проталки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Сеула, которые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ют не только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нтересами Москвы, но и с интересами и задача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 многом эти критические замечания относятся и к той поддержке, котору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от росси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учреждений.

Поэтому, продолжая работать с корейскими и росси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райне желательно иск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 независимые

источник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частности, таким источником может стать этн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что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б.СССР есть немало успеш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 могут сыграть важную роль в поддержке культурных начинани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ЗАКЛЮЧЕНИЕ

Итак,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еизбежно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процессами ассимиляции, которые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только усиливаются. Эти процессы едва ли возможно остановить, хотя их можно (и нужно) замедлять. Тем не менее,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могут сыграть немалую роль в налаживан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одиной своих предк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т потенциал,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рейск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формировать позитивный образ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у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оживают корейцы.

미래 한인 디아스포라 전망에 대한 단상

A. N. 란코프

국민대학교

사할린 땅에 한인사회가 형성된 지 70년이 지났다. 소련 시기에 형성된 이 한인 디아스포라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는 집단(그룹)이다. 저자는 오늘 이 그룹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이고, 사할린 한인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한다.

비애: 언어적 동화의 불가피성

사할린 한인의 성공(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사할린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슬픈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문화, 언어적 동화가 사할린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고, 언어적 동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한인 2세대에게 한국어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을 구사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3세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일상 대화에서 마저 한국어가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전통도 이미 상실했거나 또는 크게 변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사회의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선족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의 시골을 중심으로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으며, 조선족 학교에 다니면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은 중국 사회 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민족이었다. 이들은 고등교육(한족대비 3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골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약 15-20년 전부터 부모들은 고등교육 기관(전문대학, 대학교)에 자녀를 보내 성공한 도시인이 되길 원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조선족들은 중국어에 언어적으로 동화되어 갔다.

사할린의 한인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국(또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결혼할 수도 있고, 이들이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및 문화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한인 3, 4세대 대부분은 한국어 구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모국어는 러시아어이며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어가 그들에게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인 출세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편, 언어의 완전한 동화가 곧바로 문화의 동일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유대인은 자신들의 언어를 벌써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특징적인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사회도 향후 1, 2 세대 안에 인종적으로 이미 반은 동화 될 것이고 한국어 또한 완전히 또는 거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민족적 정체성은 유지될 것이다. 즉,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적 요소들은 부분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필자는 예상컨대, 시간이 더 흐를수록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동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결혼을 통한 혼혈(다문화)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시기의 한인 사회에서는 몇 세대 정도가 지나도 그러한 것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것은 1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전형적인 예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몇 백 년 전에 영어로 언어적 동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러시아의 가교 역할로서의 사할린 한인

한인사회와 같은 공동체의 존재는 한-러, 또는 러시아와 남북한 정부의 경제, 문화 및 정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의 분단은 아직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관계를 남한에 두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갖고 있다.

한인들은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다. 후자의 경우 경제 및 문화 활동 영역에서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할린(넓게는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 혈통의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어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민족적 동질성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인종적 디아스포라가 (남과 북의) 정치 게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러 관계의 경우에 그런 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심각한 마찰도 없고, 심각한 영토문제(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녹둔도를 제외한다면)도 없다. 그래서 민족적 정치적 게임의 위협은 매우 소소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인들이 러시아 내 한국 문화의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명확한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즉, 소비에트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일정 기능을 담당하는 한반도 문화의 대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실질적 측면에서 순수한 한국 문화와 러시아적 요소가 가미된 대안 한인 문화 사이의 차이는

이미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 한인의 당근채(당근으로 많은 나물무침)를 기꺼이 맛있게 먹은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의 부엌(음식)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당근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한국 문화 운동과 한인 사회(개별적인 그룹이 아닌 공동체)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물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언어의 교육. 필자는 사할린 한인 사회가 한국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다. 러시아 문화와 언어 속에서 성장한 젊은 한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미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이미 불필요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들 중 몇몇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구할 것이고 다른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구사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결국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인들은 민족적 의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 자치활동의 지원. 최근 십 수 년 간 “한국의 물결(한류)”현상이 있었다. 한류는 전 세계에 퍼진 한국 대중문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러시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 잠재력은 있다. 러시아 한인들은 현대 한국영화(TV 드라마 포함)와 한국 무대 공연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한국 영화 및 시나리오 연구 그룹, K-POP 동호회 클럽, 그리고 다양한 페스티벌과 기타 문화행사는 한인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국가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태권도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태권도에 대한 지원, 더 넓게 말해서,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는 한인 사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한인 언론의 유지. 유감스럽게도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종이 매체들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인사회가 러시아어로 전환하면서 한인 언론의 미래

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신문과 잡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많은 발행부수가 아닐지라도, 사할린 한인 신문의 존재는(비록 그것이 러시아어로 출판되고 있어도) 그 자체로 한인사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의 편집은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 어떤 인터넷 매체도 그 신문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

위에 언급한 활동들 모두 최소한의 재정적 충당이 필요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 지출의 일부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다(한국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적 정체성을 갖는 대부분의 활동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활동은 대외적인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대외적인 지원을 생각한다. 물론,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의 민간 펀드로부터의 지원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재정적 도움이 한인 공동체의 문화적 제도의 기능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서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적(과제)과도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 기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적인 재정적 원천을 찾아야 한다. 특히, 독립적인 재정적 원천은 한인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다. 과거 소련 시기 한국인들 중에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한인 사회의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론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동화의 과정이 강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은 비록 그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한인들은 러시아와 자신들의 고향(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한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인 디아스포라의 긍정적인 모형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Южной Кореи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концесс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иски и предпосылки

Ким Ен Сун

докторант Байк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Аннотация

Целью статьи является исслед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рез концессионные механизмы. В итог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финансовые предпосылк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данной отрасли. В ходе анализа возмо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дорожная отрасль региона была признана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ой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оценка изменения проектных риск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влечения апробированных инноваций в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нцесси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инновационный индекс, вантовый мос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концессия, технология крепления грунта, ESP, открытые придорожные ограждения, пункты Hi Pass, порты-хабы, контейнерные перевозки, ум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ветодиодные дорожные знаки, станда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гражданских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технические нормы, себестоимость перевозок, рамочное кредит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роектный риск, финансовый риск,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риск, концессия, залог права концессионера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Южной

Корея в 60-е годы 20 века был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логистика не могла удовлетворить нарастаю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Кёнбу обеспечило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и сроков поставок, что сыграло большую роль в ускор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траны. В течение 1970-х гг. ежегодный прирост ВВП составил более 10%.

Посл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роги Кёнбу в 1970-е гг. также были проложены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Хонам, Намхэ, Ёндон и Кума; в 1980-е гг. – Олимпийское шоссе 88 и автомагистраль Чжунбу; в 1990-е гг.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между Паньё и Кури, Сингаль и Ансаном, автомагистралей Сохэн, Чжунан и Внешней кольцевой автодороги в Сеуле. Сегодня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еди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кластеров в единую, синхронно работающую логис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¹⁾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Bloomberg Businessweek в феврале 2013г.,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среди 50 сам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стран мира, уступив только США.

Инновационный индекс каждой страны оценивается по семи факторам: интенсивность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 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дол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компаний, концентрация нау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атентная активность. Россия заняла в рейтинге 14-е место.²⁾ (табл.1)

Налицо явное отставание Росс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ях, патентной активности при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компаний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Таблица1- Составляющие рейтинг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Ф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Bloomberg

Факторы	Место по рейтинг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Ф
R&D Intensity (интенсивность НИОКР)	5	29
Productivity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32	41
High-tech density (дол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компаний)	3	2
Researcher concentration (концентрация нау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8	24

1)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3-34

2) <http://www.bloomberg.com/slideshow/2013-02-01/50-most-innovative-countries.html#slide38>

Manufacturing capability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3	38
Tertiary efficiency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4	2
Patent activity (патентная активность)	1	8

Стратег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инноваций в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 превращ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НИОКР в экспортный ресурс. Впечатляет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новизна технологий мостостроения, реализованная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оста И Сан Син компанией Daelim Industrial.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опорами составляет 1 545м, что длиннее расстояния между опорами моста Золотые ворота в Сан-Франциско. Следуе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длина пролета между опорами также превышает парамет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андарта. Корея стала шестой страной в мире, которая смогла построить подвесной мост полностью на свои сред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ста Кэга,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Пусан и остров Кэждед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дводных тоннелей. Проект включ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вантовых мостов (3,5 км) и самую сложную часть этого проекта – прокладку тоннеля под морем (3,7 к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ложить такой тоннель, инженеры соединили 18 бетонных труб, на 50 м ниже уровня моря,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Кадокдо и Чунчжукдо.

Компания Daewoo E&C разработала систему по контролю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лучившего название «Внешняя система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ESP). Система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Донхэн, протянувшейся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что позволило соединить бетонные трубы под морем, допустив погрешность в пределах 2 см. Трубы, весом 45,000 тонн, впервые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в сухом доке.

Экологи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между Сеулом и Чунчхоном, когда были построены 103 моста, 41 тоннель, 9 развязок, 9 офисов и 2 зоны отдыха. Компания Hyundai Development Company еще на стадии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применила противоселевую технологию крепления грунта, что помогло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неустойчивые естественные склоны почвы и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в процес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новейшие технологии на не менее затратном этапе обслуживания дорог.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одовой бюджет, который тратится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автомагистрал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100 млрд.

корейских вон.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в инновациях, которые бы продлили срок службы дорог и снизили затраты на их обслуживание. Были созданы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очетающие при ремонте такие пр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как асфальт и бетон. Верхний слой дороги – это асфальт, а нижний – бетон,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эффектив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вес проезжающи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это продлит срок службы дорожного покрытия более чем на 20%.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лительности срока эксплуатации асфальта разработана технолог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ереработанных отходов из пластика: волокна, полученные из переработанных частиц пластиковых отходов, смешиваются с асфальтом,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дороги менее подвержены формированию трещи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будут подписаны контракты на поддержание 100-киллометровой дороги в Китае и 50-киллометровой дороги в России, применяя эту новую технологию.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транспорта и морски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технолог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 2009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дрило нов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технолог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ткрытых придорожных ограждений,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более широкий обзор водителям, чем ранее применяемые W-лучевые ограждения. Эти огражд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вдоль последней полосы дороги и помогают водителям лучше видеть ту часть дороги,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за углом, тем самым предотвращая столкновение или смягчая шок от аварии, если она все-таки произошла. Применение этой технологий на аварийных участ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сделало вождение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м и позволило уменьшить число ДТП и снизить издержки, связанные с ними.

При создании солнечных светодиодных дорожных знаков, которые светятся сами по себе и улучшают условия вождения,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е технологии. Эти знаки используют солнечную энергию, поэтому они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ам, где недоступны стаби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питания. Водителям легче видеть их ночью или в дождь, чем обычные светоотражающие дорожные знаки, которые возвращают свет в ту сторону, откуда он идет.³⁾

Помим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дорог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недряются нов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для уменьшения загруженности дорог. В 2006г. потери от дорожных пробок составили 24 млрд.\$. При этом 62,8% данных потерь приходится на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ы городов. 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Hi Pass,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безостановочное прохождение участков, где взимается плата за

3) <http://m.korea.net/russian/NewsFocus/Travel>

поезд, позволило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издержк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 2011г. более 50% дорог оборудованы пунктами Hi Pass.⁴⁾

Страна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ртовой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99,7% всех товаров, производимы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К), вывозится через морские порты. Через них в страну поступает и сырьё. Все основные экспортные и импортные потоки проходят через порт Пусан. В 2010 г. было перевезено 14 млн. 190 тыс. контейнеров. Порт Пусан по грузообороту занимает 5-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сле Шанхая, Сингапура, Гонконга и Шеньженя. Пусан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частей – старой (северной) и новой территорий. Если раньше контейнерные перевозки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в основном через Северный порт Пусана, то сейчас вся масса контейнеров идёт через вновь выстроенный Новый порт. Количество перевалочных кранов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К 2020 г.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ещё 35 причалов. За счёт проведения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глубину возле причальной стенки предполагают увеличить до 17 м, что обеспечит подход крупнотоннажных суд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исходящ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орских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суда не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сейчас в каждом коммерческом порту, а осуществляют выгрузку только в основных портах-хабах. После чего контейнеры развозятся судами меньшего размера в соседние порты. На развит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хаба п. Пусан планируется потратить 9,8 млрд. долл. СШ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контейнеров, обрабатываемых портом в год, до 15 млн.

Самым изве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аэропортом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Инчхонский аэропорт был построен на острове, соединённом с материком мостом.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лет этот аэропорт остаётся лучшим в мире по рейтингу «Ридерс Дайджест», основанному на оценках самих пассажиров. Он является вторым в мире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еревозимых коммерческих грузов, и занимает восьмое место по пассажиропотоку. Благодаря «ум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сокращается время высадки – посадки пассажиров. По стандарт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гражданских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время, затрачиваемое на посадку пассажиров в самолёт, должно составлять 60 мин.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все пассажиры поднимаются на борт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за 18 мин.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при стандартном времени высадки в 45 мин., в Инчхоне затрачивается 13 мин. На принятие и отправку самолё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ействующие стандарты выделяют 120 мин.

4)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2

Крупнейшие города страны соединяет линия скорост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ую называют Корейским экспрессом (КТХ). Эта дорога позволяет переезжать из одного конца страны в другой за 1,5 часа. Поезда КТХ развивают скорость до 350 км./ч. Проходит испытание четвёртое поколение поездов, которые смогут развивать скорость до 430 км./ч.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протяжённость скоростны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в стране с нынешних 368 км. до 2362 км. в 2020 г.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экспорту услуг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за рубеж. В июле 2008г.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Фонд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Размер фонда,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тся пополнять с участием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составит 1,9 млрд.\$. Эти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мощь строительным компаниям в получении крупных подрядов за границе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ектах. В 2002-2007гг.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95 зарубежных проектах 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28,3 млрд.\$.⁶⁾

В целях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контроля между ВТБ РФ и «Export-Import Bank of Korea». Данный Меморандум позволил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лизации рамочного кредит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на сумму 0,5 млрд. \$ с льготным сроком погашения в течение 5-х лет.

В развивающейся Азии Корею признают как ролевую модель для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за счет частного капитала: она служит примером того, какими могут стать Индонезия, Филиппины и Вьетнам. В Корею есть крупные инвесткомпании и здоровые банки. Собств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условиях актив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траны вряд ли потребует новых существенных вложений, но если это случится, то в условиях очень низких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рибыльность банков может пострадать. Благодаря всем этим факторам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в иде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чтобы взять на себя роль лидера в развитии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большой ча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России в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бюджет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езусловно, без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5) Сон Чон Хо.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осн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Ойкумена.-2012.-№1.-С.46-47

6)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2

невозможно вести речь об освоение богатейших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развитии транзит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живает всего 4,4%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но их вклад в ВВП страны – 5,4%. Если смотреть по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то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России – 16,7 тыс. \$., 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17,5 тыс. \$., на Сахалине в 2011 г. он достиг рекорда – 52 тыс. \$.

Состоя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отстает не только от передовых, но и некоторых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А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 если учесть ввоз автомобилей в регион.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небольшим исключением,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ехническим нормам, что приводит к износу машин, увеличению затрат и повышению себестоимости перевозок.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облем региона. По сути она зеркально отражает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РФ,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 по итогам 2012г. занимает 136место в мир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1 года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области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едом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составила 3423,5 км, в том числе с твердым покрытием – 1433,7 км (41,9% от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и). Протяженность дорог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2010 г.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09 г. увеличилась на 4,5% и составила 3165,1 км. Протяженность ведом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дорог составила 258,4 км. Из объем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62,5% приходится на грунтовые в 2010г. (для сравнения 2009 г. – 63,2%).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составляют 92,5% 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наиболе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и являются федеральные дороги, но их доля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3,5%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и. Удельный вес дорог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составил 48,1%,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ли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 48,4%.⁷⁾ По-прежнему не решена проблема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Курил. Сокращаются объемы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транспортом.⁸⁾

Отсюда низкая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условиями жизни (44,6 баллов из 100) при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доходов (60 баллов из 100) и уров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67 баллов из 100).⁹⁾

7)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цифрах 2006 – 2010 гг. // Сахалинстат, 2011.

8) Структура ВРП по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2010г: Отчет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

Проблем в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региона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аэропорт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будущего центра региональны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 пересмотр схем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целью ликвидации пробок;
-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одер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перешивки коле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 включение области в един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систем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ут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агистрали Селихин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 Ныш (о.Сахалин) с устройством тоннельного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через пролив Невельского и сооруже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линии Ильинский – Углегорск;
-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обслуживания крупногабаритных судов и каботажа через проведение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модернизацию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рича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грузовых и пассажирских терминалов;
- обеспеч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что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их развития.

Раз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масштабными финансовыми вливаниями нельзя, которых уже и нет сегодня в бюджете. Требуется внедрение апробированных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технологий, инноваций,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дкостью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актике. Концесс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опыт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Закон «О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ях» от 21июля 2005г. и новации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ях»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пании «Российски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2г. расширя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ряда объектов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где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успешно апробировал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вносимыми в ст.4 Закона «О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ях» к таким объектам теперь будут относиться:

-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или участк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 защитные дорожные сооружения;

9) www.minregion.ru

- искусственные дорожные сооружения;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объекты, используемые при ремонте, содержани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 элементы обустройств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дорожные знаки, дорожные ограждения, светофоры и другие устройства дл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места отдыха и т.д.);
- объект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взимания платы;
- объекты дорожного сервиса .

Новая редакция Закона «О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ях»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ложить права по концессионному соглашению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м кредиторам только в отношении объектов 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зданы серьез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дорожных концессиях.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инструмен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ГЧП) не являются новинкой, что тоже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аспектом расшир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основе концесс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здана развитая правовая и нормативная база ГЧП,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Закон о ГЧП, Указ о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и Основной план ГЧП, разрабатываем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тратегии и финансов. В целях эффективного снижени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угроз для частного бизнеса в Законе о ГЧП четко прописаны процедуры, права и обязанности, а также механизм распределения рисков.

Реше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конкретного проекта принимается после подготовки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ТЭО) и проведе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VFM-теста. ТЭО определя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VFM-тест –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ость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ГЧП или через прям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за сч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литика систем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управления обеспечила превращение механизма ГЧП в стабильный и высокоприбыльный бизнес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Следствием этого стал рост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доля которых по отношению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увеличилась с 4% в 1998 году до 18% в 2008-м (в среднем 11,3% за 10 лет).¹⁰⁾

Крупнейш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ртовым проектом, реализованным в 2001-2009 годах в рамках ГЧП, ст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порта в Пусане: расширение и

10) Казаков А. Механизм ГЧП в портовом секторе Южной Кореи//Морские порты.-2010.-№10, с.34-38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тарого порта с созданием на его месте мощного порта-хаба,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вс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Это главный порт Южной Кореи, обрабатывающий около 40% поступающих в страну зарубежных грузов, 80% контейнерных грузов (более 13 млн TEU в год).¹¹⁾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носит точечный и явно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 2012г. компания Keumto Construction субподрядчик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Гидрострой» начала работу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глубоководного причала в портопункте Китовый.¹²⁾ В будущем это приведет к ликвидации рейдовой погрузки-выгрузки пассажиров и увеличению заходов крупных судов в портопункт. В феврале 2013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лючило с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транспорта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¹³⁾

В области уже реализован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ерминалов, проведения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порту Пригородно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порта в районе пос. Набиль, угольных площадок в районе мыса Изъльментьева (порт Шахтерск)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ичала № 8 в порту Холмск.¹⁴⁾ Проведем анализ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цессион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объектов (Табл.2).

Таблица 2- Анализ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цесс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 Сахалине

Объект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цессии	Услов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цессии
п. Набиль	Воз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ьгот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Гарантирование высокой нормы отдачи влож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Угольные терминалы на мысе Изъльментьева	возможно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расходов концессионера Создание особой портовой зоны

11) Казаков А. Механизм ГЧП в портовом секторе Южной Кореи//Морские порты.-2010.-№10, с.34-38

12) www.sakhalin.info/news/78358/

13) www.sakhalin.info/news/81274/

14)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2030 года//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rosморпорт.ru/seastrategy

Прямое или косвенное (через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требуют ежегод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так как они будут затрагивать вопросы исполнения бюджет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доходам и расходам. Очень низка вероятность высокой нормы отдачи от вложений в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рта,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тольк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и безопасной перевалки опасных грузов и ликвидации разливов нефти во всех портах Сахалина, также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работы шельфовых буровых платформ, так как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работки н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ефти и газа остаются неясными. Создание особой портовой зоны требует дл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ования проекта с профильными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субъекта РФ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се объекты имеют длительные сроки реализации, что не позволит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сурсы кредитного рамоч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ВТБ РФ и «Export-Import Bank of Korea».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стным сценарие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цессий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возможно в среднесрочных проектах, имеющих поддержк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нда в сфере 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пределим влияние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уровень риска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ектный риск можно рассчитать по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ной формуле расчета, предложенной Квасовым И.Н.:

$$R_p = 0,2R_1 + 0,25R_2 + 0,1R_3 + 0,1R_4 + 0,35R_5$$

где R_1 –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иски;

R_2 – рыночные риски проекта;

R_3 – риски контрагентов;

R_4 – риски правовой основы проекта;

R_5 – финансовые риски проекта.¹⁵⁾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влечен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меющих богатейши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опыт 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селеопасных и гористых местностях, приведет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снижению, прежде все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иска. Вклю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партнера, пользующегося поддержкой национ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в концессионный проект способствует снижению риска правовой основы проект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снижения

15) Квасов И.Н. Оценка риско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регионе // Эконо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теория, практика. – 2009. – № 20

финансовых рисков проекта, если иностранному инвестору проекта будет гарантировано страховое покрытие.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в сейс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й зоне связано с форс-мажорными рисками, которые неуправляемы и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шают общий риск по проекту.

Поэтому при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заключения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корейским инвесторам следует учесть ряд нюансов в целях снижения риска проекта: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объекта инвестиций, ка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арантий, рейтинг банков, отвечающих з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гарантий, срок проекта. Немало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таких проектов играет и лояль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у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шансы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ыше, так как в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ет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диаспора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Библиография

1.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2
2. Казаков А. Механизм ГЧП в портовом секторе Южной Кореи//Морские порты.-2010.-№10, с.34–38
3. Квасов И.Н.Оценка риско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регионе//Эконо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теория, практика.-2009.-№20
4.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цифрах 2006 – 2010 гг. // Сахалинстат, 2011.
5. Сон Чон Хо.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осн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Ойкумена.-2012.-№1.-С.46–47
6.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2030 года//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rosmorport.ru/seastrategy
7. Структура ВРП по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2010г: Отчет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
8. www.minregion.ru
9. www.sakhalin.info/news/78358/
10. www.sakhalin.info/news/81274/

Информация об авторе

Ким Ен Сун – кандида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зам. проректора по науке и инновац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права и информатики, докторант Байк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6930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72, e-mail: kim.sofja2011@yandex.ru

The use innovative potential South Korea through concessions mechanism in construction of transports infrastructure of the Sakhalin Region: risks and preconditions

Kim Yen Sun

Baikal National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Annotatio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study the possibilities of attracting innovative potential of Korea in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Sakhalin region with the concession. Were identified the economic, technological, political and financial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ussian–Korea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sector. Road sector in the region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promising for investors of South Korea during the analysis of the possible directions of investment. Were evaluated the change of project risks as a result of attracting tested innovations in transport concessions.

Key words: innovative potential, innovation index, cable–stayed bridge, public–private partnerships, concessions, ground mount technology, ESP, open roadside fencing, items Hi Pass, ports – hubs, container transportation, smart technology, LED signs,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ivilian air carriers, technical standards, the cost of transport, framework agreement, project risk, financial risk, technology risk, concession, the concessionaire’s right in bail.

Active 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in the 60–s years of the 20th century was connected with the fact that logistics could not meet the increased production. Construction of the highway Canby improves the quality and delivery times,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accelerating economic growth. In the during of 1970–s years the growth of GDP was of over 10% .

After building of the road Canby in 1970–s yeas Honam highway, Namhae, Yeongdong and Qoma were built, in the 1980–s yars – the Olympic Highway 88 and Highway Chzhunbu, in the 1990–s years started the building of roads between Panier and Kuri, Sinhal and Ansan, the building of highways Sohen, Chzhunan and Outer

Ring Road in Seoul. Toda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a goal to combine into a single territorial clusters and synchronously working logistics system.¹⁾

In February 2013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second (after the U.S.) of 50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Bloomberg Businessweek.

Innovation index of each country is assessed on seven factors: R&D Intensity, Productivity, High-tech density, Researcher concentration, Manufacturing capabilities, Tertiary efficiency and Patent activity. Russia has the 14th place in the ranking.²⁾ (Table1)

Russia lags behind in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Patent activity, but it has a high concentration of high-tech companies and well-trained specialists.

Table1- rating parameters of the Republic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ccording to the Bloomberg

Factors	rating level	
	RK	RF
R&D Intensity	5	29
Productivity	32	41
High-tech density	3	2
Researcher concentration	8	24
Manufacturing capability	3	38
Tertiary efficiency	4	2
Patent activity	1	8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imed at active development of innovations in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the transform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the export share. Uniqueness and novelty of the I Sun Sin bridge construction technologies by Daelim Industrial is surprising. Support distance is 1 545m. It is longer than the span the Golden Gate Bridge in San-Francisco. Experts note that the length of span between supports is also higher than the state standard specification. Korea became the sixth country in the world that was able to build a suspension bridge is completely on its own. Bridge construction Kega that connects Busan and the island Kechzhedo, demonstrated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construction of submarine tunnels. The project included the

1)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3-34

2) <http://www.bloomberg.com/slideshow/2013-02-01/50-most-innovative-countries.html#slide38>

construction of two cable-stayed bridges (3.5 km), and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ject – construction of tunnels under the sea (3.7 km). Engineers put together 18 concrete pipe on 50 m below sea level, between the islands Kadokdo and Chunchzhukdo for building such tunnel.

The company Daewoo E & C developed the system of monitoring equipment. Her name is "External System Positioning » (ESP). System wa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highways Donhen, which was built along the coast. It solved the problem of the connection concrete pipe under the sea, with a tolerance error of within the limits 2 cm. The tubes (weight 45.000 tonnes) were collected in a dry dock for the first time. Eco technologies have been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highway between Seoul and Chunchhonom, when there were built 103 bridges, 41 tunnel, 9 road junctions, 9 offices and 2 recreation areas. In the design stag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has applied the technology preventing mudflows (fixing soil), which helped to stabilize the unstable natural soil slopes and minimiz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ctively uses the latest technology at the stage road maintenance, which has high costs. Now the annual budget for the maintenance of highways throughout the country is about 100 billion Korean won. Therefore, the government is interested in innovations that could extend the life of roads and reduce the maintenance costs. Have created new technologies that combine strong materials as asphalt and concrete in road maintenance. The top layer of the road is covered with asphalt and the lower – concrete that effectively to distribute the weight of passing cars. It will extend the life of road surface by more than 20%. To increase the duration of the life of the asphalt has developed a technology to use recycled plastic waste. The fibers that are produced from recycled plastic waste are mixed with asphalt. As a result, the road less susceptible to the formation of cracks. At an early date the service contracts for 100 km roads in China and 50 km roads in Russia with the use of this latest technology will be signed.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South Korea is actively supporting technology for road safety. In 2009the Ministry introduced a new transport technology using open roadside fences, that give a broader view of the driver than the W-beam rail. These fencing are installed along the last strip of the road and help drivers see better that part of the road, which is around the corner. This is to prevent or mitigate a shock of the accident, if the accident occurred. The use of

this technology in the emergency sections of national roads made driving safer and reduced the costs of road accidents.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were used to create solar LED road signs that glow on their own and improve driving conditions. These signs use solar energy, so they can be used in places where there is no stable source of supply. At night or in the rain they are more clearly visible than conventional reflective road signs, which return the light in the direction from which it comes.³⁾

Besides the construction of new road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new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reduce traffic congestion. In 2006, loss of traffic jams were \$ 24 billion. 62.8% of this loss falls on the central areas of cities. The introduction of Hi Pass, providing non-stop to go along with the installed fare considerably reduced the costs of users. Till 2011 year more than 50% of the roads were equipped items Hi Pass.⁴⁾

The country is actively using modern construction technology of port and rail infrastructure. 99.7% of all goods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RK), is exported through the ports. All of the major export and import flows pass through the port of Pusan. 14 million 190 thousand containers was transported in 2010 year. Busan Port cargo turnover takes fifth place in the world after Shanghai, Singapore, Hong Kong and Shenzhen. Busan is composed of two parts – the old (northern) and new territories. If earlier container transportation is provided mainly through northern port of Busan, but now the whole mass of containers going through the newly built New Port. Number transshipment cranes are growing. By 2020, will be built for another 35 berths. Depth near the berth is planned to increase by dredging up to 17 meters. It's h will provide an approach of large vessels. Now vessels did not stop at every commercial port and unloaded only at major ports (hubs). The container ships are delivered in a smaller adjacent ports. The state plans to spend o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hub port of Pusan U.S. \$ 9.8 billion. Expected to increase quantity of containers processed the port in the year to 15 million.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famous Korean airport. Inchon airport was built on an island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a bridge. The last six years, this remains the best airport in the world by rating "Reader's Digest", based on estimates of the passengers. It ranks second in the world by quantity of commercial goods

3) <http://m.korea.net/russian/NewsFocus/Travel>

4)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2

transported, and takes the eighth place in passenger traffic. Duration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of passengers is reduced by invoking a «smart» technology.

Embarking passengers the aircraf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ivil carriers takes 60 minutes. In Incheon Airport, all passengers climb on board for 18 minutes. In Incheon landing lasts 13 minutes. Standard time of landing is 45 minutes. The total time of the adoption and send the plane is 120 min on standards.

High-speed railway line, which is called the Korean train express (KTE), connects the major cities of the country. This road can move from one end of the country to the other end for 1.5 hours. KTE trains move with speed of up to 350 km. / h. Now, the fourth generation of trains was tested. They can reach speeds of up to 430 km / hr. The length of high-speed railways in the country will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368 km up to 2362 km. in 2020year.⁵⁾

The Korean government attaches great attention to export Services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July, 2008year government has decided to establish a special fund for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who working abroad. Size of the fund will be \$ 1.9 billion.

It will be replenish by private companies. These funds will be used to help construction companies, when they will receive the foreign contracts. South Korean companies are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projects. In 2002- 2007years Korean companies took part in 95 international projects of road construction by \$ 28.3 billion.⁶⁾

VTB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the field of financial cooperation and control for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in Russia. This Memorandum allowed to start implementing a credit agreement in the amount of \$ 0.5 billion with preferential maturities in 5 years.

Developing Asia recognize Korea as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which is funded by private capital. It is an example of what could be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Korea there are major investment companies and first-class banks. The infrastructure in the active state support does not require new essential investment, but if it happens, it will be used at the low credit interest. As

5) Сон Чон Хо.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осн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Ойкумена.-2012.-№1.-С.46-47

6)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Д Справочники», С.32

a result, bank's profitability could suffer. Due to all these factors, Korea is in an ideal position to take a leadership role in the development and financing of infrastructure projects, which necessary for Russia, when reduced government funding of regional infrastructure.

We can't talk about the mastering of rich natural resources of the Far East withou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transit facilities. In the Far East lives only 4.4% of Russia's population, but their contribution to the country's GDP - 5.4%. If you look at GDP per , the average for Russia - \$16,7 thousand, in the Far East - \$17.5 thousand . In Sakhalin, it reached the record - \$ 52 thousand in 2011year.

Condi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of the Sakhalin region lags behind even some developing countries. And it has the high potential for development, if we pay attention to the import of cars. Roadways of Sakhalin region, with a few exceptions, did not meet the technical standard, which leads to wear and tear, increased transportation costs. The unsatisfactory state of the roads -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region. It reflects the general state of the roads of Russia, which has is the 132nd position in the world for the quality of roads in 2012year.

In January 2011year, the total length of highways was 3,423.5 km, were paved - 1433.7 km (41.9% of the total length). The length of roads in 2010 year compared to 2009year increased by 4.5% and equals 3165.1 km. The length of the institutional and private roads was 258.4 km. In 2010 year, 62.5% of public roads are unpaved (in 2009 - 63.2%). Public roads are 92.5% of the total length of roads Sakhalin region. Among them the well-organized are federal roads, but they account for only 3.5% of the total length.

The share of municipal roads was 48.1%, regional roads - 48.4%.⁷⁾ Still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transport accessibility Kurils. The volume of Railway cargo transportation is reduced.⁸⁾

That's why the population has a low satisfaction with the conditions of life (44.6 points out of 100) at a relatively high level of income (60 points out of 100), and

7)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цифрах 2006 - 2010 гг. // Сахалинстат, 2011.

8) Структура ВРП по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2010г: Отчет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 /wps/wcm/connect/ rosstat_main/ rosstat/ru/statistics/accounts/](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67 points out of 100).⁹⁾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has a lot problem:

- the need for reconstruction of the airport of Yuzhno-Sakhalinsk - the future center of regional air transports;
- development of road schemes in Yuzhno-Sakhalinsk to eliminate the bunching;
- the need to modernize Sakhalin railway and restructuring the road width to the national standard;
- entering the region in a single transport system of the Far East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ighway Selikhino (Khabarovsk Region) - Nysh (Sakhalin) and tunnel (bridge) crossing the Nevel Strait and the railway line Ilyinsky - Uglegorsk;
- addressing issues maintenance of large vessels and sabotage through dredging works, modern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berthing facilities, the construction of modern commercial and passenger terminals;
- ensuring of transport availability Kuril Islands, which is essential for their development.

Impossible solve the problems with by using large public investments, which are not in the budget today.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proven technology with a positive result, innovation, which is a rarity in the Russian practice. A concession is one of the tools of positive innovative experience in construction.

Law "About Concession Agreements" of July 21, 2005year and innovation of the Law "About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About Concession Agreements "and the Federal Law" About the state company «Russian Roads" and amendments to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pand opportunities for concession agreements for a number of objects of road infrastructure, where Korean companies successfully tested a modern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that were made to Article 4 of the Law "About Concession Agreements" concession objects are:

- highways or sections of highways;
- protective road construction;
- artificial road construction;
- production objects used in the repair, maintenance of highways;

9) www.minregion.ru

- elements for equipping roads (traffic signs, road barriers, traffic lights and other devices for traffic management, recreational facilities, etc.);
- facilities designed to obtain payment;
- road service facilities.

The new edition of the Law "On Concession Agreements" offers an opportunity to lay right under the concession agreement for road construction to several creditors. Thus,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road concessions are major prerequisites.

Instrume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for Korean businesses are not new. Thi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the expansion of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basis of concessions. The Republic of Korea has developed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PPPs, which includes the PPP law, Decree on the implementation of PPP and PPP Basic Plan. They ar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PP law clearly prescribes the procedures, rights, obligations and risk-sharing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reduction potential risks to the private sector.

Decision on the necessity implement of a particular project is taken after preparation of a feasibility justification and VFM-testing. Feasibility justification determines the need for the project, and VFM-test - the preference of its implementation through the PPP mechanism or through direct funding from the state budget. Public policy support and management turned the PPP mechanism into a stable and highly profitable business for investors.

This has led to an increase i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share of private investment relative to public investment has increased from 4% in 1998 to 18% in 2008 (an average of 11.3% in 10 years).¹⁰⁾

Construction of a new port in Busan was the biggest port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under the PPP in South Korea. It included the expans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old port and the creation in its place of a powerful port hub, which was intended to service entire North-East Asia. It is the main port of South Korea, which takes about 40% of all incoming foreign goods, 80% of all the containers (more than 13 million TEU in year).

Russian-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nsport infrastructure of

10) Казаков А. Механизм ГЧП в портовом секторе Южной Кореи//Морские порты.-2010.-№10, с.34-38

Sakhalin is not permanent and unsatisfactory. In 2012 year company Keumto Construction (subcontractor of russian company "Gidrostroy") initiated work on construction of deep berth in the port station Kitovy. In the future this will lead to the elimination of raid loading and unloading of passengers and an increase in visits of large vessels in the port point. In February 2013year Government of Sakhalin region signed with the Korean Institute of Transport memorandum of cooperation in the creation of the transport concept of the Sakhalin.¹¹⁾

To date projects of construction of the terminal, dredging in the port Prigorodny with Government support implemented fully. Construction of a new port near the village Nabil, coal sites in area of cape Izylmeteva (port Shakhtersk) and reconstruction of berth No. 8 in the port Kholmsk planned under the program development of the Far East.¹²⁾

We will analyz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concession mechanisms in the construction of planned objects (Table 2).

Table 2- Analysis of possibilities of concessions in building of objects of state support in Sakhalin

Object	Possibility of concessions	Terms of the concession
p. Nabil	it's possible	Incentives for investors Guarantee a high rate of return of invested capital
Coal terminals at c. Izylmenteva	it's possible	Subsidizing the cost of the concessionaire Creation of a special port zone

A direct or indirect subsidy to the state (through tax credits) is associated with the annual registration of the relevant documents, because it will raise issues of income and expenses of the state budget. Probability of high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s in port equipment, which is intended only to provide environmentally safe handling of dangerous goods, oil spill response at all ports of Sakhalin and for service of shelf drilling platforms, in the uncertainty of industrial development of new

11) www.sakhalin.info/news/81274/

12)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2030 года//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rosmorport.ru/seastrategy

oil and gas is very low. Creation of a special port zone requires a long project coordina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regions and local authorities. All objects have a long terms of implementation, which does not allow the use of credit resources of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VTB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refore, the most attractive option of concessions with Korean business is the project up to 5 years, which has the support of a regional investment fund in the area of road construction.

Find the change in the risk level of the concession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Project risk can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rmula suggested by Kvasov I.N.:

$$R_p = 0,2R_1 + 0,25R_2 + 0,1R_3 + 0,1R_4 + 0,35R_5$$

где R_1 - technological risks;

R_2 - Market risks of the project;

R_3 - Counterparty risk;

R_4 - Risks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project;

R_5 - Financial risks of the project.¹³⁾

As a result of the involvement of the Korean companie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innovational road construction in mountainous areas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technology risk (R_1).

The inclusion of a foreign partner, who enjoys the support of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in a concession project reduces the risk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project (R_4). Probability to reduce the financial risks of the project (R_5) will be high, if the foreign investor of the project will be insure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construction of objects in seismically active zone connected with force majeure risks. They are unmanageable and significantly increase the overall risk of the project.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concession agreement the Korean investors should take into account some nuances in order to reduce risk of the project: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of the investee, the rating of government guarantees, the class of banks responsible for funding, make additional warranties, the period of the project. Loyalty of the popul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promotion of such

13) Квасов И.Н. Оценка риско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регионе // Эконо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теория, практика. - 2009. - №20

projects. In this respect, Korean business could get support indigenous people, because the region has the largest Korean Diaspora in Russia.

Bibliography:

1. Деловая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 2007-2009гг.: М., «ПОЛПРЕ Д Справочники», С.32
2. Казаков А. Механизм ГЧП в портовом секторе Южной Кореи//Морские порты.-2010.-№10, с.34-38
3. Квасов И.Н.Оценка риско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регионе//Эконо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теория, практика.-2009.-№20
4.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цифрах 2006 - 2010 гг. // Сахалинстат, 2011.
5. Сон Чон Хо.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осн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Ой кумена.-2012.-№1.-С.46-47
6.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2030 года//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rosmorport.ru/seastrategy
7. Структура ВРП по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2010г: Отчет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
8. www.minregion.ru
9. www.sakhalin.info/news/78358/
10. www.sakhalin.info/news/81274/

Author

Kim Yen Sun - Vice-prorektor for Science and Innovation of Yuzno-Sakhalin institute of economics, law, science computer , doctoral student of Baikal National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Candidate of Economics Yuzhno-Sakhalinsk, pr. Communistic 72, e-mail: kim.sofja2011@yandex.ru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формирование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ях

Лиезде Сан Бок, аспирант СахГУ,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ов Просвещения»

Статья актуализирует создание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илами педагогов, владеющих этносоциальной компетенцией. Показана связь воспитания и сущности этнопедагогики, как естественной педагогики и инструмента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втор выделяет особую роль этнопедагогики в процессе развития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й личност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учащихся.

Модел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педагога построена на освоении этнопедагогики. Мы считаем, что воссоздание прогрессивных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приведения в действие исконных традиций воспитания, народной педагогики.

В приложении автор статьи знакомит с 3-мя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ными проектами,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ми наиважнейший факт –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организации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1. Введение.

Одна из серьёзных проблем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падение, крушение ценностей по причине падения роли семьи, что выражается в ослаблении влияния семьи на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не одно поколение, утративше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итики формирования ед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щности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Естественный путь передачи/трансляции осн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родителями и старш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рушен. Эти процессы привели не к социализации человека, а к разрушению семейных

авторитетов, к деградации семьи как ест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лятора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Прервалась связь времен и молодежь с пробудив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самосознанием не находит ответов на свои вопросы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что обрекает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на хаотичное и случайное поведение.

В период смены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иров нарушается духовное единство общества, меняются жизненные приоритеты молодежи, происходит разрушение ценност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а также деформац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для страны моральных норм и нравственных установок.

У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не сложилась ясно выраженная система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иров, объединяющих россиян в едину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ую и социальную общность. В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тал ощущаться недостаток сознательно принимаемых большинством граждан принципов и правил жизни, отсутствует согласие в вопросах корректного и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оведения, выбора жизненных ориентиров.

Образованию отводится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й консолид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его сплочении перед лицом внешних и внутренних вызовов, в укреплении социаль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в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доверия человека к жизни в России, к согражданам, обществу, государству, настоящему и будущему своей страны.

Современ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спитательный идеал – это высоконравственный, творческий, компетентный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принимающий судьбу Отечества как свою личную, осознающи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своей страны, укоренённый в духов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ях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10].

В наше время не возникает сомнения в актуальности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ликульту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решает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условий реализации личности и её интеграции в систему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

Г. Д. Дмитриев о термине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поликультурный»: «используются как синонимы, ибо первая часть этих слов обозначает одно и то же, но имеет раз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 русское, греческое, латинское» [4, 8]. Далее о многокультурности человека: «Многокультурность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важном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ом принципе, состоящим в том,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есть пересечение многих культур и поэтому воз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наличии у индивида нескольких идентичностей, т. е. человек много-или мультиидентичен. Важнейшей из жизнен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индивида является самореализация личности (А. Маслоу, Р. Арди). Психологи показали, что ученик не сможет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если школа не даст ему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другую его потребность – потребность в идентичности, т. е. признания его отличий, его уникальности. Если эта потребность удовлетворяется, он чувствует себя комфортно, уверенно и ведёт себя с чувством достоинства, что создаёт благоприятны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для его учёбы и социализации.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 право индивида выбирать ту или и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ая идея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дивид может иметь сильные и слабые связи со своей культурной группой,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сильную или слаб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с ней» [4, 13].

Актуальность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опрос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выносит на повестку дня проблему о готовности всех социальных служб к работе с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насел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о диаспор и людей «другой» культуры выросл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связи 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требностью острова в рабочей силе.

Проблемы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роблемы смешанных браков и детей, воспитывающихся на стыке культур – объективная реальность. Наряду с количеством диаспор растёт и количество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т. ч. учебны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аботает воскрес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школа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преподав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на базе центра ежегодно организуется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лагерь для дет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Армян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работает воскрес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школа), лидер армян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зглавляет работу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программ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просвещения
- Татарский учебный центр «Тугантел» ведёт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по проблеме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является координатор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иргизской,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казахской, узбекской, таджикской диаспорами

-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ргизская диаспора» и т.д.

В процессе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существится приобщение ребёнка к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а от неё к российской, мировой. С самого рождения ребёнок впитывает культуру окружения, родной среды, семьи – идёт первый этап инкультурации, вхождения в культуру, присвоение паттернов и стереотипов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Путь ребёнка к становлению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и начинается с любви к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дому, к окружающим – с природосообразной потребности ребёнка любить и быть любимым, понимать, что такое родина, быть частью этой родины. Весь этот «добрый и красивый мир»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лучить с момента рождения, в первый этап инкультурации. И при условии успешного его прохождения (обогащённого ценностями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и народной педагогики) вырастет личность, которая во втором, «взрослом», этапе инкультурации будет способна жить в ней и влиять на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Этнопедагогика – инструмент к овладению ценностями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Этнопедагогика оказалась в особом положении, так как среда для прочувствования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как основного ее воспитательного сред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социуме в основном утрачена. Поэтому 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м воспитании основны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средств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может быть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прочувствование, театрализация, проигрывание, импровизация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Освоение, усвоение и присвоение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 это даже н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чителя и ученика, Это – жизнь вместе. Это – переживание вместе. Это – делание вместе добрых дел для других.

Этнопедагогика требует рассмотрения и освоения следующего важного понятия «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человека (ребенка)» как «среда обучения 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бенка». И её производные понятия – этническая среда,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детская этниче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ой общения детей между собой и взрослыми,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детских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сети учреж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лиянием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среды семьи, улицы, села, города.

Роль учителя в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ссия учителя – помочь ученику увидеть за внешними значениями внутренние смыслы,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образование выступит как способ становления личности. Значит, для педагога образовываться – это стремление к созданию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а мир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существить переход от знаниевой педагогики к смысловой: от предмета к человеку, от человека образованного к человеку культуры. В основ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образа мира лежит субъективный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й опыт учителя. Чтобы помочь детям самоопределиться и обрести себя, каждый учитель должен научиться искать и находить своё подлинное личностное ядро. Основ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ью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явля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участник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учебный предмет из цел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средство.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образование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 встречу обращающихся друг к другу поколений, в которой культура оживает, обновляется и длится от века к веку, тем самым реализуетс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поколений – одна из ценностей народной педагогики.

Современный педагог должен пройти такую подготовку,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идеи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тали бы его убеждениями. Стала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педагога, котора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средство формирования этниче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способность к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ю в этн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в полиэтнической среде. Учитель, осознавший свою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будет учить школьников тому, что они имеют право на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ли идентичностей.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педагога наряду с хорошим знанием преподаваемого предмета предполагает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теоретико-практической и личностной 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и к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учащихс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часть культуры позволяет проникнуться мыслью о своём высшем предназначении в этом мире, указывает пути максим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ебя, сво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настоящего и будущего.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тает проблема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Духовное завещание» Ивана Яковлева (этнопедагога из Чувашии) выдержано в духе «Семи благословений», «Семи заповедей», известных в народной этике:

1. «Крепче всего берегите величайшую святыню – веру в Бога. Вера окрыляет силы ума и сердца, дарует внутренний мир, утешает и ободряет душу в часы несчастья и горя, очищает и просветляет ее в счастье и удаче»;
2. «Верьте в Россию, любите ее, и она будет вам матерью»;
3. «Помните, что владеть сердцем народным вы сможете, только если не будете чуждаться языка народного»;
4. «Берегите семью: в семье – опора народ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Берегите целомудрие, бойтесь вина и соблазнов: если сбережете семью, сбережете детей, – создадите крепкую опору для мирного и спокойного труда»;
5. «Верьте в силу мирного труда и любите его»;
6. «Будьте дружны между собой, избегайте мелких счетов и распрей»;
7. «Бойтесь путей кривых и обходных: успехи, достигнутые нечистыми средствами, – успехи непрочные и временные».

Итак, при всем различии этн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этнопедагогика как их часть не поддается обособлению. Если она подлинно народна, она – общечеловечна.

«Вспоминаю бабушкины уроки арифметики: ласково кормим цыплят, сторожим их с любовью и учимся считать, складывать, вычитать. Бегают, снуют туда-сюда нежные комочки, одни лезут под крылышки матери, другие гоняются друг за другом. Попробуй посчитать, где кого сколько. Но для нас в этом занятии была и учеба, и работа, и игра. Бабушка обладала удивительн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интуицией, богатым опытом народ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А ведь она была неграмотна. Именно этот веками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мерилем народности любого педагога, условием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его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Каждый из нас – связь,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трех веков: в прошлом – жили дедушка с бабушкой и их родители, в этом – живем мы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в том – будут жить наши дети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и внуками. И моя неграмотная бабушка-чувашка говорила о трех сотнях лет: она искала корни, истоки, возрождая в памяти события жизни моего прапрадеда и своего знаменитого, древнего дяди Алякки.

В каждом ребенке – первое звено бессмертной цеп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сбережение, поддерживание огня в родовом очаге – это и есть питательная почва народной педагогики.

Неслучайно великие и просто талантливые педагоги, не только в своих идеалах, но и по стилю деятельности, сходны друг с другом, они просты, ясны, понятны. Об этих педагогах можно сказать: ими руководит здравый смысл, один живой ребенок важнее тысячи проектов».

Сила народной педагогики – в массовост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Народная педагогика всегда питала школьное дело. Являясь живой связующей нитью между прошлым и будущим, она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воссоздает образ народа в его лучших чертах. Пока она жива – жив и народ, её создавший.

Приложение.

1. Список школ с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г. Москва.

- №№ 1542, 514, 838, 868, 998, 1703, 141, 167, 1316, 1022, 624, 1842 – рус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148 им. Ф. Достоевского – рус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225 – русская гуманитарная;
- № 112 – поль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24 – украин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 1247 – литов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331 – грузин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621, 1812, 1871, 1311 – ев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650 – поликультура;
- № 959, 1186 – татар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56 Международная российско-турецкая школа-интернат;
- № 1110 – армян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086 –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 № 157 – азербайджанский компонент;
- школа-интернат № 19 – хинди компонент;
- школа № 1947 – кита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2. Тематика программ, подпрограмм и проектов из опыта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и:

-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 Программа «Воспитание россиянина в условиях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У СОШ №1186 с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татарским компон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ЮВАО г. Москвы;

- Программа «Все мы жители Земли», г. Минск, Белоруссия;
- Языковые курсы «Детская языковая деревня», г. Новосибирск;
- Этно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взрослых «Мамина школа», «Школа ремёсел», «Крошка-этнограф», Россий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Программа постоянно-действующего семинара «Школа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СОИУ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рограмма «Школа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рограмма «Школа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рограмма летнего профильного подросткового лагеря «Мире», «Самульнори», «Чонг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 Программа «Воскресная школ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армян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рограмма школы «Этнические барабаны», г. Краснодар, г. Сочи;
- Программа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с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и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 Меж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фильная смена «Город дружбы – город детства»;
- Программа летнего отдыха – профильные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е лагеря (по типу площадки и стационарные);
- Подпрограмма «Воспитание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культуры мира у школьников»;
- Подпрограмм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общекультур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педагогов»;
- Подпрограмма «Формировани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у учащихся»;
- Подпрограмма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3. Работа «Память. Жертвам II-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свящается»- побе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2011 год. В номинации – Лучшая программа 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ёжи. Автор работы – Лиеде Сан Бок.

Статус конкурс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работ в области педагогики,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и молодёжью «За нравственный подвиг учителя».

Проводя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Московский Патриархат;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ПИСАНИЕ ОПЫТА

№ п/п /год	Событие /параметры	Информация
1.	Название проекта	«Память» Жертвам II-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свящается
2.	Проблема, на решение которой направлена программа	Возрождение и сохранение путей трансляции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от поколения к поколению –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любого народа. От воспитания уважения к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к принятию другой культуры, её истории и ценностей – до формирования единой общности –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3.	Сроки реализации	1994–2011 гг
4.	Географ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5.	История проекта	
1945	Деревня Мидзухо (японское название)	1945 год – высадка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в порту Миока на Сахалине.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капитуляция Японии.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жители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убили 27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трех женщин и шестерых детей. Их убили за то, что они были лицам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расправы над корейцами стал отставной унтер – офицер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Морисита Ясуо.
1993	Выход книги К. Гапоненко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Содержание книги	Описание событий августе 1945 г. Жертвами

		японцев стали мирные жители с.Мидзухо. 27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трое женщин и 5 детей.
1996	Установление монумента	Силами волонтеров из числ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Пожарского и сподвижников/спонсор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К.Е. Гапоненко.
1995-1998	СОШ п. Чапланов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Шефство над памятником учеников сош п. Чапланово и п. Пожарско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С 1998 по 2011 г – Акция «Память», долгосроч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1998	Члены РООСКК	С 1988 года два раза в год выезд на 56-й км Холмской трас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и работы по озеленению, «борьба» с сорняками. Посадка цветов. Обряд поклонения усопшим.
1999	Члены РООСКК	Посадка деревьев.
2000	Анивский ДРСУ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 небольшой участок вокруг памятника
2001	Члены РООСКК	Выложили «дорожку» из бетонных плит к памятнику
2000, 2001 год	Летний подростковый лагерь «Мире»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Прохо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Лидер», «Лидер-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ультуре, «Память моего народа – моя история», «Моя малая родина»,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сточный этикет», Встреча с К.Гапоненко – события 1945 года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Выезды на 56-й км Холмской трас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работа по озеле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 поклонения усопшим.
2001 год	МОУ СОШ № 9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анизация детского движения «Мире»
С 2001–2006 гг, дет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МИРЕ», дочерняя организац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на основе лидеров-воспитанников Летних подростковых программ(лагерей отдыха) при МОУ СОШ № 9, берут шефство над памятником.		
2002, 2003,	Л е т н и й подростковый лагерь	Прохо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Лидер», «Лидер-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ультуре,

2004 г од	« М и р е » « Са х а л и н с к о г о 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Память моего народа – моя история», «Моя малая родина»,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сточный этикет», Встреча с К.Гапоненко – события 1945 года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Выезды на 56-й км Холмской трас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работа по озеле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 поклонения усопшим.
2007 год	Д е т с к и й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й лагерь «Самульнори»	Прохо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Лидер», «Лидер-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ультуре, «Память моего народа – моя история», «Моя малая родина»,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сточный этикет», Встреча с К.Гапоненко – события 1945 года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Выезды на 56-й км Холмской трас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работа по озеле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 поклонения усопшим
2007– 2010 гг –	Л е т н и й подростковый лагерь «Чонги»	Прохо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Лидер», «Лидер-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ультуре, «Память моего народа – моя история», «Моя малая родина»,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сточный этикет», Встреча с К.Гапоненко – события 1945 года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Выезды на 56-й км Холмской трас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работа по озеле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 поклонения усопшим
2009– 2011 гг	Инициатива «Ротари клуб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круга 3730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здан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Тен Валерий Михайлович.
	План работы пр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Ротари клуб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извест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округ памятник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грады, очищения территории,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дороги, 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овки);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ый знак на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Холмск», оповещающий о нахождении данного мемориала;

		<p>Ходатайство о включении данного памятника в реестр истор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о дальнейшем обслуживании данного памятника.</p>
7.	Участники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члены РО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взрослые; - члены др.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взрослые); - учащиеся СОШ п. Чапланов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МОУ СОШ № 9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школьники,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в форме летним профильных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лагерей (по типу площадок) 1999-2010 «Мире», «Самульнори», «Чонги»
8.	Новизна проект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учреждений различных форм орга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т.ч.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ивлечение волонтеров) - развитие программы во времени и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 выход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и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ласт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 рабо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и оформлению юридического/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памятника.
9.	Цель проекта	<p>Формирование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личности.</p> <p>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личности, природосообразной потребности любви к родине, делания добрых дел.</p> <p>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идентификации и инкультурации личности</p>
10.	Задач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Формирование у ребёнка «картины мира»/ философии «человека мира»; -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 Приобщение детей к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 взрослыми; -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зитивного,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условий для усвоения/присвоения стереотипов и паттернов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дей и принципов толерантности через проживание и сопережив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удеб конкретных людей,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групп; - Воспитание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личности подростка; -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детской этнической сред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иродосообразной потребности личности в «общении с себе подобными»; -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зи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толерант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к другой культуре на основе уважения и открытости.
11.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p>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и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е воспитание;</p> <p>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p> <p>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этнически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офилактика экстремизма и ксенофобии .</p>
12.	С о д е й с т в и 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и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е воспитание</p> <p>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p> <p>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p> <p>развитие детского и молодеж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p> <p>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этнически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офилактика экстремизма и ксенофобии</p>
13.	Партнёры	
	Консультант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Высоков М.МС., доктор истор.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 Гапоненко К.Е., историк, автор книг по краевед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Отдел связи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998-2003)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СОШ п.Чапланов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1994-1998); - МОУ СОШ № 9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003-2008).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СахОУНБ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РООСК «Репатриация»;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KIN по проблем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К; - Фонд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14.	Способ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екте	СМИ; публич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на форумах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и масштабов (совещания, правления, заседания, родительские собрания, классные часы, объединения, беседы, конференци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КПК).
15.	Инновационный результат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сознания гражда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тношении истории стано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а через судьбы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острове. Посещение памятника сахалинцами и гостями острова.

4. Программа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детей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 2011.

ОПИСАНИЕ ПРОЕКТА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освоение и реализацию учащимися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формирование биосоци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молодежи к сохранению,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так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культуры,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уже сложившихся традиций и развитие новаций.

Воспит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ориентиры, осуществляемые через коллективную твор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1. «Народна педагогика –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завещанная нашими предками», программа мастер-классов: «Матери и сёстры – лучшие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колыбельных песен», «Этикет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Основы народного танца», «Этнический барабан» – на выбор.

2. Программа «Детские этнические игры: развивающие, подвижные».

3. Трудовое воспитание:

- программа трудовых экспедиций в форме экскурсий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окрестност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частичным погружением в трудовой процесс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дня);

- программа мастер-классов народных ремёсел ил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олодому мало и семидесяти ремёсел» (плетение из соломы, работа с

берестой, макроне, вышивание, работа с мехом,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хня, и др.) – на выбор.

4. «Через просвещение к возрождению соверш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народному идеалу» – программа прак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5. «Жить в культуре – наше великое богатство», посещени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дготовка и проведение отчётн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онцерта/мероприятия в форме «вечерних деревенских посиделок».

6. «С любовью к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и истории» – знакомство с диаспорами Сахалина, встречи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экскурсии и пешие прогулки по историческим местам, выезды на природу.

1	Проводящ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2	Название проекта	Программа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детей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
3	Автор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Лиезде Сан Бок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президент ОО СКК; методист кафедры воспитания, ДО и соц. защиты ГОУ ДПО ИРОСО, аспирант СахГУ.
4	Контакт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 т: 48-88-65; E-mail: liede@mail.ru
5	Описание проблемы	Организация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в поли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актуальнейших задач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а. Перед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стоит задача формирования у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зитивной самооценки собственной этничности и толерант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руги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Проведенный анализ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ограм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андартов позволяет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не располагают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инструментарием,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реализацию этн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оекта обусловл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риобщить ребенка к культурным ценностям своего и совместно проживающих этносов.
6	Цель проекта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социализаци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7	Задачи проект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создание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освоенной субъектами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 условиях особым образом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освоение детьми основам род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х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практике; -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ци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и форм,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ых старшие по возрасту группы передают молодым членам общества этнокультурную эстафету; -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на примере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Малой Родины»; - объеди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знаний и теории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с живой практикой, адаптирование традиций прошлого к современности.
8	Партнёры	<p>Южно-Сахалинское ме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ициатив»;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Бя В.И. РООСК, президент Пак Хе Рён;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директор Че Сан Тэ.</p>
9	При поддержке	<p>Быков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Ри Кен Сун;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Тен В.М. и О Тин Ха; ОО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Туган тел».</p>
10	Целевая аудитория проекта	<p>Дети от 8-14 лет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p>
11	Привлечение волонтеров	<p>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p>
12	Способы распростран	<p>СМИ; печатная продукция; личная рассылка;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открыт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p>

	ия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екте	статья в журнал «Сахалин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нференциях и круглых стола, на Курсах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ГОУ ДПО ИРОСО.
13	Ожид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обеспечение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летним отдыхом; -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учащихся 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стных традиций и форм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ащимися навыко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ащимися навыков по возрождению и развит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родных ремесел; - сформированная доминирующая потребность и престижность трудовых навыков;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зрослых», создание творческих групп педагог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щественников-волонтеров в д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 опыт организаци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новых форм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⁴ - включение материалов проекта в метод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у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поли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ахалина» кафедры воспитания, ДО И соц. защиты; - включение программы проекта в программу областную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ую площадку «Школа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5.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 2012».

КАРТА ПРОЕКТА

по маршруту обучающей программы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 п/п	Параметры	Информация
14	Проводящ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15	Название проекта	Обучающая программа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 2012»

16	Автор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Лиёде Сан Бок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президент ОО СКК
17	Контакт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т: 48-88-65; E-mail: liede@mail.ru
18	Описание проекта	Программа составлена для детей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7-10 лет).
19	Цели и задачи проект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обеспечение летним отдыхом детей; - организац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овых форм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развития твор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и личности ребёнка; - развитие личности ребёнка 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стных традиций и форм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 приобщение 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к проблемам сохранения аутентичной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адаптации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к вопросам, связанным с ценностям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ащимися навыко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 научить детей общению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доступных младшим школьникам пределах; развивать навыки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зрослых», создание творческих групп педагог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щественников-волонтёров в д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20	Партнёры	<p>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p> <p>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p> <p>Южно-Сахалинское ме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p> <p>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ициатив».</p>
21	Целевая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Дети от 7-10 лет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2	Способ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екте	СМИ; печатная продукция; личная рассылка;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открытые мероприятия.
23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24	Опыт организации В основу данной комплекс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ложен 14-летний опыт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p>Практика провед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p> <p>Летних профильны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детей в форме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Мире»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Самульнори»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Чонги-2009»,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мена «Чонги-2010»;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2011» и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2012»;</p> <p>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в рамках постоянно-действующего семинара «Школа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совместно с СОИУУ);</p> <p>программы для дошколят «Школа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p> <p>Программ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p> <p>Тематически заседания;</p> <p>«Останкинские встречи-2009» (гость Сахалина – А.Н. Ланьков, востоковед с мировым именем,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Останкинские встречи-2009» (гость Сахалина – Анатолий Ким,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Ф);</p> <p>Фестивали; «Открытые площадки» – концерты, Программы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p> <p>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Память»;</p> <p>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детских домов и дома инвалидов и престарелых;</p> <p>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для детей и семей, нуждаю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p> <p>– различных форм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сширения</p>

		воспит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за сче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ых форм этно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т.к. знакомство учащихся с окружающими объектами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концентрически,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я радиус освоения.
25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26	Адре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Мира, 83 «А»
27	Кол-во детей	от 26 до 36 человек
28	Сро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16.07.-03. 08. 2012. года
29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проекта	21 день

Литература

1. Александрова, В. Г. Возрождение духовных традиций гуманной педагогики [Текст] / В.Г. Александрова // Педагогика. - 2008. - № 6. - С. 42 - 46.
2. Балицкая, И. В. Поликульту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Текст] / И. В. Балицкая.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во СахГУ, 2003.
3. Волков, Г. Н. Этнопедагогика / Г. Н. Волков. - М.: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Академия», 1999.
4. Дмитриев, Г. Д.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Текст] / Г. Д. Дмитриев. - М.: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1999.
5. Камболов, Т. 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ызовы нового времени [Текст] / Т. Камболов // Педагогика. - 2007. - № 6. - С. 106 - 110.
6. Костейкий, В. В. Полуобразованность и полу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Текст] / В. В. Костецкий // Педагогика. - 2010. - № 1. - С. 40 - 46.
7. Леонова, О. А. Понят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его региональн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Текст] / О.А. Леонова // Педагогика. - 2008. - № 6. - С. 36 - 41.
8. Данилюк, А.Я. Концепция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личности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и: ФГОС, серия «Стандарты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учебное издание [Текст]/ А.Я. Данилюк, А.М. Кондаков, В.А. Тишков. - М.: Просвещение, 2009. - 24 с.

9.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ект):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2010г./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mon.gov.ru/work/vosp/dok/6988/>.
10. Поликульту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част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учителя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совет):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школы/ Н.П. Семенова, С.Ю.Шмитова[Электронныйресурс]:<http://festival.1september.ru/>.
11. Россий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2020: модель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экономик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знаниях [Текст]: к IX Междунар. науч. конф. «Модерн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и глобализация», Москва, 1-3 апреля 2008г./подред. Я. Кузьмина, И. Фрумина; Гос.ун-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 М.: Изд. дом ГУ ВШЭ, 2008. - 39 с.
12. 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личности в контексте разработки ФГОС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материалы семинара ИСИО РАО, публикация №1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fgos.isiorao.ru/download/publ.1.php>
13. ГОУ СОШ № 1186 с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татарским компон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ЮВАО, г.Москва/ Л.А. [Электронныйресурс]

민족교육공간: 민족 전통에 근거한 가치 있는 대상 형성

리에데 상복
사할린 국립대학교

본 논문은 러시아 학생들의 정신적, 도덕적 인격 발전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어 민족 교육의 주된 역할을 알아보려 한다.

서론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되어온 단일 민족공동체로서의 <소비에트 민족> 형성 정책의 결과 민족문화의 전통을 대부분 상실하여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져 오던 전통문화의 전승 과정이 붕괴되었다. 이 과정은 인간을 사회화 과정으로 이끌지 못하고 가족 권위의 붕괴와 전통문화의 증개자로서 가족의 역할을 쇠퇴시키는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세대간의 단절로 인해 젊은 세대를 혼돈의 세대로 만든 기성세대들은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는데 그 역할을 할 수도 없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역사-문화적,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할 통합된 방향성이 마련되어있지 않았으며, 사회적 행동구조 변화문제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있다. 교육이 바로 러시아 사회에서 정신적, 도덕적 통합과 개인의 삶, 국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이 자아 실현을 보장하고 자국의 문화를 세계문화와 통합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문화 교육의 현실

사할린의 인구 형성은 다민족 인구의 사회적 가용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수요에 의해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디아스포라의 수와 '타'문화의 사람들의 증가의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간 소통문제, 관용, 정체성, 다문화 혼인과 그로 인한 자녀들의 문화적 혼돈 등은 사할린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디아스포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족 교육 및 문화 센터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 사할린 대한민국 교육 문화 센터
- 사할린 한국 문화 센터
- 아르메니아 문화센터
- 타타르 교육센터 <투간텔>
- 북방 소수민족 민족문화센터
- 사회단체 <키르기즈 디아스포라>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 자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러시아문화, 세계문화로 확대시키는 과정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과 가족으로부터 문화를 배우는 첫 번째 문화 습득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신의 부모와 주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러시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문화가 토착화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성인이 되면 문화에 적응하며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족교육 - 세계 문화의 가치 습득을 위한 도구

많이 퇴색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민족교육은 민족전통을 느끼게 하는 주요 교육수단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는 민족 전통 공연이나 전통 체험 등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민족문화 교육이 있다. 하지만 민족 문화에 적응하고 이를 터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반드시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교육에는 학습과 생활환경 같은 문화환경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 환경, 민족문화 환경, 다문화 민족 교육시설을 통한 학생들의 민족 환경, 다문화 활동을 통한 학생들과 기성세대간 문화적 대화, 메스컴 등을 통한 심화 교육 네트워크, 사회 문화 환경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내면의 사상을 외부로 표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올바른 인격형성의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이란 교사 자신의 전문적인 세계상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자의 지식을 사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교과목에서 인간으로, 학습된 인간에서 문화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교사 개인의 세계상에는 주관적인 사회문화의 경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진정한 '자아의 핵'을 찾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육의 주요 방향은 교육과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며 목적으로서의 교과 과목은 수단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교육은 세기에서 세기로 이어지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세대간 상호결합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 교육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현대 교육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 준비 해야 한다. 민족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수단으로서, 다민족 환경에서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형성할 수 있는 민족 자결의 수단으로서 민족문화 교육이 요구된다. 교사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신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의 능력은 교과목에 대한 훌륭한 지식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무 전문성, 민족 교육을 실시할 개인적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의 연속성,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보존과 발전

문화의 일부로서 교육은 자기 개발과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특히 역사의 연속성,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츄바시 민족교육자인 이반 야코블레프가 염두에 두었던 전통에 관한 에티켓으로 유명한 7가지 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을 확고하게 믿어라
2. 러시아를 믿고 사랑하라.
3. 자신의 민족어와 멀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민족을 간직하라.
4. 가정을 보호하라.
5. 노동을 사랑하라.
6.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7. 옳지 않은 길은 피하라.

다양한 민족문화의 차이에서도 민족문화교육은 실제로 민족적이며 전 인류적 이어야 한다. 민족교육의 원동력은 교육과정의 대중성이다. 민족교육은 항상 학교 교육과 함께 해야 한다. 또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연계점이자 세대를 이어오면서 더 나은 민족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ЛИТЕРАТУ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БЩИЙ ОБЗОР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Е.А.Иконников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Ближайшие ассоциа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литературными успеха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оссии, концентрируются на прозе Анатолия Кима, а также на песнях Юлия Кима и Виктора Цоя. Написанны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оизведения этих автор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е, – самая известная час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достояния, созданного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России.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ет еще один интересный пласт национ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которой гармонично соединились этнические тенденции трех народов –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японцев. Такое контактное пересеч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состоялось в литерату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разным факторам: пограничному статусу региона; миграцион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периодом юрисдикции Японии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период Карафута (1905–45)¹⁾ и др.

По данны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2010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почти двадцать пять тысяч корейцев (5,3%), потомков первых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после русских и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эт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оссийской ча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мпак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беспечило сохранение осн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этничности, подготовило

1) Далее по тексту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границы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а не отмечаются.

ассимиляцию новых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русской, а в отдель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и с ин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культурами.

Перед изложением основных тезисов определим ключевые понятия, используемые в работе. Литературное краеведени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широко, поэтому к литературе края (региона) относится не только «местная» (собственно сахалинская, «краев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в узком значении этого слова) литература, но и наследие всех тех авторов,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которых эпизодически или развернуто описываютс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На этом основании литератур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оликультурная, объединяющая в себ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зданные авторам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о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на русском, япо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региона).

Условное выражение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о-первых, подразумевает творчество авторо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языковых предпочтений) в составе общей поликультурной модел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о-вторых, связывает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нтерпретаций образ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в-третьих, относится к переводам региональными авторами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писанных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ля иллюстративн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ивлекаются авторы, резонанс творчества которых име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и мировой) масштаб, а также авторы, входящие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например, в Союз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отмеченные российски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премиями в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ы и культуры.

Основные част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в следующих частях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I. В *рус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творчество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авторов (А.А. Ким и др.), а также произведения членов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Роман Хе, С.Д. Ян и др.) и начинающих литераторов. Специфическая особенность этой части связана с тем, что рус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ы созда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для которой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ил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рус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доминирующим. То есть в составе рус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масштаба до «местного») присутствует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первом и втором значениях).

II. *Япон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наследие писателей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то, творчество японских авторов XX – XXI века (Пак Хен Чжу, И Фе Сон и др.).

III. В составе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тератур* учитывается собственно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литература, создаваем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им Цын Сон, Тян Юн Ги и др.)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Здесь же частично может быть учте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существовавш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в 1947–59 годах. На сцене театра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вились оригинальные пьес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спектакли были рассчитаны и н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зрителей.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е сведения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в биографических сведениях связан со значимостью творчества того или иного автора в составе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читываются моменты рождения или проживания автора в регионе, обращение в творчестве к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ия биографических справок (данных в алфавитном порядке) в настоящей работе объясняется отсутствием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ном виде.

И Фе Сон (др. вариант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имени **Ли Хе Сон**, японское имя – **Ри Кайсэй**; род. 26.02.1935, г. Мао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город Холмс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японский пис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член япо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85). Родители И Фе Сона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из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И осиротел, умерла его мать Тян Суль И (1906? –1944). В июле 1947 года вместе с новой семьей отца И Бон Соком (1902–1961) тайком пробирается на корабль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для отплытия в г. Хакодате (Япония). В Японии вся семья была допрошена америка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и после этого отправлена на о. Кюсю. И Фе Сон окончил факультет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а Васэда (1969). После этого он работал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Союза северных корейцев, И утверждается как писатель. За книгу «И снова та же дорога» (1969) он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журнала «Гундзо» (1969), за «Прачку» – премии Акутагавы (1972), за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роман «Путь длиною в век» – премии Номы (1994) и др. И – автор мног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реди них: «Ради Каяко» (1970), «Мой Сахалин» (1975), «Земля обетованная» (1977),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Сахалин» (1983), «Путешествие сто лет спустя» (1994) и др. Во всех книгах он поднимает тему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корейцев и «малой» родины своего детства.

Книги И экранизированы, в частности, в Японии известен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Ради Каяко» (экранизация 1984). В фильме, созданном по мотивам одноим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есчастная любовь корейца Им Сан Чжун и японки Каяко. Главный герой – кореец. Он знает, что значит быть иностранцем в Японии, на него с презрением смотрит общество, к нему предвзято относятся окружающие. Брошенная своей матерью Каяко была воспитана 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Юноша и девушка хотят найти свое место в жизни, но препятствия побеждают их любовь, поэтому молодые люди расстаются.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ереведен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России творчество 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известно. Но писатель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езжал на о. Сахалин (1981, 1988, 2006 и др.). В сво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н определяет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реш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и собственно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амятуя о детских годах, провед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е, И убежден,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ытались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своего народа. Неугасаем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илетий творческой биографии И интерес к Сахалину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писатель воспринимает остров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альностью, вобравшей в себя истории жизни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Ким Анатолий Андреевич (род. 15.06.1939, с. Сергиевка Чимкентской обл., КазССР), русский прозаик, драматург,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СССР (1979), член правлений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СФСР и СССР (1981–91), член Русского PEN-центра Всемир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исателей (1989); академик Академии россий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1996), лауреат 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емий.

Предки Кима поселились в России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В 1937 году семья Кимов была сослана в Казахстан. С 1947 года Кимы жил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амчатка, Хабаровск, 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Сахалин). На о. Сахалин семья Кимов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риехала в п. Ильинское, а затем обосновалась в г. Горнозаводс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сел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Горнозаводск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1956) Ким учился в Московск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училище «Памяти 1905 года» на отделении театральных художников, заочно окончил Литературный институт им.

А.М. Горького (1970). Первые публикации Кима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его природе, людям, живущими в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Ким – автор десятков книг,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переведены на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Голубой остров» (1976), «Четыре исповеди» (1978), «Отец-лес» (1989), «Сбор грибов под музыку Баха» (1997), «Арина» (2006) и др. Ким известен и как автор нескольких дет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тдельные события которых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гда цветет миндаль» (1987), «Федина избушка» (1988). Детски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има публиковались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ечати, в газете «Ленинец»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раз Сахалина в прозе Кима является магистральным и воссоздается в раз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Нефритовый пояс» (1981), «Белка» (1985), «Мое прошлое» (1998) и др. В дебютной книге «Голубой остров» примечательны опис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природы с ее снежными зимами и темными сопками, белизной пены водопадов и синей далью моря, запахами рыбы и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огнями пирса и крупными звездами на небе. Основу «Голубого острова» составляют детс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писателя и его поздние раздумья о родине, о судьбах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ерои писателя – это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ы, волею судьбы оказавшиеся на острове,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 русские, японцы, грузины, эстонцы, цыгане. Ким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как виртуозный стилист, чувствующий природ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безупречно владеющий русским литературным языком. Благодаря произведениям Кима, в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вошли запоминающиеся своей яркостью образы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и выпавшие на долю людей, живущих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своих предков, нравственные и физ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По мотивам произведений Кима снято несколько фильмов: «Сестра моя Люся» (экранизация 1985), «Выйти из леса на поляну» (экранизация 1987), «Месть» (экранизация 1989; съемки нескольких частей этого фильма проходили на побережье с. Горнозаводс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им преподавал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991–96). Писатель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езжал на Сахалин и встречался с читателями (1961, 1967, 1989 и др.), последний визит,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стоялся в августе 2010 года.

Ким Цын Сон (11.09.1918, г. Владивосток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18.07.197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ейский поэт, драматург;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СССР (1948). Отец Кима был портовым рабочим, мать – домохозяйкой. Ким рано осиротел (отец

умер в 1922, мать – в 1928), его воспитанием занималась тетья. В конце 1930-х годов семья тети перебиралась в Узбекистан, где Ким Цын Сон учился на филологиче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Узбек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Самарканде (1938-40). Не закончив учебы, он начал преподав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одной из ташкентских школ. Первые публикации Кима состоялись в 1937 году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Сен бон» («Авангард»), позже в журналах «Звезда Востока» и «Шарк Юлдузи» (на узбекском языке). На Сахалине Ким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редактора и ответственным секретарем газеты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1955-69;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1969 году Ким был уволен из редакции, так как на партийном собрании возразил против действий первого секретар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кома партии П.А. Леонова, ратовавшего за закрытие школ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сле увольнения из газеты Ким работал завхозом городской столов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треста столовых и ресторанов.

Ким – автор сборников стихов: «Строки дружбы» (1951), «Когда акация цветет» (1954) и «Пылающие листья» (1968, переизд. 2005), а такж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убликаций в журналах и сборниках: «Сахалин», «Звезда Востока», «Сибирские огни», «Байкал»,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др. Киму принадлежит и несколько драмат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и пьеса «Ханган – голубая река» (1955), постановки которой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Казахским корейским театром и корейским передвижным театром на Сахалине. Все сво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им писал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его лирике сохраняется этн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язык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казавшегося вдали от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Русские поэты и переводчики говорили 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й музыкальности и ритмической красоте поэзии Кима. Это было замечено и композитором Пак Ен Дином, который в 1958 году положил некоторы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поэта на музыку.

Пак Хен Чжу (28.04.1929, д. Посон, Корея – 7.03.1999,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Обучался в японской гимназии г. Маока (1941-45;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город Холмс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ил Хабаровский техникум советской торговли (1964-68). Трудовой путь начал на Чеховском рыбкопе (1958-86), работал главным бухгалтером Чеховского виноводочного завода (1988-91),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Утари Кёдо» (1990-95), избирал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в г. Чехо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 (1962-92). С 1992 года проживал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ак – автор единственной книги

«Репортаж с Сахалина» (1988, пер. на рус. яз. 2004). Книга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японском языке в журнале «Минто»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И Фе Сона, после издания она прошла обсуждение с участием писателе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Японии. В «Репортаже с Сахалина» использованы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а и советского времени. Ключевая проблема «Репортажа с Сахали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вынуждено дважды приспосабливаться к новым для него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условиям: в одном случае – ассимил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быт с традиционным укладом японцев, в другом – с устоям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Книга Пака не лишена субъективизма, но она помогает определить стату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ее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Репортаж с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ерию исторических эссе с элементам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зложения. Своеобразной новеллой в тексте книги можно считать историю с названием «Ким и вороной», компонент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в «Истории о старшей сестре и младшем брате». По мотивам книги Пака и при его консультация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 сня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Ен Дя, Акико и Соня» (экранизация 1992).

Тян Юн Ги (18.03.1922, с. Венгё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енсан, Корея – 4.03.1999,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Пукто, район Корён), корейский журналис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дился в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Обучался в школах Кореи (1929-35) и Японии (1937-40). Трудовой путь начал в Корее (1935-37), в поисках заработка побывал в Японии, где работал токарем в г. Осака (1941-42). На Сахалине Тян Юн Ги оказался в 1942 году. Прошел трудовой путь от разнорабочего до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транспортного отдела Поронайского бумажного комбината, с 1947 года преподава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г. Поронайск и г. Углезаводс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49-55 годах Тян жил в пос. Быково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1955 году он вошел в штат газеты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должност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Тян писал очерки, рассказы, готовил газетные полосы, эта работа журналиста высоко оценивалась его коллегами. В 1961-76 годах Тян заведовал отделом культуры и быта газеты.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в 1978 году он продолжил работу в качестве внештат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газеты. Автор документально-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ой книги «Сахалин – остров, полный

скорби (1998), изданно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сле репатриации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тде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журналиста публиковалис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коллективных сборниках. Проживал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 марта 1997 года.

Хе Роман (Хо Нам Еги) (род. 18.09.1949, г. Томар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сский поэт, бард, переводчик;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2000). Окончил восьмилетнюю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1957–65). Работал плотником, каменщиком–формовщиком, музыкантом, сотрудничал с редак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 ГТРК «Сахалин», газетой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и др. С 1999 года живет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е стихи написал в 9 лет, до 25–ти лет создавал поэ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ихи Хе публиковались в журналах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врора»,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в сборниках «Антология русского верлибра», «День поэзии», «Сахалин» и др. Некоторые свои стихи поэт исполняет под гитару, вместе с этим на творческих вечерах Хе нередко звучат песни поэта на стихи А.А. Блока, С.А.Есенина, Б.Ш. Окуджавы, Ф.Г. Лорки. Хе – автор сборников стихов «Гудящие раковины» (1984), «Ёнбун, или полет бабочки» (1996), «По сорочьему мосту» (1999),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ого эссе «Автопортрет с солнечными зайчиками» (2004).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стихотворений Хе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черты рус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оэтической вселенной Хе общеизвестные образы русского сказочного фольклора соседствуют с восточной символикой.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Хе синтезирует в себе элементы график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раф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тихотворной строки), живописи (красочность), музыки (ритмическая мелодия, созвучие слов, песенные повторы) и кинематографа (замедленность, сюжетная фрагментарность поэтических фрагментов). Проза и поэзия Хе написана в границах исповедального лирического дневника.

Ян Сергей Дюнхоевич (Дмитриевич) (Ян Су Бок) (род. 05.03.1949,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русский писатель, поэт;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2005). Окончил строительный факультет Иркутского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1969–74). Прошел трудовой путь от рабочего до заместителя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автодорснаба. Избирался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9–2002),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дружество»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5– 07).

Ян – автор книг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ез» (2002),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2004), «Тени цветов» (2006),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я» (2011). Публиковался в сборниках

«Сахалин» (2004, 2007 и др.), в журнал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се произведения Яна написан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сновная тема проза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рассказы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философские размышления о судьба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XX – рубежа XXI века. В поэзии Ян тяготеет к жанрам, близким корейскому сиджо, японским танка и хайку; экспериментирует со свободным стихом, обращается к графическим возможностям стихотворной строки.

Образ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разы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спользуются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мперского периода и в литературе XX века. Эпизодические упоминания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очитываются в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1895) А.П. Чехова (1860-1904), в путевых записках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1914) епископа Сергия (1863 или по другим сведениям 1871-1945; С.А.Тихомиров) и в ряде других книг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корейц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формировалось по таки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как: «Синее море, белый пароход» (1965) Г.Н. Машкина (1936-2005); «Островитяне» (1973) З.Е. Журавлевой (1951-2011); «Голубой остров» (1976) и «Четыре исповеди» (1978) А.А. Кима (род. 1939) и др. Образы корейцев были неотъемлемы и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местных» авторов: развернутые и эпизодические упоминания о корейцах Сахалина прочитываются в таких книгах, как «Жизнь без жизни» (роман не окончен) Н.И. Максимова (1911-93), «И жили люди на краю…» (1992) О.П.Кузнецова (1937-2009), «Невозможно остановиться» (1994) и «Во все тяжкие» (1997) А.С. Тоболяка (1936-2001).

Образ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в книг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повести «Карафут» (1940) украинца О.В. Донченко (1902-54), в романе «1Q84» (1- 2 тома – 2009, пер. на рус. яз. 2011; 3 том – 2010) японца Харуки Мураками (род. 1949) и др.

Переводы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зны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е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переводы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эта работа, в основном, концентрировалась вокруг творчества Ким Цын Сона, стихи которого звучал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российских переводчиков, так и в поэтическом изложении живших на Сахалине

Ю.И.Николаева и В.Г. Матковского.

В книгу «По сорочьему мосту» (1999) Романа Хе включены переводы из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около двадцати древнекорейских поэтов,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й неизвестных авторов). Вслед за А.А. Ахматовой поэт обращается к стихотворениям Ким Су Джана, Ли Хвана, Ким Ена и многих др. Однако в противовес ахматовским переводам, в которых сиджо воплощено в шестистишную композицию, Роман Хе стремится к соблюд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го вида лаконичных корейских стихов, укладывающихся в трехстишие.

В 2012 году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еревод сборника стихотворений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эта Ли Чон Хи В.В. Семенчиком (род. 1962). Отдельная подборка переведенны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публиковала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м журнале «Рубеж».

Заключени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е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локальным этниче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подвергаемым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нешнему воздействию и не рефлектирующи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ворческие устремления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демонстрируют открытость в и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измер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авторов, в биографии которых есть сахалинский период,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трех языках – рус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При этом доля коре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языков в литературном твор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значительна.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тем, что современн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читает русский язык – основным средством коммуникации и чаще всего именн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еализует сво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е поиски.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пример, поэт-песенник Чан Тэхо и прозаик Сергей Ним) восприним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наиболее приемлемую форму передачи своего литературно-эстетиче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автор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своем большинстве пишу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о национальное начало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их творчестве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магистральным, определяющим региональную специфику произведений такого уровня. Литературное творчество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ой формой самовыражения и адаптации в окружающем их мире.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에 나타나는 한국적 요소 : 20 세기 후반 - 21세기 초

이콘니코바 예.아.
사할린국립대학교

머리말

러시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학적 성공은 김 아나톨리의 산문과 김 율리와 초이 빅토르의 노래에 관념이 연합한다. 러시아 문화에 속한 이 러시아어권 작품들은 제일 잘 알려진 재러한인의 예술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러시아민족, 한민족과 일본민족의 민속적 경향이 조화적으로 배합된 또 하나의 민족문화의 층이 있다. 이런 문화재의 접촉적 교차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역의 국경지위, 이주과정 및 남부 사할린의 일제강점(1905 - 1945) 등으로 가능하게 됐다.

2010년 전 러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주에 약 25,000(5,3%)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19세기말 - 20세기 초에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들이다. 사할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숫자상 러시아인 후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극동의 정치·사회·문화·민속인구학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다. 사할린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집중적 거주는 민족성의 기반을 보존했고 러시아인들과의 동화를 마련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 사용하는 기본 개념을 정의하자. 문학적 지지학은 사할린의 문학뿐만 아니라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묘사하는 작품들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의 작품들을 통합하는 다문화 문학으로 간주한다.

한국성분이란, 첫째, 사할린 한인들의 모든 작품들, 둘째, 러시아와 해외 문학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해석한 작품들, 셋째, 한국어로 쓰인 작품들을 현지인들이 번역한 작품들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그들 중에 전 러시아나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들과 러시아작가동맹회원들, 또한 러시아 및 국제문화,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검토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의 주요 부분들

한국 성분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의 다음 부분에서 나타난다.

1. 러시아 민족문학. 여기에는 전 러시아적으로 이름난 작가들(김 아나톨리), 러시아작가동맹회원들(허 로만, 양 세르게이), 그리고 신진작가들. 이 부분의 특징은 사할린 한인 출신 작가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2. 일본민족문학. 여기에는 사할린의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들(박형주, 이회성).
3. 다른 민족문학 내에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어로 창작한 작품들(김증성, 장운기). 1947 - 59년간 사할린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한인극장에서 상연한 한국어 희곡들도 이 부분에 속한다.

서지학적인 정보

본 연구에서 작가들의 이력에 중점을 둔 것은 그들의 작품들이 얼마만큼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작가들이 사할린 출신인지, 현지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사할린과 쿠릴열도 문제에 관심을 돌렸는지 등에 의해 한국성분이 나타난다. 현재 사할린 문학에는 이들의 이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이회성(李恢成, 러어로 Ли Хе Сон, 일본어로 리카이세이, 1935년 2월 26일)은 일본의 소설가로 당시 일본이 지배하던 카라후토 마오카시(현 사할린 주 홀므스크)에서 태어났다. 1945년 갑작스러운 패전을 맞이한 그의 가족은 1947년에 일본 본토로 탈출하여 조선으로 귀환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에 정주하게 되었다. 조선으로의 귀환을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형성된 재일 한국인의 손에 의한 문학의 개화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면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출현했다.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초반에 걸쳐서 이회성이 등장했다. 이 때 가족과 함께 일본 열도를 횡단했던 유년 시절의 체험이 <백 년 동안의 나그네>에 잘 그려져 있다. 와세다대학 러시아문학 과를 졸업하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정치경제부 기자로 근무하다가 1969년 제12회 «군조(群像)»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했으며 1972년, <다듬이질하는 여인>으로 재일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제66회 아쿠타가와(芥川) 상을 수상하였다. 재일 한국인 2세의 민족적 주제 확립과 조국 통일 운동으로의 참여를 테마로 활동을 계속했고 그것들은 장편 소설 “이루지 못한 꿈(見果てぬ夢)”(1979년)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때 조총련 소속의 핵심 작가로 활동했지만 북한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절연하였으며, 1972년 아쿠타가와 상 수상을 계기로 방한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박정희 군부 독재를 비판해 온 까닭에 한동안 남한에도 들어올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회성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뒤에는,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작품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사할린 섬을 방문해서(1981, 1988, 2006), 구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역사를 그린 “유역으로”(流域へ, 1992년)나 장편 소설 “백년의 여행자들”(百年の旅人たち, 1994년)을 발표했다. 그가 다시 방한할 수 있었던 것은 23년만인 1995년의 일로, 199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분단된 조국의 운명을 한 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경계인 내지는 중간자로서의 삶을 고수했다. 그의 문학 또한 ‘자이니치(在日)’ 혹은 ‘코리아인 재패니즈’라 불리는 디아스포라, 인종적으로는 조선인이되 일본에 거주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국적을 갖지 ‘못한/않은’, 다시 말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개인들의 부유하는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1981년에 처음 사할린을 방문하여 사할린 한인의 실태를 파악했고 2006년 9월에 제2회 사할린 피징용 한인을 위한 위령제에 참석하였다.

이회성의 작품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번역됐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이회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작가는 자신의 출생지인 사할린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삶을 소설에 담을 계획도 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한인 동포들을 만날 때나 동포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생활상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다. 장편소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는 멀리 카라후토(현 사할린)에서부터 시모노세키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가 고자 하는 일군의 가족공동체들이 등장한다. 그들을 이곳 멀리까지 이끌었다고 하는 소위 해방의 기쁨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들의 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인 아내와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 이회성은 여러 작품에서 사할린 한인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 아나톨리 안드레예비치(러어로 Ким Анатолий)는 1939년 6월 15일 카자흐스탄 칩켄트 주 툴쿠바스키 구역 세르기예프카 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20세기 초 배고픔을 면하려고 농사지를 땅을 찾아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고 아버지는 1937년 스탈린 독재시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당했다. 그의 부모는 교사였다. 조선학교들에서 일하게 된 아버지 따라 그는 1947년에 캄차트카, 다음 프리모리예변강 우수리이스크 근처, 다음은 사할린으로 이주했다. 사할린 일리인스키, 고르노사위드스크에서 그는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중학교를 마쳤다. 고르노사위드스크 중학교를 졸업했다. 사할린에서의 생활이 바로 아나톨리 김에게 많은 문학적 영감을 살 짜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1950년대 말 사할린을 떠나 모스크바에 가서 건설장에서 노동을 하며 아나톨리 김은 모스크바 미술전문학교에서 3년 공부하다가 문학에 큰 관심을 가져 미술학교를 포기하고 군대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그는 모스크바 고리키명칭 문학대학 통신과에 입학했다. 그동안 김씨는 여러 일을 해보았다. 미술대를 중퇴하고 1971년에 고리키 문학대학 졸업 후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러시아 문단의 대표 작가 중 한명으로 떠올랐다.

1970년대 소련 문학계에 등장해 7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아버지의 숲>, <다람쥐> 등 대표작이 20여개 국어로 번역됐다. 그후 김씨는 <바흐 음악을 들으며 버섯이 필 때>, <켄타우로스의 마을>, <신의 플루트> 등 여러 작품을 썼고, 1997년 레브 톨스토이 재단이 창간한 러시아 최대 문학지 ‘야스나야 폴랴나’의 초대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한때 고리키명칭 문학대학에서 특강도 했다.

러시아 작가 중 처음으로 한민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적 “한”이 서려 있는 작품으로 러시아 문단에 등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나이 서른넷이 되는 1973년에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 <수채화>와 <묘묘의 찔레꽃>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되는 “북극광”이란 잡지에 실리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특히 1984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다람쥐>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10개 이상의 장편소설과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세계 2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모스크바 예술상”(1993), 독일의 “국제문학상”(1981), 이탈리아 펜네시 문학상(2001), 톨스토이 재단의 “야스나야 폴랴나 문학상”(2005) 등 여러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세계 25개국에서 번역되어 출판될 만큼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고려인 작가의 창작은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 폴란드, 불가리아, 이탈리아, 한국 등에서 석사, 박사 논문주제로 되었다. 아나톨리 김은 소설작가일 뿐만 아니라 고급 문학 번역원으로도 인정되었다. 그는 <춘향전>을,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아우에소프의 <아바이의 길> 대작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명예 훈장 수훈, “유노스치”(청년 시절)·“드루즈바 나로도브”(민족 친선) 문예지 등의 문학상, 모스크바 정부 상 등을 수상했다. 아나톨리 김은 지난 1991~95년 한국 중앙대 방문교수로 한국에 장기 체류했다.

아나톨리 김은 암울했던 자신의 과거를 통해 눈물겨운 러시아 이주 한인의 삶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러시아 문단의 주류로 진입하며 겪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책에 담았다. 김 아나톨리의 대표작으로는 사할린을 배경으로 한 『푸른 섬』, 『네 가지 토로』, 『피플새의 메아리』, 『다람쥐』, 『아버지 숲』 등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애독되고 있으며, 『폐자의 통나무집』, 자전 에세이 『초원, 내 푸른 영혼』 과 『신의 플루트』, 『켄타우로스의 마을』 등 20편이 한국에서도 출간되어 있다. 아나톨리 김은 여러번 사할린을 방문했다 (1961, 1967, 1989, 2010).

김증성 (러어로 Ким Цын Сон)시인은 1918년 09월 11일에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족은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했다. 1938년에 그는 우즈베크국립 대학교 문헌학과에 입학했다. 1940년에 대학코스를 마치지 않고 고려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다음 그는 공화국 신문, 극장에서 문예부부장으로 활약하면서 계속 시를 썼다. 1938년에 카자흐스탄 키질오르다에서 발간되는 <레닌기치>신문에 그

시들을 게재했다. 1948년에 소련 작가동맹에 가입됐다. 1951년에 타쉬켄트에서 <우정의 줄>이란 시집이 발간됐고 1956년에 타쉬켄트도서출판사에서 <아카시아가 필 무렵>이란 두 번째 시집이 문예평론가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 시집에는 조선 구비문학의 모티프를 이용해 쓴 <사랑의 전설>, <금강산>이란 장시들이 실렸다. 1955년에는 사할린으로 이주했다. 15년동안 그는 <레닌의 길로 (현 새고려신문)사에서 번역가, 문화가정부 부장, 편집국장, 부주필직을 맡아했다. 1968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그의 <불타오르는 낙엽>이란 마지막 시집이 발간되었다. 거기에는 한국 전통의 시조식으로 쓰인 40수의 시들이 게재됐다. 김중성씨의 작품들은 <원동>, <바이칼>, <동양의 별> 잡지, <소베츠키 사할린>, <몰로다야 그바르지야>, <크라스나야 즈나냐>등 여러 신문에 실렸었다. 김시인은 많은 국가 명예상을 수상했다. 김중성씨는 1973년 07월 18일에 사망했다.

김중성은 자기의 시들을 한국어로 썼다. 그의 서정시에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단일 한민족의 언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박형주(러어로 Пак Хен Чжу)는 1929년 4월 28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사정으로 카라후토에 이주하게 되었다. 1941 - 45년간 마오카 (현 사할린주 홈스크)에서 일본 초등학교를 다녔다. 1964 - 68년간 하바로프스크 소련상업전문학교를 다녔다. 1958 - 86년간 체호프어업 협동조합, 1988 - 91 - 체호프 와인알콜공장, 1990 - 95 - 우타리교도러일합작기업에서 총지배안으로 활동하였다. 지식수준이 높은 박형주는 러시아의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체호프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 1962 - 92년간 체호프시 한인 협회장으로 활약했다. 1988년 일본에서 이호성 작가의 지원 하에 «사할린 리포트»란 에세이집을 민토 잡지에 게재했는데 2004년에야 러어로 번역됐다. «사할린 리포트»에는 저자의 사할린 한인에 대한 주관적 견지가 반영돼 있지만 일제시대와 소련시대의 사할린 한인의 삶이 그대로 묘사해 있다. «사할린 리포트»는 문학적 요소를 지닌 역사에세이집이다. 1999년 3월 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망했다.

장윤기 (러어로 Тянь Юн Ги)는 1922년 3월 18일 경북에서 태어났다. 1929 - 35년 조선, 1937 - 40년간 -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웠다. 1935년 13살 어린나이에 조선에서 근로생활을 시작했고 1940-42년 일본 오사카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다가 1942년 카라후토까지 가게됐다. 해방후 사할린주 포로나이스크 제지공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포로나이스크와 우글레자보드스크에서 조선학교 교직을 맡았었다. 1949-55년간 사할린 «레닌의 길로» (현 새고려신문) 한인 민족지 신문사 문학부에서 일하면서 수필, 단편소설과 기사를 많이 써서 독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1997년 3월에 한국에 영주 귀국하여 경북 고령에 있는 대창양로원에 정착했다. 연금생활을 하면서 1998년에 «사할린 - 한 많은 섬» 자서

전을 펴냈다. 1999년 3월 4일 양로원에서 사망했다.

허 로만 (허남영, 러어로 Хе Роман)은 1949년 9월 18일 사할린 주 토마리시에서 태어났다. 1957 - 65간 토마리 조선학교를 다녔고 목수, 석공, 음악가,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 방송국 한국어방송과 «소베츠키 사할린» 신문사와 협력하였다. 시를 9살부터 쓰기 시작하여 25세까지 한글로 창작했다. 2000년에 러시아작가동맹에 가입됐다. 2009년 가을에 60돌을 맞은 허남영 시인·작가·작곡가는 자기 시 “사할린” 낭송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세르게이 예세닌, 니콜라이 립초브 러시아 시인들의 창작을 가깝게 여기는 동포시인은 그들의 작품을 김소월, 윤동주 조선 시인들의 창작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차례로 예세닌, 김소월, 립초브, 로르카의 작품을 낭송하면서 관객들을 아름다운 창작의 세계에 이끌었다. 허 로만시인은 조선 시인들의 작품을 실감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많은 시조를 두 언어 -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낭독하기도 한다. 사할린시인은 많은 시를 부모에게 바쳐 지었다. 기타를 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한 시를 낭송한 것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그는 어느 언어로 구상하는가에 따라 시가 독창적으로 “탄생”한다고 했다. 부모에 대한 시 대다수가 한국어로 돼 있다. 표현력이 풍부한, 동양적이면서도 러시아 시인으로 잘 알려진 허 로만은 러시아 작가동맹원, 조선 시 번역원이고 “소련 여성”·“극동”·“드루즈바 나로도브”(민족친선) 등 잡지 문학상 수상자, 사할린주 지사상 수상자이다. 그의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돼 있다. 펴낸 책으로는 “노래하는 소라들”(1984) · “연분, 또는 나비의 도약”(1995) · “오작교로”(까치 다리, 1999) 시집, ‘햇빛에 반사된 자화상’ 에세이 책(2004) 등이 있다.

양 세르게이 (본명: 양수복, 러어로 Ян Сергей)는 1949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태어났으며 제15호학교를 졸업한 후 이르쿠츠크공업대학에 입학하여 도로건설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아르센치엠펜카-마카로브간 도로건설에 참가하였으며 차후에는 제3도로건설 관리국에서 도로건설부 현장지도자로부터 기사장,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그의 직업적 기능과 진취성은 “사할린압토도르스납”에서 7년간 총지배인으로 일하면서 과시하였다. 주두마 유가이 올레그의원의 보좌관인 양 세르게이의 <꽃들의 그림자들>이란 표제의 시집이 요새 발간되었다. 근 140편의 시들이 <꽃들의 그림자들>, <내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산 위의 닳>이란 소제목 하에 게재되었다. 2001년부터는 한국의 “뉴산”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 건강상태로 퇴직해야만 하였다.

그는 첫 책 <부모님의 집>을 1978년에 썼으며 2002년에는 <아버지의 환상의 나라>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모스크바출판사에서 인쇄되었다. 새로 발행된 시집에 실린 서정적인 자연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2011년6월 말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비의 노래를 감상하면서>소설이 러시아어로 발행됐다. 양 세르게이의 새 소설은 사회생활의 성공의 비결을 독자들에게 열어주고 인간의 내·외

면은 불가분의 관계란 철학적인 개념을 순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사할린 주 문학계는 양 세르게이 작가·시인의 <부모님의 집>, <아버지의 환상의 나라>,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 <외로운 구름의 꿈> 소설, <꽃들의 그림자들> 시집을 이미 알고 있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책은 고향을 그리워하던 부친의 향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로운 구름의 꿈>은 한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다.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없지만 그 주인공은 아무 사람이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서정적이고 철학적이다. 현재 <사할린 코레이스키 클럽> 고문으로서 사할린 주에 한민족 전통 문화 유지·발전에 한 몫 기여하고 있다.

양 작가의 선집에 실린 소설들의 공통점을 말한다면 사할린 한인 이야기, 러시아 사할린 고장과 조국-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 뿌리,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가 많다. 철학적인 부분이 많은 이 작품을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다. 양 작가의 소설 내용을 잘 소화시키려면 생각해가면서 천천히 읽어야 하는 독서라 한다.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쓰는 세르게이 작가의 새 작품이 기대된다. 양작가는 자기의 시에서 한시조, 일본의 단가와 하이쿠, 그리고 무운시에 마음이 끌린다.

러시아와 해외문학에서의 사할린 한인형상

사할린 및 쿠릴 열도의 한인 형상은 러시아 황제시대와 20세기 문학에 등장한다. 체홉(1860 - 1904)의 “사할린섬”(1895), 세르기주코(1863, 다른 정보에 의하면 1871 - 1945; 스.아. 치호미로프)의 “남사할린에서”(1914)와 다른 작품에서 사할린 한인들이 기술되어 있다. 소련시대에는 그.느.마쉬킨(1936 - 2005)의 “푸른 바다, 하얀 기선”(1965); 즈.예.주라블료바(1951 - 2011)의 “섬 주민들”(1973); 아.아.김(1939 -)의 “푸른 섬”(1976)과 “네 가지 토로”(1978)에서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가 소개됐다. 현재 느.이.막시모프(1911 - 1993)의 “죽은듯한 삶”(미완), 오.프.쿠즈네초프(1937 - 2009)의 “세계의 끝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1992), 아.스.토볼랴크(1936 - 2001)의 “멈추지 못한다”(1994)와 “방탕하다”(1997)에서도 사할린한인의 삶 모습의 에피소드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문학에서도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인 오.브.돈첸코(1902 - 1954)의 “카라후토”(1940), 일본인 무라카미 하루키(1949-)의 “1Q84”(2009 - 2011)등 여러 작품들이 있다.

사할린에서 한국문학의 번역

사할린에서 한국작품들이 번역된바 있다. 김증성은 자기의 시들을 한국어로 썼다. 유.이.니콜라예프와 브.그.말코프스키가 그 시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사할린 독자들의 주의를 이끌었다. 로만 허(1949 -) 시인이 “오작교로”(까치 다리로, 1999) 시집에 한국 고

시와 무명 작가들의 번역문을 실었다. 2012년에 이정희의 시집 (브브.세멘치크역)이 사할린에서 발간됐다.

맺음말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젊은 세대는 러시아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미적·문학적 세계관을 러시아어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한국 성분»은 그들의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할린 한인들에 하여금 문학 창작은 그들의 주위에서 자기의 아주 중요한 표현과 정착방식이 라고 하겠다.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인구의 형성과 발달

이재혁
한림대학교

1. 러시아(구소련)의 한인 인구 발달

1) 러시아의 한인 이주

소련시기의 마지막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구소련의 한인 인구(1989)는 43만 9,000명, 전체 인구의 0.2%에 해당한다. 한인 소수민족은 소련 내의 129개의 공식민족 중 한인들은 소련의 전체 민족 중 29번째를 차지하며, 가장 소수의 민족은 아니지만 가장 짧은 역사를 지닌 민족일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11만 명의 한인이 러시아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75%(32만 명)가 중앙아시아 4개국에 거주하였다(우즈베키스탄: 18만 3,000명; 카자흐스탄: 10만 3,000; 키르기스스탄: 1만 8,000; 타지키스탄: 1만 3,000). 이 지역의 거의 전체 한인인구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극동지역에서 강제 이주한 경우이다.

2010년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러시아 218,956; 우즈베키스탄 132,287; 카자흐스탄 107,130; 키르기스스탄 18,230; 우크라이나 13,053; 타지키스탄 1,740명으로 파악된다.¹⁾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격동의 시기와 맞물려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역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1860년경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통치의 압력이 점점 더 거세졌고 한국은 마침내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정치적 망명자들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1937년에는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한인들이 강제이주 당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에는 일본정부가 많은 한인 노동자들을 징용으로 남부 사할린으로 끌고 갔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남부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일본의 남부사할린 반환으로 소련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1) 2010년 재외동포현황 외교통상부 2011-08-30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한인들의 이주의 성격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기 등을 고려하여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860 - 1905 : 한인들이 자발적인 이주기로,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로 농업이민과 어부, 광부 등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한국의 북쪽 국경을 넘어 이주하였으며, 연해주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2) 1905 - 1927 : 한국이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합병되는 시기로부터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을 거쳐 소비에트 정부가 극동지역까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인 이주민들 외에도 정치적인 억압을 피하여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있었고, 항일운동을 위하여 연해주로 이주한 독립군들도 많았다.

(3) 1927 - 1945 : 1927년 이후에는 러시아에서 한인들에 대한 인구자료가 멸실된 시기이며, 만주사변 후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군과 한인들이 연해주지역으로 대량 이주해온 시기이다. 또한 1937년 소련정부가 극동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다.

(4) 1945 이후 :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소련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남사할린의 한인들이 소련의 거주민이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 1860-1905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언제부터 한인들이 살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7세기까지 이 지역에 한민족 국가(고구려)가 존재했다. 1860년까지 이 지역은 중국에 속해 있었다. 크림 전쟁에서 패한 후 알렉산더 2세는 동부지역에 그의 제국주의 통치를 강화하였다. 이 지역은 많은 반란과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중국이 아이훈(Aigun) 조약과 베이징(Peking) 조약 체결로 아무르(Amur)와 우수리 지역에서 한국의 접경지역에 이르는 동부해안지역을 러시아에 할양해야했던 곳이다.²⁾ 극동지역에는 1850년에 니콜라예프스크(Nikolajevsk), 1858년에 하바롭스크(Khabarovsk), 186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가 러시아 식민지로서 건설되었고 코사크 족과 범죄자, 추방자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러시아 페소스키(ПЕСОЦКИЙ)의 보고서에 따르면, 1863년 처음으로 한인들의 이주가 이루어진 이후 2년 사이 이주자 수가 1,415명(1867년)에서 6,000명(1869년)으로 증가하였다. 러시아에서 발간된 연구에 따르면 1864년 봄 두 명의 한국인들, 조씨와 양씨가 두만강을 건너가 러시아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³⁾ 미국인 콜라츠(Kolarz)

2) Dollinger, H., 1986, *Rußland*. Gütersloh, 162.

3) КИМ, Сын Хва, 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21.

에 따르면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1861년에 시작되었다.⁴⁾ 그 해에는 러시아인들도 처음 포시에트(Posiet)만 지역에 거주하던 때였다. 여러 보고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19세기 60년대 초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전에도 이미 계절이주자가 있었다. 이는 한인들이 봄, 여름 시기 동안 러시아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 것을 말한다. 한카(Chanka)호 우수리 남부지역에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데 한인들이 공공연히 이곳 농사를 행해왔다.⁵⁾

한인들의 대규모 러시아 이주는 1960-1870년대 한반도 기근에 의하여 발생한 식량난의 연속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 북부 지역의 헐벗고 굶주린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 국경의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지역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일은 한국인들에게 사형으로서 처벌되는 일이었다. 러시아는 처음에 이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새로 점령한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1861년 무라비에프(Muravev) 총독에 의해 이주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이주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법이다. 이것으로 이주자들은 1 데시아틴(desiatin=1.09 ha)당 3루블만으로도 토지를 살 수 있었으며 10년간 병역이 면제되고 개인세는 무제한으로 면제되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20년간 토지세가 면제되었다.⁶⁾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죽임을 당하거나 전 재산이 몰수될지라도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였다. 1868년 경 러시아 지역에는 4개의 큰 한인촌이 있었다. 우수리 지역에 러시아 정착농민들과 코사크인들이 6,200명이었던 당시, 그 지역의 한인 수는 1,800명 이상이었다.⁷⁾ 특히 1869-1870년 조선 북부 지역 식량난이 있던 시기에 많은 한인들이 국경을 넘었다. 1869년에만 4,500명이 이주하였다.⁸⁾ 1897년 이미 32개의 촌락이 형성되었다.⁹⁾

1871년 러시아에 당도한 새로운 대규모 한인 이주행렬은 한국-러시아 접경지역이 아닌, 하바롭스크에서 서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 정착하였다.¹⁰⁾ 1871년에 러시아의 군사책임자 페데센코(Pedesenko)는 500명의 한국인들을 아무르지역에 이주시켰고, 코르사

4) Kolarz, W., 1956, *Rußland und seine asiatischen Völker*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F.a.M., 45.

5) Leimbach, Werner, 1950, *Die Sowjetunion, Natur, Volk und Wirtschaft*. Stuttgart, 264.

6) 김준엽, 김창순,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1권, 청계연구소, 38.

7) Kolarz, W., 1956, *Rußland und seine asiatischen Völker*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F.a.M., 45.

8) КИМ, М. Т., 1979,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МОСКВА, 5.

9) Bishop, Isabella Bird, 1905, *Korea and Her Neighbours*. London, 114.

10) Kolarz, W., 1956, *Rußland und seine asiatischen Völker*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F.a.M., 45.

코프스카야(Korsakovskaja)에는 한리아동들을 위한 교회학교가 설립되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락을 형성하였고, 드물게 러시아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871-72년 사이에 이주한 한인들은 사마르카(Samarka)강 하구 에카테르노-니콜라스카야(Ekaterno-Nikolaskaja)와 하바롭스크 사이) 블라고슬로네노에(Blagoslovennoe)에 그들 고유의 한국적 부락을 형성하여 집약적 농업을 하였고, 주택사이에 채소밭을 일구었다.¹¹⁾ 1885년 러시아 동부지역에 2만 명 한인들이 거주하였고,¹²⁾ 그 중 우수리 지역에 8,800명이 거주하였다.¹³⁾ 이들 한인들 일부는 캄차트카와 사할린으로 멀리 이주하였고 거기서 농업, 광업, 어업에 종사하였다. 1894년 해안지역 거주자의 10%가 한인들이었다.¹⁴⁾ 1901년 해안 지역에 이미 3만 2천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¹⁵⁾ 조선과 접경지역인 프리모르스크 변경주에는 한인 인구가 1만 2,857명에서 3만 2,38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1> 1891-1902 프리모르스크 변경주(Primorsky Kray)의 한인 인구

연도	한인 인구(명)	증가율 (%)
1891	12.857	100
1898	23.000	179
1899	27.000	210
1902	32.380	252

(자료: ПИАК, 1993, 85)

(2) 1905-1927년

1905년 한국은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적 자주독립을 잃게 되었고 한국 군대는 1907년 해체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치적 망명자들의 러시아 이주가 증가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망명자들의 증가는 경제적인 이주자들에 더하여져, 이주 한인들의 수가 2만 3,000명(1898년)에서 2만 7,000명(1899년), 3만 2,298명(1902년), 3만 9,798(1906년), 4만 6,430명(1907년)으로 증가하였다.¹⁶⁾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국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다. 1905년 이후 수많은 한국 ‘의병대’들과 애국 지식인들이 고국을 떠나

11) Landgraf, Dieter, 1989, *Amur Ussuri Sachalin 1847-1917*, Muenchen: Hieronymus, 538-9.

12) Hamilton, Angus, 1904(a), *Korea, Das Land des Morgenrots*. Leipzig, 190.

Hamilton, Angus, 1904(b), *Korea*, London: William Heinemann, 194.

13) Forsyth, J., 1992,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220.

14) Landgraf, Dieter, 1989, *Amur Ussuri Sachalin 1847-1917*, Muenchen: Hieronymus, 666.

15) Schultz, Arved, 1932, *Das Ussuri-Land*. Gräfe und Unzer Verlag: Königsberg Pr., 67.

16) ПЕСОЦКИЙ, В. Д., 1913,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мурье*. Хабаровск, 6.

야 했다. 이들은 만주지역과 러시아에서 일본 식민지배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려 했다.

<표 2>는 1910년 아무르-우수리지역에 사는 한인 인구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29%가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들 중 86%가 농촌에 거주하였다. 이들 한인 중 64%가 남성이었다. 러시아 국적이 아닌 한인들 중에는 남성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68%). 이는 많은 한인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왔고, 혼자 러시아에 건너왔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러시아 국적의 한인들 중 남성의 수는 분명 더 적었다(53%). 왜냐하면 러시아에 일찍 정착했던 사람들은 여러 번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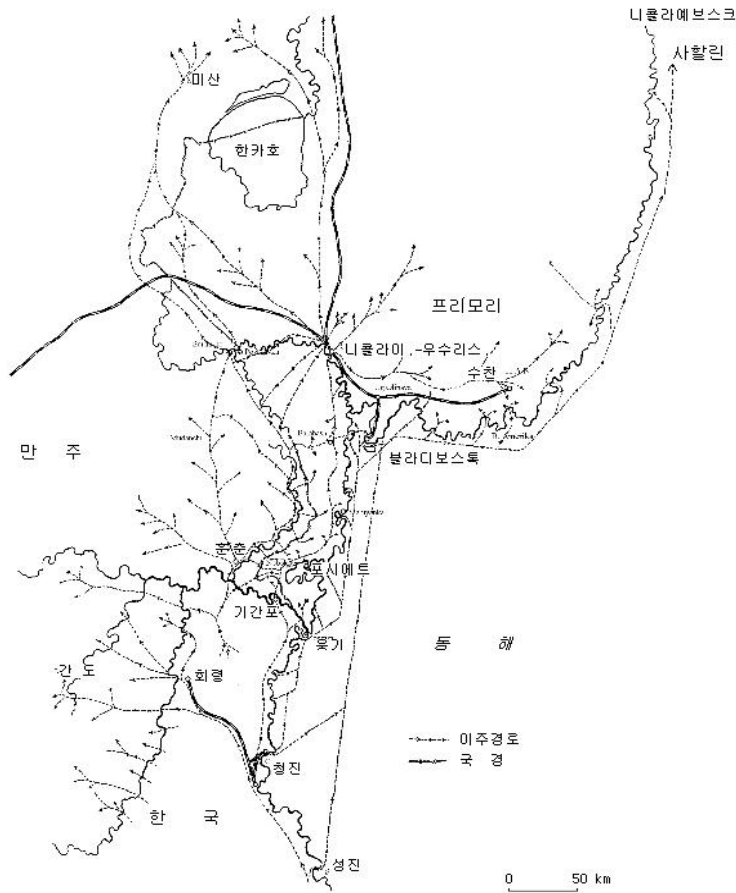
한인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지만 기타 분야(어업, 건축,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10-1922년 기간 동안 극동지역에서 한인 어부들의 수가 세 배로 증가하였다. 1920년에 한국 어부들은 이 지역 전체 노동인력의 10.6%를 차지하였다.

<표 2> 1910년 아무르-우수리지역의 한인 인구

구 분	러시아국적 한인		외국인으로서의 한인		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도시지역					7.144
Wladiwostok	147	101	2.138	1.079	3.465
Kabarowsk	24	16	416	73	529
Nikolsk-Ussur.	-	-	1.276	1.077	2.353
Nikolayevsk	27	16	705	49	797
농촌지역					44.310
Nikolsk-Ussuriski	6.315	5612	11.579	5.212	28.718
Imanski	453	385	1.737	141	2.716
Olginski	554	479	5.945	3.534	10.512
Kabarowsk	374	296	368	122	1.160
Udski	-	-	946	258	1.204
합 계	7.894	6905	25.110	11.545	51.454
	14.799		36.655		

(자료 : ПЕСОЦКИЙ, 1913, 6)

러시아로 향하는 두 개의 이주경로가 있다. 하나는 육로, 다른 하나는 해로이다. 한인들은 한국과 러시아 국경 사이를 흐르는 두만강을 건너가거나 혹은 만주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해를 건너는 해로로 포시에트, 블라디보스토크, 올가(Olga), 테튜체(Tetjuche)로 나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캄차트카와 사할린 북부지역으로 이동하였다(그림 1).



[그림 1] 한인의 러시아 이주경로

(자료: ПЕСОЦКИЙ, 1913을 기반으로 해상경로 보완 작성)

사할린의 알렉산드로프스크(Alexandrovsk)에는 1910년 25가구의 한인촌이 형성되었다.¹⁷⁾

항일 정신에 기반을 둔 이주물결은 두 개의 정점에 다다른다. 하나는 1910년 한일합병 직후, 또 하나는 1919년 무력으로 탄압된 3.1 민족 항일운동 이후이다.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7,509명이 한국에서 죽임을 당했고 1만 5,961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 6,948명이 체포되었다.¹⁸⁾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조사 이후 1910-1921년 기간에 4만 6,064명의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¹⁹⁾ 많은 한국인들이 혁명의 격동기에 러시아 극동지역은 점점 더 국제화

17) 시사한일, 1996년 11월호. 제2권 23호 (56호) 26-27.

18) 국사편찬위원회, 1981, 한국사 21 / 근대 3.1운동전후의 사회와 경제, 서울, 193.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웃나라로 건너갔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국적의 한인들도 군대에 징용되면서 노동인력의 부족현상도 점차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점점 더 유럽의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 있던 한인들이 서쪽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²⁰⁾

1923년 소련 극동지역의 전체 인구 중 17%가 한국인이었다.²¹⁾ 한국인의 32.4%가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타슈켄트(Taschkent) 근처에 첫 번째 한국인 콜호즈(Kolchos)가 형성되면서 한국인들이 극동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26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는 5만 2,000명이었다.²²⁾ 1927년 공식정보에 의하면 소련에 한인들이 17만 명만이 거주하였다고 전한다.²³⁾ 사실 이들 수는 25만²⁴⁾ ~ 30만²⁵⁾명으로 늘려 잡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1910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이주자들이 한반도 북부에 있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지역 출신의 농부들이 전부였다. 이들은 고향땅에 만연한 식량난으로 이를 탈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때까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했던 거라면, 1910년 한일합방과 1919년 좌절된 민족항일운동 이후에는 항일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근거지를 찾게 된 것이다.

이들은 거기에서 항일 단체를 형성하여 항일 투쟁을 계속하려 했다. 이 지역 항일 단체로는 십삼도의군, 권농회, 전로한국회중앙총회 등이 있었다.²⁶⁾

한국 저항단체는 고국 13개도에서 직접 러시아로 건너오거나 중국 만주지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건너왔으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 김준엽, 김창순,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1권, 청계연구소, 28.

20) Wada, Haruki, 1987,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In: Suh, Dae-Sook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Papers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No. 12, A joint publication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Pacific-Asian Region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24-59, 31.

21) Wada, Haruki, 1987, 32.

22) Kimura, Hidesuke, 1987, Korean Minorities in Soviet Central Asia and Kazakhstan. In: Suh, Dae-Sook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Papers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No. 12, A joint publication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Pacific-Asian Region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85-100, 86.

23) 러시아와 소련의 전체인구조사는 1926, 1937,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년에 실시되었고, 2010년에 실시된다.

24) Kolarz, W., 1956, *Rußland und seine asiatischen Völker*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F.a.M., 47-8.

25) Forsyth, J., 1992,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269.

26) 박영석, 1989,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서울:독립기념관, 41.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극동 지역 한인들에게 큰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다. 러시아 한인들 중 공산주의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시민전쟁과 극동지역에 외국의 개입이 있던 시기 동안 개인의 이데올로기는 무시한 채 볼셰비스키 당에 호의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의 공공의 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이 러시아를 돕고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물질적인 상황과 법적인 상황이 향상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지체되긴 했지만 극동지역의 한인들은 1926년 소련 시민권과 토지매매권을 보유하게 되었다.²⁷⁾

극동지역의 최초의 한인 신문은 ‘해조신문’으로 1908년 발행되었다.²⁸⁾ 다음 해 다른 신문들도 속속 나타났다. 1928년까지 172개의 한인 학교가 설립되었고 여기에서 12,42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다.²⁹⁾

<표 3>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 인구

(단위 : 명)

연도	러시아 국적의 한인	한국 국적의 한인	계
1905	11,522 (33.5%)	19,277 (66.5%)	30,799
1906	16,965 (49.3%)	17,434 (50.7%)	34,399
1909	14,799 (28.7%)	36,755 (71.3%)	51,554
1910	17,476 (32.0%)	39,813 (68.0%)	54,676

(자료 : КИМ, Сын Хва, 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42)

1920년대 중반에 타쉬켄트 주변에 처음의 한인 콜호즈가 성립되었고, 극동지역에 있던 한인들이 카자흐스탄Kazachstan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1924년 타쉬켄트에서 ‘투르케스탄 한인협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며,³⁰⁾ 1926년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52,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³¹⁾ 당시의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내의 경제적인 궁핍이 많은 이주자를 형성하게 하였다. 일본은 1910년 이후 한국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농촌의 토지재편성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다. 생계수단을 빼앗긴 농민들은 도시로

27) Shin Chey, Youn-Cha, 1987, Soviet Koreans and Their Culture in the USSR. In: Suh, Dae-Sook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Papers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No. 12, A joint publication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Pacific-Asian Region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60-84, 64.

28) 박환, 1995,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33.

29) КУЗИН, А., 1993,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89-.

30) 김 블라지미르, 김현택(역), 2000,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경당, 19.

31) Kimura, 86.

나가 하층민으로 편입되거나, 만주나 러시아 일본 등 해외로 이주하였다. 한국 내 농촌의 피폐로 남쪽지역인 경상도지역의 농민들도 북쪽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모습이 당시의 소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³²⁾

(3) 1927-1945년

일본이 만주를 공격한 이래로(1931년 9월 18일) 이 지역에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소련 정부는 한인들의 이주가 위험한 면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러시아 국경지대 근처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에 이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게다가 소련정부는 한국인들의 충성에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한국 출신의 러시아 인구들이 주로 항일 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을지라도 러시아로서는 한국인들이 일본 침략자들과 연합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1936-1938년 사이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에서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상황에서 소련정부는 극동지역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소련정부는 스파이활동과 파업 등을 우려한 나머지 결국 한국인들 또는 중국인들을 일본의 잠재적인 협력자로 여기게 되었고, 소련 극동지역에서 모든 아시아인들을 몰아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이상적 사회주의사회 건설론을 내세워 ‘다민족 동질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많은 소수민족들이 고유의 문화 및 언어를 상실했고, 우리 동포의 경우 1937년 연해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는 인권 탄압을 받았다. 약 18만 명의 연해주 지역 동포들이 19세기 중순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 4,000마일 이상을 옮겨져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사막지역으로 이주 당했다.³³⁾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극동지역의 아시아 이주민들은 중앙아시아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시기 약 17만 2,500명의 한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1937년 10월 25일까지 3만 6,442가구 17만 1,781명의 한인들이 우즈베키스탄(7만 6,525명), 카자흐스탄(9만 5,256명)으로 이주하였다.³⁴⁾ 사할린 북부에서도 1,155명의 한인들이 강제 이주되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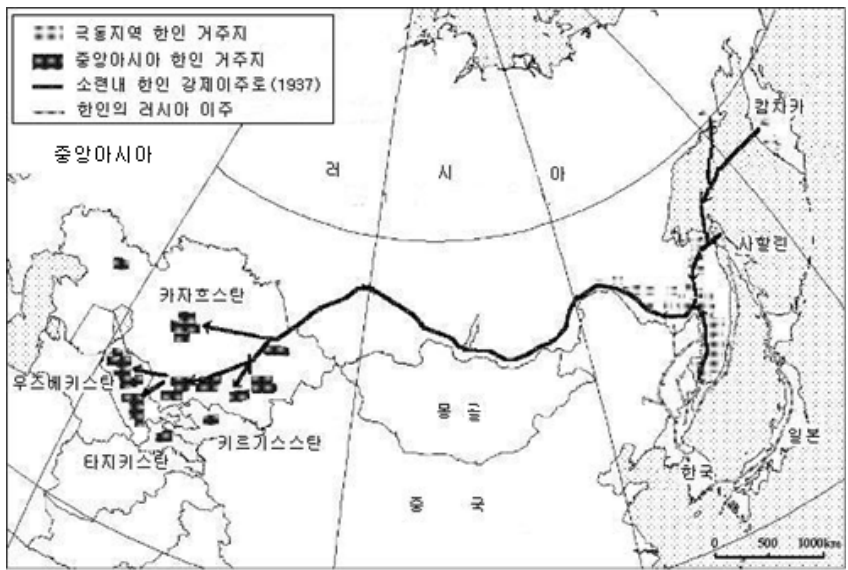
32) 이해에도 늦은 가을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마을에서도 가물가물하게 멀리 보이는 들 건너 북망산 고갯길에는 이 마을에서 떠나가는 한 떼의 무리가 있었다. 붓짐을 지고 어린 아이 업고 바가지 찬 젊은이, 늙은이, 사내, 여편네, 적지 않은 떼가 물려간다. 그들은 서간도로 가는 이사꾼이다. 그 가운데에는 원보의 어머니와 그의 어린 딸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었다(조명희, “농촌사람들”, <現代評論>(1927년 1월) 182~196면. 끝부분)

33) Forsyth, J., 1992,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324-325.

34) КУЗИН, А., 1993,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 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134.

콜라츠에 의하면, 1927년에 이미 한인들의 수는 공식적으로는 17만 명, 비공식적으로 25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39년 1월 17일 인구센서스에서 소련에는 18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다.³⁶⁾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인들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중앙아시아로 길고도 험한 열차이동, 척박한 환경과 열악한 생활환경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망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에 대해 1927년 이후 자료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자료에 의한 한인들의 강제이주³⁷⁾ 인원은 13만 5,343으로 나타난다.³⁸⁾ 1937년 여름에 실시된 전국인구조사에서 소련 내에 살고 있는 한인수는 16만 8,259명으로 나타나며 이중 16만 7,220명은 극동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는 극동지역에 있던 거의 모든 한인들이 이주 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1937년 러시아 내 한인의 강제 이주
(출처: Yi, 2002, 264)

35) КУЗИН, А., 1993, 159. 164.

36) Zotschew, T.D., 1976, *Sowjetunion - Land, Staat, Wirtschaft*. Kiel, Wien, Teil 3, 158.

37) 일본에 의해서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강제로 이주된 경우를 forced migration이라고 표현하며, 소련 내에서의 강제이주를 용어는 forced relocation을 사용하곤 한다.

38) Belaia kniga o deportatsii naseleniia Rossii v 30-40x godakh: Kniga pervaia. Ed. Li U Khe [Vladimir Fedorovich Li] Moskow: Interprax, 1992, 68,82. 재인용 Stephan, 213.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그 총수는 480만 명이나 되며, 이들 중 153만 명의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일본 및 사할린 남부의 해외로 끌려갔다.³⁹⁾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39-1943년에 1만 6,122명의 한국인들이 남사할린에 강제징용 되어 탄광과 벌목장, 토목공사장 등에서 노역하였다.

(4) 1945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총 480만 명의 한국인들을 강제로 징용하였다. 그 중 153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 동남아시아, 남태평양군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일본 정부의 공식 진술에 따르면 1939-1943년 사이 최소한 1만 6,122명의 한인들이 사할린 남부지역으로 끌려갔다. 이 들 중 3분의 2가 광산에서 일하고 3분의 1은 토목공사에 징용되었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사할린을 전쟁 준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인력들이 토목공사에 징용되었다.

1939년에는 총 3,301명의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끌려갔고, 그 중 16%가 공사인부로 징용되었다. 그 해 공사 인부의 수가 50%까지 증가하였다. 1941년 새로 동원된 노동인력의 45%와 1942년 2,000명의 강제징용 노동자가 도로와 비행장 건설에 새로 배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사할린 남부지역(1905년 일본에 의해 점령된)은 소련에 복속되었다. 전쟁 말기에는 사할린 남부지역에 4만 3,000명 내지는 5만 명의 한국인들이(이들은 1939-1945년 사이 일본에서 사할린으로 끌려왔던)이 살았다. 이들은 주로 광산에서 일했다. 1944년 2월에는 총 광부 인구들 중 35%가 한국인에 해당했다.

연합군의 승리 이후 많은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이 그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과 소련은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그 결과 사할린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일본인들은 1950년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인들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1957-1959년 사이 700명의 한국인만이 일본으로의 이주가 허가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본인 여성들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극동지역의 당시 정치적 상황이 한국인들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사할린은 전쟁 말기에 소련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사할린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남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남한에는 미국 군대가 주둔하였고, 한국전쟁 동안 남한과 소련은 서로 간접적으로 대립하였다. 게다가 광업, 어업 및 이 지역 전 산업에서 한국인들의 노동인력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소련은 한국인들의 귀환에 관심이 없었다.

39) 신용하, 1991, 일본의 신군국주의, 신동아 2월호, 132-150, 142-.

이들 한국인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가기도 하였다. 1959년 6만 7,450명의 한인들이 소련 극동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이중 3분의 2가 사할린에 거주하였다.

소련과 북한정부의 조약 체결로 1946년 5월부터 7월까지 최초의 북한 노동자들이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사할린에 왔다. 1946-1949년 기간 동안 총 2만 891명의 노동자와 5,174명의 가족들이 사할린으로 왔다. 1946-1949 총 약 5만 명의 북한인들이 소련 극동 지역에서 단기이주노동자로서 일했다. 이들은 캄차트카, 하바롭스크, 사할린에서 주로 어부, 벌목공, 건설인부로 일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 약 1만 명의 북한들이 계속 소련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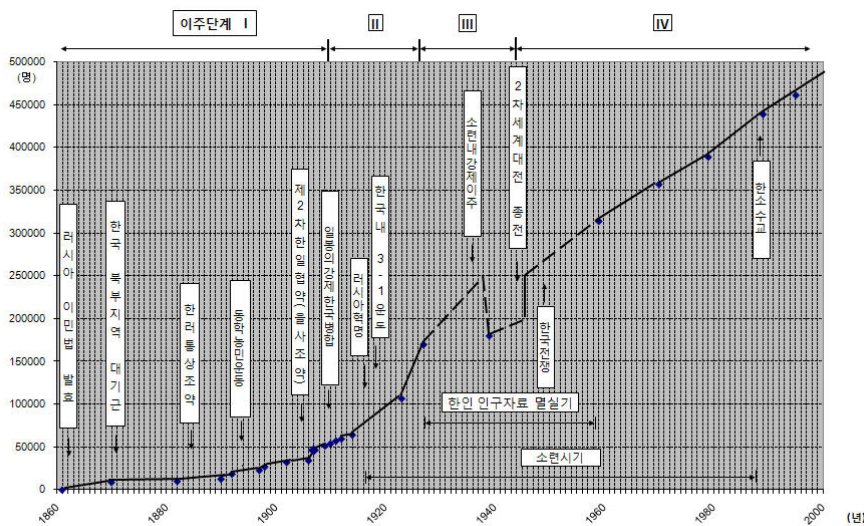
1995년 46만 1,145명의 한국인들이 러시아 연방지역에 거주하였다. 이 중 10만 8,325명이 오늘날의 러시아에 살고, 22만 336명이 우즈베키스탄에, 10만 3,525명이 카자흐스탄에, 1만 7,476명이 키르기스탄에, 8,742명이 우크라이나에, 2,005명이 벨라루스에, 763명이 그 밖에 국가에 거주하게 되었다.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던 1만 3,000명의 한국인들은 소련 해체 이후 여러 민족 간에 발발한 갈등 사태로 희생당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여러 번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바로 이웃한 우즈베키스탄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91년 말 소련 해체와 남한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관계 재개-이후 남한 기업인들과 선교사들, 학생들은 이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벌목공, 어부, 건축인부로서 동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일했다. 또한 중국 북동부지역에 있는 한인(조선족)들이 상업활동을 위하여 러시아로 건너 왔다.

2) 러시아 한인 인구의 발달; 1860-2000

1860년대 최초의 이주 이후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민 수는 흉년과 식량난으로 인해 1869-1870년 사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후에는 조선과 러시아 간 조러육상통상조약 체결로 이주민 수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1894년 제국주의 열강들에 맞서 한국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흉년과 그로 인한 식량난으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물결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1905년부터 1910년 일본에 의해 한국이 최종 점령되기까지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로 이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27-1939년 시기동안의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다. 소련 정부는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한인 인구수와 상황에 대해 어떠한 공개발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스탈린이 죽은 1952년까지 지속되었다. 다시 시작된 인구조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959년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러시아에서의 한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며, 각 출처마다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소련 총인구조사 이후에야 그 통계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었다.

1930년대까지 얼마동안 러시아에 머물렀거나 일했거나 했던 한국인들까지 계산하면 러시아 거주 한인들은 공식적으로 추정된 것보다 50% 더 많게 된다. 1945년 사할린 남부 거주 한인들이 소련에 편입되고 1946-1949년에 북한 노동자들이 이주한 이후 대규모의 이주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 한인들의 증가는 주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 현상에 기인한다. 1959년 이후 정기적으로 행해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89년에는 소련 전지역에 43만 9,000명이 거주하였다. 1995년 조사에서는 이 지역에 한인들이 약 2만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러시아 전체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지역에는 약 14만 8,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6만 1,900명이 극동지역에 거주하며, 사할린에는 29,600명이 있었다.⁴⁰⁾ 이는 극동지역 전체 한인인구의 48%가 사할린 거주 한인들로 나타난다.



[그림 3] 러시아(소련)의 한인 인구 발달

(자료 :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ССР; Kho 1987; КИМ, Сын Хва, 1965; Kolarz 1956; КУЗИН 1993; 이광규 / 전경수 1993; 이상근, 1996; Leimbach 1950; ПАК, Б. Д., 1993; ПЕСОЦКИЙ 1913; Wada 1989; Zotschew 1976;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2; 權太廳 1926-1936; Forsyth 1992; Yi 2002 등에서 종합)

40) <http://www.perepis2002.ru/index.html?id=87>

2. 사할린의 한인 인구 발달

1) 사할린 한인 인구의 형성

(1) 러시아 제국기 : - 1905

1881년부터 14개월간 사할린을 답사한 러시아 지리학자의 기술에서 1800년대 말의 사할린의 상황은 모든 것이 미개발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⁴¹⁾ 당시 사할린은 죄수들의 유형지로 사용되었고, 사할린의 개발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때였다. 러시아는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이주노동자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 100여명의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서부 해안 탄광에 노동자로 수입되었다. 이들은 1905년 이후에도 남아 있었다.⁴²⁾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이주해온 시기는 1870-80년대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중국,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를 거쳐 사할린에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97년 첫 러시아 총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의 수는 67명 이었다. 그중 63명이 조선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고 54명이 자기 민족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취업상태로 본다면 9명이 농민이고 53명이 어부와 사냥꾼이었으며, 1명이 양복장이, 1명이 실업자, 3명이 형기를 끝마치고 있었다.⁴³⁾

1890년대 초의 사할린 전체인구는 약 2만 8,000명이었다. 그 민족별 구성은 러시아인이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아니누, 에벤키, 니브히, 오로치족 등 사할린 원주민들이 사할린 전체의 15.3%이다. 이 원주민들의 비율은 약 100년 후에 0.4%로 감소하였다.

1865년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 대한 모든 이주제한을 철폐했다. 그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이 이 섬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 러시아도 역시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할린으로의 이주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869년 일본정부는 500명의 일본인을 아니바(Aniva)만으로 보냈다. 남부 사할린의 일본 거주지역에는 일본 인구가 증가하였다. 위도 48도 남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식 집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다.

일본의 사할린 식민지화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이 섬으로 죄수들을 더 많이 보냈다: 1858년 이미 러시아 죄수들은 여기로 보내졌다. 1868년 800명의 러시아 죄수들이 사할린으로 추방되었다.

41) 나는 그 섬을 문명화시키는 것(강제노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던)이 국가에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할린 섬을 떠났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도달했던 결론들이 사용됐던 수단과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Poljakow, 123).

42) Stephan, J. J., 1971, Sakhalin: A History. Clarendon, Press: Oxford, 90.

43) КУЗИН, А., *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1993), p.141.

1869년 4월 18일 러시아황제의 법령은 사할린을 중범죄자들의 추방지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여기에는 강력범죄자들만이 보내졌다. 1870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의 죄수들이 사할린으로 이송되었으며 때로 그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졌다. 듀에(Duye)에 있는 광산회사들은 죄수들을 노동인력으로 쓰기도 하였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사할린으로 소위 불필요한 사람들, 항복군인들, 거지들, 불량배 등을 보냈다.

경쟁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사할린으로의 이주정책은 민족의 혼합을 야기했다. 1870년대 초 사할린에는 3,000명의 러시아인이 살았다.⁴⁴⁾ 대부분 죄수들과 군인들이었다. 여기에 200-300명의 일본인들이 위도 48도까지 남부 사할린에 군데군데 분포하였다. 점차 사할린에 러시아인과 일본인의 수가 늘었다. 벤주코프(M.I. Venjukov)는 1874년에 사할린의 최대인구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인 3,000명, 일본인 300명, 니브히 3,000명, 아이누 3,000명, 오로치 4,000명, 중국인 100명 등 총 1만 2,500명이다.⁴⁵⁾

사할린은 1880년대에 들어 유배지의 성격이 강해졌다. 알렉산드로프스크 중앙 감옥 외에도 1891년까지 류코브스크(Rykovsk), 코르사코프(Korsakov), 데르빈스크(Derbinsk), 타레츠크(Taretsk) 감옥과 오노르(Onor)의 내륙에 있는 감옥 하나까지 생겨났다. 유배지 행정은 모든 삶의 영역을 관할하였다.⁴⁶⁾ 여기에는 석방된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포함되었다. 언급된 감옥들에서 죄수들이 금을 캐기 위한 광산으로 보내지거나 철도 건설에 보내졌다.

1875년 4월 25일 사할린-쿠릴협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은 러시아에 사할린 전체를 넘기는 대신, 쿠릴 섬을 획득했다.

유배지 성격이 강한 섬 사할린에는 자발적인 이주자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수는 11.2% 줄었다. 1897년 통계에 따르면 이 섬의 2만 8,113명의 주민 중 러시아인이 1만 8,316명이었는데, 그 중 군인들이 1,287명이고, 1만 2,000명 이상이 예전 죄수들 4,088명이 죄수들이었다.⁴⁷⁾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1897년 1월 28일의 국가공식인구조사에서 2만 8,166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다.⁴⁸⁾ 이들의 거주 분포는 <표 4>과 같다.

44) Landgraf, Dieter, 1989, *Amur Ussuri Sachalin 1847-1917*, (Muenchen: Hieronymus), 543-544.

45) Landgraf, Dieter, 497

46) Landgraf, Dieter, 575-576.

47) Landgraf, Dieter, 650.

48) Funke, Max, 1906, *Die Insel Sachalin: eine ethno-geographische Studie*. Angewandte Geographie, Serie 2, Heft 12. Gebauer-Schwetschke, Halle (Saale).

<표 4> 1897년 사할린 거주 인구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계
알렉산드로프 지역	8,518	2,634	11,152
티모브 지역	5,833	2,628	8,461
코르사코프 지역	6,167	2,386	8,553
합계	20,518	7,648	28,166

(출처 : Funke, 12)

한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러시아의 마찰로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25억 루블의 전비를 사용하였고, 3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포로가 되었다. 전쟁에 패한 후 포츠머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약이 체결되었다⁴⁹⁾:

- 한국에는 일본의 권한이 우선 된다.
- 러시아와 일본은 18개월 내에 만주를 비워야 한다.
- 요동(Liaotung)의 모든 차용권은 일본에게 양도한다.
- 러시아 각 개인이 획득한 권한은 남겨둔다
- 대련항에서 장춘까지 이르는 철도는 일본에 속한다.
- 위도 50도를 기준으로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 넘기며, 일본인들이 아무르 관할의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1906년 사할린은 위도 50도를 따라 분할되었다. 러시아는 약간 더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남부 사할린 지역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1897년 섬 전체 인구는 2만 8,113명이었는데 그중 1만 8,316명이 러시아인이었다.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를 확고히 하였다. 처음 영국-일본 간 연합협정(1902년 1월)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던 반면, 1905년 8월 12일~9월 27일의 두 번째 협정서에는 그러한 언급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동아시아와 인도에서의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고 영국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국에서의 일본 권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었다. 일본은 이 협정이 자신에게 인가한 권한과 권력에 대해 주저함이 없었고, 한국을 무력으로 차지하였다.

49) Hoetzsch, O.,1949, *Gundzüge der Geschichte Russlands*, Stuttgart, 156.



A. 1855년 Shimoda 조약



B. 1875년 St. Petersburg 조약



C. 1905년 러일전쟁 후



D.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그림 4] 사할린의 영역 변화
(출처 : 이재혁, 2010, p. 184)

(2) 1905-1945 북사할린

러시아의 사할린지역은 오랫동안 생활지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⁵⁰⁾ 1908-1914년에 죄수들을 제외하고 러시아인으로는 단지 105 세대만이 북사할린에 이주해왔을 뿐이다.

러시아정부는 사할린의 새로운 이미지 심기에 노력하였다. 러시아정부가 이 격오지 섬에서는 병역을 면제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1914년에서 1916년 사이에 1만 5,000명의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북사할린으로 급격히 이주하였다.⁵¹⁾ 1908년 지질학자 폴레보이(P. I. Polevoi)의 북사할린 탐사가 있었는데 북사할린에 엄청난 매장량의 석탄 외에 풍부한 금과 아연, 철광석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의 고품질 석탄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할린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은 1880년이였다. 니콜라예브스크의 상인 이바노프(Ivanov)가 원주민 길라크족의 전설에서 북부 사할린에 새들이 빠져죽는 '죽음의 검은 호수'에 대하여 들었고 러시아 정부에 유전개발을 건의 했다. 1889년 이바노프 그리고리 쯔도프(Ivanov Grigorii Zotov)가 정부의 후원으로 오하와 노글리키 지역을 시추하여 1904년에 처음으로 석유를 채굴하였다. 북사할린의 석유는 곧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사할린의 석유사업에는 영국과 미국, 중국, 독일의 자본이 참여하여 관심을 가졌다.

1905년 9월 일본이 사할린의 북위 50도 이남을 점유하였을 때 1904년 4만 명이었던 러시아인 중 7,000명의 러시아인들이 남았다. 그중 약 5,000명이 1906년까지 북사할린으로 이주하였다.⁵²⁾ 이후 1908년 북사할린의 인구는 7,986명이었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9년 8,201명, 1910년 8,846명, 1911년에는 8,84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중 러시아인은 5,593명이였다.⁵³⁾

1910년 북사할린의 알렉산드로프스크에는 한 개의 한인촌락이 형성되어 25가구가 거주하였다.⁵⁴⁾

1920년 3월 25일에 소련 극동지역의 니콜라예브스크-나-아무레에 있던 700명의 일본군과 민간인이 볼세비키 유격대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⁵⁾.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을 이유로 일본은 사할린의 북부를 침공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사할린의 석유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일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석유를 제외하고 수입에 의존하였다. 1914-1918년의 일본의 석유생산량은 매년 40만 톤에 불과하였다. 1919년 북사할린의 원유 보존량은 1억 톤의 광대한 양이었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남사할린에서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가 볼세비키 혁명으로 혼란스런 틈을 타서 알렉산드로프스크에 있는 러시아 백군정부를 지원

50) Koudrey, V., 1935, "Island of Ill Repute," *Asia*, XXXV (March 1935), 144.

51) Stephan, J. J., 1971, *Sakhalin: A History*. Clarendon (Press: Oxford), 92.

52) Stephan, J. J., 1971, 90.

53) Landgraf, Dieter, 720.

54) КУЗИН, А. Т., 2009, *стойческ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142.

55) Im Februar 1920 die Stadt auf die Mündung von Amur Fluß ist bei Bolshevik partisans umgezinkt und angegriffen. 방어자들인 일본군과 일본인들, 약간의 미국인과 러시아인들이 포함되었다, 3월의 공격으로 약 700명이 사망하였고 122명이 포로가 되었다.

하여 1917년에서 1918년에 북사할린의 유전지대를 조사했고, 1919년 일본정부의 지원 하에 일본의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사할린의 원유지대를 조사하였다. 호쿠שי카이(Hokushikai)광업회사와 미쓰비시(Mitsubishi)광업사가 각기 4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일본(Nippon)석유, 다카다(Takada)석유, 오쿠라(Okura)광업이 각기 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유전개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일본해군성도 지질조사팀을 파견하였다.

1920년 1월 14일 볼세비키군이 알렉산드로프브스크를 점령했을 때 일본정부는 북사할린의 유전사업을 철수하느냐 남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 시점에 니콜라에브스크의 사건이 발생했고 일본의 여론이 들끓었다. 일본정부는 4월 21일 군함 미시마호를 알렉산드로프브스크에 정박시키고 2,000명의 군대를 투입하였다. 5월 14일에는 타타르(Tatar)해협을 가로지르는 드 카스트레이(De Castreis)만에 5,000명의 병력을 상륙시켰다.⁵⁶⁾

1920년 4월에는 960명의 한인이 북사할린에 거주했으나,⁵⁷⁾ 일본이 북부 사할린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북사할린의 많은 한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북부 사할린 지역의 한인들의 수는 1920년 10월 609명에서⁵⁸⁾ 1923년 1,43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⁵⁹⁾ 이는 남부 사할린 거주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북부 사할린의 유전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소련의 대륙지역에서 사할린으로 이주하려는 한인들도 있었다. 일본군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1920년부터 러시아의 대륙연안의 니콜라에프스크 지역에서 사할린으로 이주하는 한인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⁰⁾

<표 4> 1920년 북사할린 거주자

(단위 : 명)

민족별	가구수	인구			a/b
		남 (a)	여(b)	계	
러시아인	293	700	713	1,413	0.98
일본인	291	1,020	365	1,385	2.79
한국인	71	466	143	609	3.26
중국인	20	269	5	274	53.80

(자료 : Bok, 71)

56) Stephan, J. J., 1971, 99.

57) 日本外務省 陸海軍省文書, 大正十二年度(1923년) 『北樺太統計表』 薩哈政部.

58) БОК. З. К., 1993,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ск, 71.

59) КУЗИН, А. Т., 2009, 142.

60)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薩哈蓮州派遣軍占領地施政』 (薩哈蓮州派遣軍司令部(歐米局 第一課, 大正十年 五月-十月(1921년)).

1921년 북사할린의 일본군 보고서에 의하면 알렉산드로프스크의 한인인구는 남자 231명, 여자 77명으로 총 30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11명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잡화점 19명, 요리음식업 9명, 노동자 182명, 예작부(술집여종업원) 16명, 기타 71명으로 나타난다.⁶¹⁾

<표 5> 1921년 북사할린 알렉산드로프스크 인구

(단위 : 명)

국적별 인구	남	여	계
일본인	1,842	1,019	2,861
러시아인	632	633	1,265
한국인	231	77	308
중국인	195	10	205
계	2,900	1,739	4,639

(자료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大正十年 十一月三日, 薩哈蓮州派遣軍占領地施政)

이 시기 알렉산드로프스크의 인구의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일본의 사할린점령군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외무성 사할린 군정부의 자료에⁶²⁾ 의하면 1920년부터 1923년의 기간 동안 매년 3월, 8월, 12월의 인구동향이 기술되어 있다. 이 시기의 한인인구는 일본이 북부 사할린을 점령한 이후인 1920년 8월부터 증가하고 있다. 1920년 8월에 65명이었던 한인들은 동년 12월에 670명으로 증가하였다. 1922년 12월에 1086명으로 최대치에 이르고, 1923년 12월에는 935명이 알렉산드로프스크에 거주하였다(표 6 참조).

<표 6> 1920-1923 북사할린 알렉산드로프스크 인구

(단위 : 명)

년도	국적	4월	8월	12월
1920	일본인		437	1,149
	한국인		65	670
	중국인		221	206
	러시아인		1,497	1,376
	계		2,220	3,401
1921	일본인	2,335	2,655	2,777
	한국인	609	327	621
	중국인	186	219	345
	러시아인	1,387	1,288	1,322
	계	4,487	4,689	5,054

61)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薩哈蓮州派遣軍占領地施政』. (十四回帝國議會說明資料(亞細亞局管掌事項), 大正十年 十一月三日).

62) 日本外務省 陸海軍省文書, 大正十二年度(1923년) 『北樺太統計表』 薩哈政部.

1922	일본인	2,997	4,368	4,269
	한국인	552	694	1,086
	중국인	389	462	951
	러시아인	1252	1,323	1,535
	계	5,190	6,847	7,841
1923	일본인	3,110	2,616	2,539
	한국인	815	749	953
	중국인	880	580	1,356
	러시아인	1,561	1,510	1,709
	계	6,366	5,455	6,557

(자료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文書, 大正十二年度 北樺太統計表, 薩哈連軍政部)

1923년 북사할린 전체지역에는 러시아인 6,571명, 일본인 3,553명과 1,207명의 중국인, 1,431명의 한국인이 있었다.⁶³⁾

일본이 북사할린에서 철수한 이후 북사할린의 한 지역인 알렉산드로브스크에 사는 한인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925년 5월에 62명의 한인들이 거주했다. 36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와 16명의 아이들이 있었다.⁶⁴⁾ 이 기록에서 당시 북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살던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47.4세로 높은 편이고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35.7세였다. 남자들의 직업은 26명(72%)이 단순노무직이었고, 농부가 4명이었다. 벌목공 3명, 요리사 1명, 용접공 1명, 재단사 1명이었다. 전체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8명은 사할린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로서 일본이 북사할린을 점령(1920년 4월)한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1920 - 1925년 기간 동안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정을 무시하고 북사할린을 무력 점령하였다. 당시 북부 사할린에는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남사할린에 있던 한인들 중에서도 북사할린에 이주하여 유전과 광산작업과 어장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한인들은 주로 북사할린의 수도인 알렉산드로브스크, 석유채굴지인 오하, 티모스코예(Tymoskoye) 등 벌목과 광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쓰비시사는 듀에(Duye), 무가친스크(Mugachinsk)와 로가틴스크(Rogatinsk) 지역에 한인 노동자를 수입하였다.⁶⁵⁾

일본이 북사할린에서 철수한 1925년에 북사할린의 한인인구는 48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⁶⁶⁾ 한인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이 1925년 6월 북사할린에서 철수하면서 일본의 남사할린에 살던 한인들이 다시 남사할린으로 이주한 결과이다.

63) КУЗИН, А., 1993, 142.

6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СКОЙ ОБЛАСТИ (ГАСО) ф. 1, оп. 2, д. 31, л. 2

65) Stephan, J. J., Sakhalin: A History. Clarendon (Press: Oxford, 1971), p.104.

66) БОК, 72.

1925년 일본의 북사할린 철수와 함께 한인들도 남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으나 그대로 북사할린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 1925년 일본이 북사할린에서 철수한 후 소련은 개발정책에 따른 사할린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사할린의 도로와 주택건설 산림개발을 위하여 대륙지역으로부터 콤소몰(Komsomol; 공산청년조직)을 불러오기도 하였고, 탄광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의 수찬(Suchan)에서 중국인과 한인 노동자들을 듀에로 데려왔다. 유전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을 비교적 높은 임금으로 아제르바이젠의 바쿠(Baku)와 체첸의 그로즈니(Grozny)에서 데려왔다. 농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부는 흑해와 발트지역에서 데려오기도 하였다.⁶⁷⁾

<표 7> 1925년 일본 철수 이후의 북 사할린 인구

민족별		인구		%
러시아인		7139		67,1
원주민	길야크 Giljak (Nivchi)	1,631	2,003	18,9
	오로크 Orok (Oroki)	153		
	통구스 Tungus (Ewenki)	172		
	야쿠트 Jakut (Jakuty)	47		
외국인	중국인	757	1,488	14,0
	한국인	487		
	일본인	244		
계		10,630		100,0

(자료 ; Bok, 72)

1926년 487명이었던 북사할린의 한인은 1929년 900명에 이르렀다. 1931년에는 1,767명, 1932년 3,2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소련의 극동지역 연해주와 하바로브스크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일부는 일본지역인 남부사할린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33년 12월 14일에 알렉산드로프스크에서 23명의 사람들이 소련국적을 신청했다. 1934년에는 1882-1913년생의 39명, 1934년 1월 8일에 14명이 소련국적을 신청했다.⁶⁸⁾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 시행시기에 북사할린의 1,155명의 한인들은 북부 사할린에서 중앙아시아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67) Stephan, J. J., Sakhalin: A History. Clarendon (Press: Oxford, 1971), p.126.

6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СКОЙ ОБЛАСТИ (ГАСО) ф. 53, оп. 1И, д. 13И
 ПРЕДСЕДАТЕЛЮ ГОСРОСТА Г.ОХА, 1934 С.12-13
 Список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я о переходе в рус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к 1882-1913년생의 39명
 Список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я о переходе в рус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СССР 1934년 1월 8일에 14명

(3) 1905-1945 일본통치의 남사할린

1905년 이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여 남부 사할린이 일본에 넘어간 후 한인들의 남부사할린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났다. 일본이 남부사할린을 점유할 당시의 남부사할린의 인구는 1만 2,000명에 불과 하였다. 그 후 남부 사할린에는 어업, 임업, 석탄채굴, 펄프공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노동자가 이주했다. 특히 1930년대 이후는 탄광개발이 급속히 추진되어 탄광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다.

사할린에 유입된 노동력 인구 중에는 초기부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0년 이래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처한 한국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농촌의 토지재편성이 강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농민이 토지를 잃었다. 생계수단을 빼앗긴 농민 중 일부는 한국의 도시로, 일부는 일본으로 살 길을 찾아서 이주했다. 이들 중 일부의 한인들은 사할린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였다. 사할린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임금이 높았고, 이는 빈곤한 한국의 농민들에게 장거리이주를 감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10년 이래 일본으로의 이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15년 4천명이 되었고 1944년까지 200만 명에 이르렀다.⁶⁹⁾ 이 중 일부가 사할린으로 이주하였고 강제이주의 시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 사할린의 한인수도 급증하였다.

1905년 일본이 남부 사할린을 점령했을 당시 이 지역에 24명이 한국인이 있었으나, 1920년 남부 사할린 거주 한국인 수가 934명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에 카라후토 [Karafuto(남사할린)]에서 실시한 첫 인구조사자료에 의하면 이곳에 934명의 한국인이 거주하였는데 토요하라[Toyohara(현재의 유주노-사할린스크)]에 416명, 마카오[Maoka(홀름스크)]에 176명, 시쿠카[Shikuka(포로나이스크)]에 153명, 오토마리[Otomari(코르사코프)] 92명, 토마리오루[Tomarioru(토마리)]에 97명이었다. 한인들은 거의 남자였고, 여자는 3.9%에 불과하였다.

한국 내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점점 더 많이 러시아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남부 사할린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주해왔던 한인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3,200명(1925년)에서 5,880명(1931년)에 이르렀다.⁷⁰⁾ 그 후 한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 1934년 3월에 거주한 한인수는 6배 이상 증가하여, 5813명에 달하였다.⁷¹⁾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이후에도 소련의 극동지역에서는 적군과 백군의 싸움이 계속되

69) 김상현, 『재일한국인 교포 80년사』 (단국학술연구원, 1970), 26-17.

70) 權太廳, 『權太廳統計書』 權太 豊原, 昭和八年.

71) КУЗИН, 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1993), p.198.

있고, 소련정부는 극동지역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구 러시아의 편을 들어 1918년 4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 후 소련과의 협상으로 일본이 1922년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였다.

이 시기에 연해주 시베리아에 살던 일부 한인들이 일본군을 따라 사할린에 건너왔다. 그 수는 많지 않다. 수백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은 만주로 건너갔다.⁷²⁾

1930년대 이후 광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노동인력이 동원되었다. 특히 1937년 이후에는 노동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군대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일본정부는 한국인들을 강제동원하였다.

사할린에는 1942년에 가장 많은 숫자인 약 6천명이 동원되는 등 일본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1939년부터 1943년의 강제동원자만 1만 6,113명이었다.⁷³⁾ 그들의 66.4%인 1만 699명이 광산으로 갔으며, 33.6%인 5,414명은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 1939년에 16%인 토목공사 인원이 1940년에는 동원인원의 50%인 약 1,300명이 토목공사에 투입되었고, 1942년에는 2천명이 도로와 비행장공사장에 투입되었다.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확장하면서 사할린역시 전쟁을 위한 토목공사를 크게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일본에 의한 한인 노동자의 사할린 이주 1939-1943

(단위 : 명)

연도		1939	1940	1941	1942	1943
계획		-	8,500	1,200	6,500	3,300
실행	총인원	3,301	2,605	1,451	5,954	2,811
	광산노동자	2,578	1,311	800	3,986	1,835
	건설노동자	533	1,294	651	1,960	976

(자료 : Бок, 42, 김민영,76)

전쟁 말기에는 전체 사할린 섬에 4만3,000-5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1944년 여름부터 1945년까지 일본 남부지역으로 계속 한국인들이 끌려간 수가 1만 5,000명임을 감안하면, 1944년 한국인의 수는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72) 박형주 구술

73)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서울: 연구, 1995).



[그림 5] 시네고르스크의 폐쇄된 탄광 (2012년 7월 20일 촬영)

사할린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주와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경찰과 추격대에 붙잡히기도 하였고,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도망자들의 일부는 북사할린으로 월경하기도 하였다.⁷⁴⁾

남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거주분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비교적 자유로이 이주한 사람들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소득이 높고 생활에 편리한 도시지역에 살 수 있었고, 강제로 온 사람들은 스스로 거주지역을 결정할 수없이 탄광지역에 살게 되었다.⁷⁵⁾

(4) 1945-1990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8월 6일)와 나가사키(8월 9일)에 투하됐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은 급격한 마무리의 단계에 들어갔다. 사할린에서는 8월 11일에 소련군대가 북위 50도 선을 넘어서 공격을 시작하면서 남사할린에 있던 45만 명의 일본인과 한국인들은⁷⁶⁾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스테판에 의하면 1944년까지 남사할린에 10만 명에 가까운 한인이 있었고, 종전 전에 그 절반가량이 일본 남부로 옮겨가게 되어 종전 후에는 약 4만5천명의 한인들이 소련의 러시아연방에 속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⁷⁷⁾ 남부사할린에 남은 한인수를 산정함에 있어

74) 박수호, 임판개, 박형주, 등의 구술(1997년 10 - 12월).

75) 자유로 온 사람들은 큰 도시에 살고, 강제로 온 사람들은 탄광에 (박형주 구술)

76) 大沼保昭, 『サハリン 棄民; 戦後責任の点景』(東京: 中公新書, 1992), p.3.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쟁기간 중에 지방주민 8만 명이상이 징병되었는데 그중에 자신을 일본인으로 사칭한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⁷⁸⁾

둘째, 한인 일부는 사할린의 남부에서 북부로 불법적으로 넘어갔을 수 있었고, 또 넘어갔다.⁷⁹⁾

셋째, 한인 일부가 고된 노동으로 또는 일인들의 폭행으로 죽었고 감옥이나 전장에서 죽기도 했으며 또 종전 직후 일인들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종전 후 사할린에 남아있던 한인인구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다. 사할린의 역사가 콜레스니코프(Н. И. Колесников)는 4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⁸⁰⁾ 쿠진은 전후 한인수를 약 4만 명으로 추정한다. 포시스(Forsyth)에 의하면, 1944년 남사할린과 쿠릴에는 44만 8,000명의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종전 후에 30만 명이 러시아인에게 붙잡혀 있었다. 이 중에는 약 4만 3,000명의 한인들이 있었다.⁸¹⁾

1945년 사할린의 소련기록에는 한인의 수가 2만 3,498명으로 기록된다. 이 중 남자는 1만 5,356명, 여자 8,142명으로 나타난다. 일설에 의하면 한국인 인구가 15만에 이르렀다고도 하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며, 최대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⁸²⁾ 그러나 이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사할린이 소련의 영토가 된 직후, 소련인들은 사할린 인구의 인종상태를 잘 판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귀국을 위하여 많은 한인들이 일본사람으로 가장하였다. 사실 일본사람으로 가장하여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⁸³⁾

소련의 자료에 의하면 1946년에 사할린 한인 약 5만 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 남부 사할린 인구는 39만 1,000명이고, 그 중 약 5만 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일본인이었다. 28만 6,000명이 도시지역에 살았고 10만 5,000명이 농촌지역에 살았다. 성인은 25만 4,000명이며 그 중 16만 4,000명이 일을 하였다: 10만 4,000명은 산업에, 2만 4,000명은 농업에, 3,000명은 공무원 및 비서직에 종사하였다.⁸⁴⁾ 이들은 소련에 의해서 산업노동

77) Stephan, J. J., *Sakhalin: A History*. Clarendon (Press: Oxford, 1971), p.32.

78) 박수호, “사할린 한인 역사통계,” 『구주논총』 (대구대학교동서구문제연구소) 6권 1집, 1991, pp.169.

79) КУЗИН, А., *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1993), p.201.

80) 새고려신문, 1994. 3. 4.

81) Forsyth, J.,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1992), pp. 354-355.

82) 박형주 인터뷰(1997년 12월).

83) 박수호, “사할린 한인 역사통계,” 『구주논총』 (대구대학교동서구문제연구소) 6권 1집, 1991, p.169.

8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46 г. ф171 оп3 д7 КРАТКИЙ ОБЗОР

력으로 투입되었다. 이들은 소련에 있어 산업 유지의 유용한 노동력이었다.

종전 후 1950년 1월 1일까지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31만 2,452명의 사할린 거주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갔다.⁸⁵⁾ 많은 한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한인들이 일본인보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전쟁에 패하였고 한국은 종전과 함께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으로의 귀환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 한인들에게 일본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할린을 점유한 소련정부는 부족한 고급노동력과 관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륙 지역에서 사람들을 영입하였다. 대륙지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한인 엘리트들이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 이들은 스탈린 시기 강제이주정책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강제로 거기에 정착했던 한국인들로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그동안 소련의 교육을 받았고 러시아어 또한 익숙했으므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각 도시의 공산당정치지도원, 재판장, 검찰, 학교교장으로 배속되었다.

1951년 8월 18일 현재 사할린주의 한인은 4만 2,916명이 거주하였다. 그중 남자가 2만 2,427명, 여자가 1만 777명, 16세까지의 아이들이 9,712명이었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수산업 5,410명, 임업1,650명, 광부 1,579명, 제지공업 1,096명, 농업 170가구, 철도운수업 343명, 상업 441명, 수공업에 341명이 종사하고, 무직이 약 700명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1948년부터 북한에서 노동자로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5-7월 기간 동안 소련과 북한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우선 수산업부문에서 일할 조선인 2,000여명이 사할린으로 파견되어 왔다. 1947년에는 소련의 극동지역으로 2만 2천명의 북한노동자들이 파송되었다. 1947년에는 북쿠릴에 2,039명의 한인이 있었고, 남쿠릴에는 없었으나, 1948년 북한에서 831명의 노동자들이 왔다. 1946-1949년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사할린으로 2만 891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5,174명 포함하여 2만 6,065명이 왔고, 같은 기간에 1만 2,386명의 노동자와 2,009명의 가족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다.⁸⁶⁾ 1947년 쿠릴열도에는 2039명의 한인들이 있었고, 1948년 북한에서 831명의 노동자들이 쿠릴열도에 왔다.⁸⁷⁾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с.54.

85) Stephan, J. J., Sakhalin: A History. Clarendon (Press: Oxford, 1971), pp.160-161.

86) КУЗИН, А., 1993, 231.

87) КУЗИН, А., 1993, 232

<표 9> 1951년 사할린 한인의 직업 현황

직업	인구	직업	인구
수산업	5,410명	임업	1,650명
탄광	1,579명	제지공업	1,096명
철도운수	343명	상업	441명
수공업	341명	무직	약 700명
농업	170가구		

(자료 : КУЗИН, А., 1993, 240)

1959년 소련 극동지역에는 6만 7,450명의 한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3분의 2가 사할린에 있었다. 20년이 지나 사할린에는 3만 5,000명의 한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어 출판사와 한국어라디오방송국, 한국어신문과 도서관, 한국어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있었다.⁸⁸⁾

사할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0년 사할린의 한인인구는 3만 5,400명으로 전체인구 61만 7,000명의 5.7%에 해당한다.⁸⁹⁾ 1989년 소련의 전체인구조사 시 사할린에는 3만 5,191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5) 1990년 이후

1985년에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1989년 2월 한인들의 사할린주내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거주권비자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소련 해체와 함께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1990년 러시아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다. 1990년 2월 8일에는 유주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120명의 사할린한인들이 한국의 전 세기를 타고 한국에 있는 고향을 방문하였다. 그 후 1992년 9월 77명의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이 영주귀국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약 3,000명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다.⁹⁰⁾ 영주귀국자들은 2012년 8월 현재 총 4,008명이 귀국하여, 안산, 부산 등지의 총 22개 지역 및 시설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다⁹¹⁾.

한편으로는 소련 해체 이후 다양한 민족 간 갈등사태가 일어나면서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으로 계속해서 한국인들이 이주하였다.⁹²⁾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서 일자

88) Forsyth, J.,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1992), pp. 354-355.

89)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НИЖНОПЕЧАТ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75).

90)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부 내부자료 참조.

91) <http://blog.daum.net/nosookja/17058516>

리를 구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한인들이 이 섬을 떠났다. 2,000 - 5,000 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에서 단기적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 극동지역의 하바로프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유럽 쪽의 러시아 대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1990년대 수백 명의 기업인들과 선교사들⁹³⁾, 학생들이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건너왔다. 또한 수백 명의 북한 건설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⁹⁴⁾ 중국북동지역에서 온 조선족 한인들이 상업 활동을 위해 사할린으로 건너왔다.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 사할린에 한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할린 한인 인구의 시간적 변화

사할린 한인의 이주는 정치적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6개의 이주기로 구분될 수 있다. 사할린이 남북으로 분할되기 이전인 1905년 이전의 초기이주시기, 남사할린과 북사할린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이주를 했던 자유이주시기(1905 - 1937), 일본의 강제이주기(1937 - 1945)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강제이주기는 북사할린에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 이동된 때(1937년)와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노동력 동원에 있어서 일본의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게 된 시기와 부합되는 시기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인들의 ‘강제동원시기’를 공식적으로 1938-1945년으로 보고 있다. 이는 1938년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발달의 시기구분 상의 연속성과 남사할린과 북사할린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에서 사할린 한인 인구발달의 시기구분을 일본의 패전으로 사할린이 소련에 속하게 된 1945년까지의 시기를 일본의 강제이주기(1937 - 1945)로 구분하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소련지역에 살게 된 한인들은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으나, 귀환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사할린에 남았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1957-1959년에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과 그의 일본인 배우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때까지 한인들은 고국으로의 귀환에 기대와 함께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1945-1960). 일본인 부인을 둔 사람들까지 일본으로 귀환하고 남은 많은 한인들은 체념과 포기상태에 이른다. 결국 소련지역에 남은 사할린 한인들은 소련체제에서 점차로

92) 타쉬켄트에서 귀환(신왈레리 구술)사례 등.

93) 1989년부터 사할린에서 선교활동이 시작되었고, 1998년 현재 1개의 가톨릭교회와 10개의 개신교교회가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체 사할린에서 약 50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94) 1998년 현재 북한에서 온 건설노동자 보통강건설대원이 100여명 대부분이며, 한국무용강습을 위한 부부와 북한에서 태권도사범으로 와있는 2명 등이 있다.

적응하게 되고 소비에트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며, 이 시기를 재정착기 또는 적응기(1960 - 1970)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67년 남한 정부가 사할린의 한인들이 남한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을 제네바 국제적십자에 건의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있었으나 성과가 없었고, 많은 한인들은 소련사회에 보다 적응하게 된다. 70년대 들어서 2세들의 성장과 함께 보다 많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갖게 되고 대륙으로의 진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비록 민족적 차별을 갖고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시기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이후 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변화를 갖는 시기까지를 상대적 안정기(1970 - 1990)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소련의 수교에 이어 소련의 해체와 함께 사할린의 한인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러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기(1990 -)를 맞게 된다.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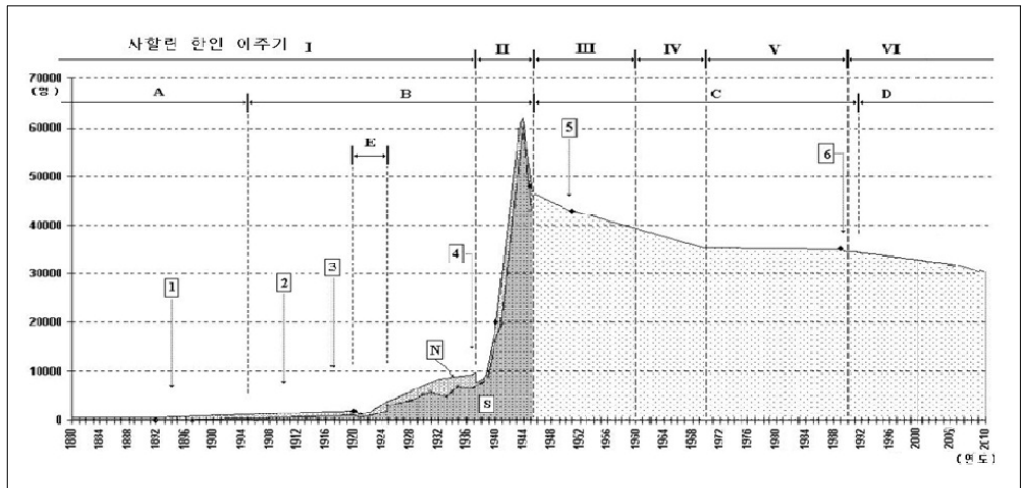
1990년대의 구소련의 개방 및 해체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 많은 남한사람들이 사할린을 방문하였다. 사할린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목적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위한 사람들과 선교의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었다.

사할린 한인의 인구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 한인인구가 통계와 조사내용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2002년의 인구조사에서 사할린의 한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 북한국적 또는 러시아와 2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구이다. 대부분 한인 2세-4세대들은 러시아국적만을 갖고 있다.

1990년대 말 이래로 사할린의 한인 인구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사할린 전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한인들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러시아 본토로 많이 이주하고 있다.

2011년 사할린 한인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집계된다.

95) Yi, Jae-Hyuk, Sachalin-Koreaner - Eine zufaellige Migration, *Korea Forum*, vol.II, 2001, pp.34-38.



사할린 한인의 이주기 구분 : I. 자유이주기 : - 1937 II. 강제이주기 : 1937 - 1945
 III. 혼란기 : 1945 - 1960 IV. 적응기 : 1960 - 1970
 V. 상대적 안정기 : 1970 - 1990 VI. 변화기 : 1990 -

사할린의 역사기 구분 : A. 러시아 제국기 B. 분할 체제기 C. 소비에트기
 D. 신러시아기 E. 일본의 북사할린 점령기

주요 변화동기 : 1. 한국 농민봉기 2. 일본의 한국합병 3. 러시아혁명
 4. 북사할린 강제이주 5. 한국전쟁 6. 한국-소련 수교

N: 북사할린 S: 남사할린

[그림 10] 사할린 한인 인구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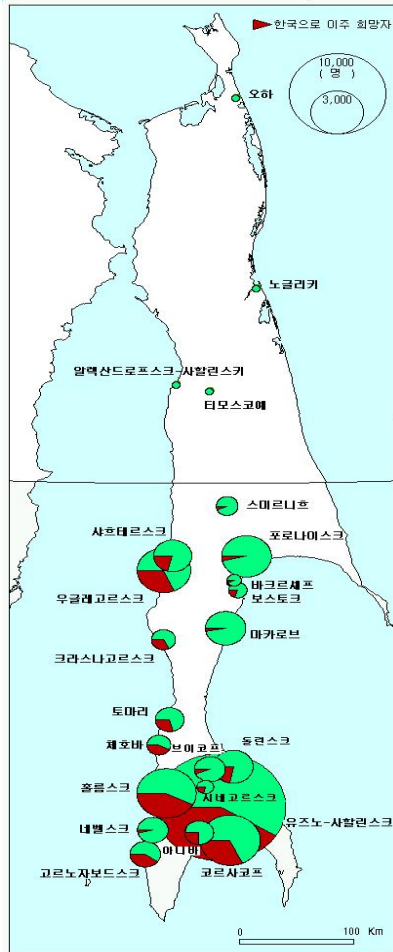
3) 사할린 한인 인구의 공간적 분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할린 남부지역에 거주한다. 총 한국인 인구 중 40%가 사할린의 수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산다. 이 수는 도시 거주자의 10%에 해당한다. 항구도시 코르사코프와 홀름스크에는 한인집단의 17%가 거주한다. 게다가 한인촌은 우글레고르스크등 광산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광산노동자로 일본에서 사할린 남부지역으로 끌려왔기 때문이다. 그 후 한국인들은 소련정부 치하에서 계속 광산에서 일하였다. 이 밖에 한국인들이 종사했던 분야로는 제지공장이 있다. 그러나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토마리에 위치한 제지공장과 각 곳의 광산들이 폐쇄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북부 사할린 지역에는 한국인들이 비교적 적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로프스크-사할린스크, 티모스코예, 노글리키, 오하 등의 지역에서 단지 각각 3~20가⁹⁶⁾가 거주한다. 이들은 주로 1945년 이후 북한에서 이곳으로 어부로 온 사람들과 석유노동자, 그리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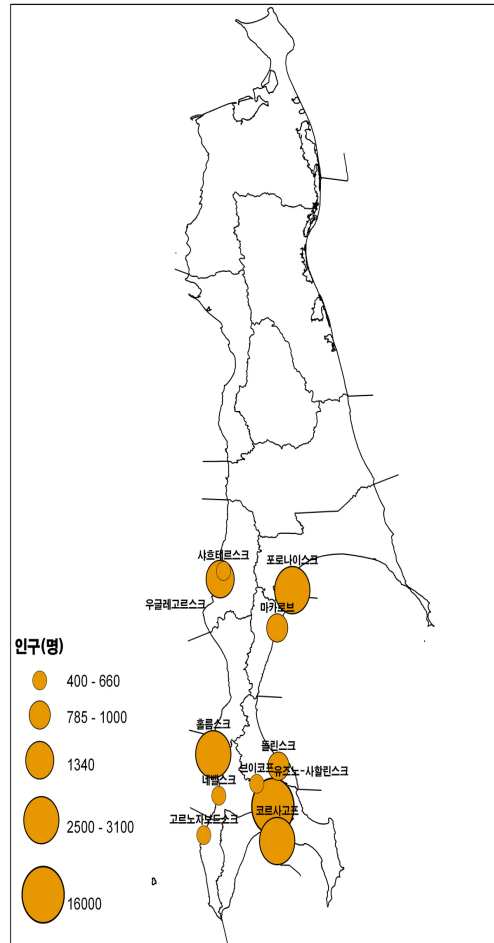
96) 노글리키 이삼자 구술(1997년 11월)

의 2, 3세대 후손들이 이에 해당한다. 1992년과 1994년에서 사할린 한인회와 노인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사할린에는 4만 3,617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북쪽지역의 한인들은 상당수가 제외되었다. 현지 사할린 한인들의 구술과⁹⁷⁾ 북부지역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부 한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는 접할 수 없었다.



[그림 11] 사할린 한인의 공간적 분포(1997년)

(자료: 사할린 한인회, 사할린 노인회의 지역별 취합자료, 현지답사와 구술자료 추정치 포함)



[그림 12] 사할린 한인 인구의 공간적 분포(2011년)

(자료 : 2011. 4. 5. 사할린 이산가족회 내부자료)

97) 북쪽에 사는 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다. (박형주 구술, 1997년 12월)

2011년 사할린 이산가족회의 자료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집중도가 커지고 구 탄광지역에서 한인들의 인구는 급격 감소하였다.

<표 11> 2011년 사할린의 한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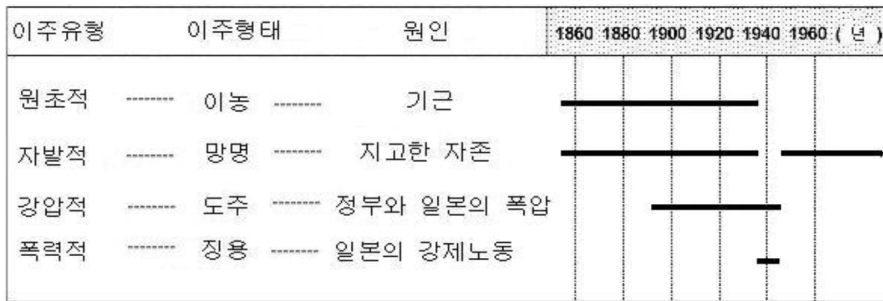
	지역	인구	1세 인구 (45.8.15.전 출생)
1	유즈노-사할린스크	16,000	461
2	홀름스크 + 체홉브	3,100	110
3	코르사코프	2,650	72
4	포로나이스크	2,500	36
5	우글레고르스크	1,340	55
6	돌린스크	1,000	80
7	마카로브	785	44
8	샹프르스크	660	58
9	네벨스크	500	2
10	고르노자보르스크	460	12
11	브이코프	400	20
	계	29,395	950

(출처 : 2011. 4. 5. 사할린 이산가족회 내부자료)

3.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주의 특성

이주의 복잡한 특성상, 이주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요소들, 즉 이주의 기간, 규모, 동기, 원인과 목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러시아로의 이주역사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가장 잘 적용되는 이주형태구분은 페터센(Petersen)으로부터 비롯되었다.⁹⁸⁾ 페터센은 이주형태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원초적’, ‘폭력적’, ‘강압적’, ‘자발적’, ‘대규모 이주’ 등으로 분류하였다. Petersen의 유형 분류에 따라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의 형태를 정리해보면 [그림 1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98) Bähr J., Jentsch, C., Kuls, W., 1992, *Bevölkerungsgeographie*. (Berlin: New York), 565.



[그림 13] 러시아 한인 이주의 형태

(출처 : Yi, 2001, 37)

이주현상은 인간의 활동으로, 지엽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일어난다.⁹⁹⁾ 이 개념은 물리적인 이동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주상황을 포함한 이주의 전 과정(Process)이기도 하다.

사할린 남부지역의 한인들은 그 이주의 과정과 결과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한인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그 당시 일본의 영토였던 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결국 1945년 이후 역사적 혼돈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련영토에 남게 되었다. 사할린의 한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자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주자가 되었다. 이들은 강제이주의 과정을 거쳐 거대하고 복잡한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정착되지 못한 생활을 하는 ‘Displaced Persons’와는¹⁰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사할린 한인들의 이주유형은 ‘우연적 이주’로 새로이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99) Pacione, M., 1986, Population Geography: Progress & Prospect. London, 6.

100) “Displaced Persons” : 크게는 강제노동이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 조국을 떠나 떠도는 사람들을 말한다.

〈참고문헌〉

- 가파넨코, 콘스탄틴(이연정 역), 『사할린 미즈호 마을의 비극』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2009.
- 고승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海外韓人の 사회와 문화』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pp.137-170.
-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서울: 장문각, 1973).
-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편람, 재외동포사총서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세계한민족총서』 vol.5, 통일원, 1996.
- 김민영,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 『국제지역연구』 vol.4, 2000, pp.23-52.
- 남혜경, 임채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 『고려인 인구 이동과 경제환경』 (서울: 집문당, 2005).
- 노영돈, “사할린 韓人の 歸還問題에 관하여,” 『인도법논총』 vol.10-11, 1991, pp.219-236.
- 박수호, “사할린 한인 역사통계,” 『구주논총』 (대구대학교동서구문제연구소) 6권 1집, 1991, pp.17-27.
- 박승의, “사할린 한인 동포 제2세 :우리는 누구인가?,” 『지역사회』 신춘호 통권 제46호, 2004, pp.40-47.
- 박승의, “할린 한인 동포 제2세 우리는 누구인가?,” 『계간 지역사회』 vol.47, pp.115-129.
-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서울: 독립기념관, 1989).
- 박 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서울: 탐구당, 1995).
- 법무부, “사할린僑胞의 現況과 法的 地位,” 『법무자료』 제73집, 1986.
-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의원간담회 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역),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와 일본의 정치』 한일친선협회, 1994.
- 심현용,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7, pp.24-32.
- 이재혁,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주의 특성과 인구발달,” 『국토지리학회지』 44(2), pp.81-198.
- 이재혁,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 소수민족의 생활상,” 지리학총, 37, 2011, pp.137-151.
- 이재혁,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 시베리아연구, 15(1), pp.85-135.
- 이재혁, “사할린 한인 이주와 인구형성,”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 이재혁, “사할린 한인 이주와 해상 이주경로,” 『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3, 2011 pp.39-45.
- 이채문, “Koreans in Sakhalin and Transnationalism,” 『한국동북아논총』 vol.52, 2009, pp.293-318.
- 이 철, “한국인의 러시아 이민사,” 『슬라브연구』 제7권,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 pp.179-200.
- 한중만, “러시아 극동지역 사할린 주에 관한 지역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vol.3, 1999, pp.95-120.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露領沿海地方及北樺太』 大正十一年.
- 大沼保昭, 『サハリン 棄民; 戦後責任の点景』 (東京: 中公新書)
- 朴亨柱, 『サハリンがらの レポート, 棄てられた朝鮮人の 歴史と証言』 (東京, 民壽社, 1990).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薩哈蓮州派遣軍占領地施政』. (十四回帝國議會說明資料(亞細亞局管掌事項), 大正十年 十一月三日).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薩哈蓮州派遣軍占領地施政』 (薩哈蓮州派遣軍司令部(歐米局 第一課, 大正十年 五月-十月(1921년)).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執務報告』 (東亞局, 昭和十一年度(1936년)).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在外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自昭和四年四月 至同十六年六月.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 文書, 『第四十四回帝國議會說明資料(亞細亞局管掌事項)』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文書, 大正十二年度(1923년) 『北樺太統計表』薩哈政部.
- 日本外務省 陸海軍省文書, 『北樺太油田炭田關調查』外務省 歐米局第一課, 大正十四年二月十六日
- 樺太廳, 『國勢調查結果報告』大正九年(1920년), 大正九年, 昭和五年, 昭和十年., 昭和十年.
- 樺太廳, 『樺太植民地選定報文』明治四十三年(1910).
- 樺太廳, 『樺太廳施政三十年史』昭和十一年. 樺太 豊原3
- 樺太廳, 『樺太廳統計書』樺太 豊原, 昭和八年.
- 樺太廳長官官房文書課, 『樺太廳統計書』.
- サハリン残留韓國朝鮮人問題議員懇談會 編, 『サハリン残留韓國朝鮮人問題と日本の政治』(東京,1994).
- Kho, Songmo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Edited by the Finnish Oriental Society 61, (Helsinki, 1987).
- Kolarz, W.,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New York, 1954).
- Kolarz, W., Rußland und seine asiatischen Völker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 1956.
- Stephan, J. J., The Kuril Island, Russo-Japanese Frontier in the Pacific. Clarendon (Oxford University, 1974).
- Stephan, J. J., The Russian Far East. (Stanford University, 1994).
- Vysokov, M., A Brief History of Sakhalin and the Kurils. Yuzhno-Sakhalinsk, 1996.
- Yi, Jae-Hyuk, Sachalin-Koreaner - Eine zufällige Migration, Korea Forum, vol.11, 2001, pp.34-38.
- Yi, Jae-Hyuk, Koreanische Migration nach Russland. Mitteilungen des Instituts fuer Asienkunde Hamburg, Nr.354, 2002, pp.257-274.
- БОК. З. К.,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ск, 1993.
- ГАПОНЕНКО, К. Е.,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Южно-Сахалиск, 1993.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омит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50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ск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И. МОСКВА,
- ГОСКОМСТАТ СССР,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ССР;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 КИМ, М. Т.,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и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МОСКВА, 1979.
- КИМ, Сын Хва, черки по историй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1965.
- КУЗИН, А., 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1993.
- КУЗИН, А. Т., стойческ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사할린 코레이츠들의 역사적인 운명. 제1편-3편,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2009.
- ПАК, Б. Д.,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осква, 1993.
- ПАК, Б. Д.,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конец 30-х годов), Москва - Иркутск, 1995.
- ПЕСОЦКИЙ, В. Д.,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Хабаровск, 1913.
-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НИЖНОИЗДА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2008, 2009.

ФЕДОРЧУК, СЕРГЕЙ, ТОЁХАРА ГЛАЗАМИ РОССЯГН Из ис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2.

ШЕВЧЕНКО, Н. С., Насе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2.

- 사할린 문서보관소 문서 (분류번호- ФОНД No 4, ОПИСЬ No 1, ДЕЛО No 70)

Выселяемого с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Составлен 7 Октября 1937г Алеесандровск н/ Сахалине.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 Сахалин в Казахского и Узбекского Республики, 1937г.

Список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го н / Сахалине Района, Выселяемого с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Составлен 7 Октября 1937г Алеесандровск н/ Сахалине. (문서번호 2-1-1g-1, 2-1-20-3, 2-1-37-6, 4-1-22-2, 4-1-44-5, 4-1-64,-2-1-30-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СО) ф. 53, оп. 1И, д. 13И
ПРЕДСЕДАТЕЛЮ ГОСРОЕТА Г.ОХА, 1934 С.12-13 Список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я о переходе в рус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 Список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я о переходе в рус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СССР.

<http://info-regions.ru/>

<http://mrd.gks.ru/>

<http://www.adm.sakhalin.ru/>

<http://www.gks.ru/>

<http://www.nupi.no/cgi-win/Russland/etnlist.exe/Sakhalin>

<http://www.perepis2002.ru/>

<http://www.sakhalin.ru/>

<http://www.sakhalin.ru/>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s in Sakhalin, Russia

Jae-Hyuk Yi
Hallym University

The destiny of the Koreans who emigrated to China, Japan and Russia is dependent largely upon the political situation the interests of these countries. Among these countries, Sakhalin, Russia is the region of a peculiar case for Korean emigrants. Koreans were brought there forcibly to work for the Japanese before World War II. After the war they could not return back to their homeland due to the delicate international relation betwee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Japan and the USA. The blocking of the return of the Korean from Sakhalin to their homeland due to political situations might be one of the most unique example in the world history.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formation processes of the Korean immigrants in Sakhalin, Russia is examined on the time-spatial perspectives,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henomena of the Korean and the behavioral pattern of the immigrants are analysed.

1. The development of Korean population in Sakhalin

According to demographic records, Koreans have lived in Sakhalin since the 1870s, but we know details as early as 1897. In that year, 67 Koreans were living in Sakhalin.

In 1905, Sakhalin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e USSR occupied Northern Part and the Japan occupied Southern Part. At that time, 24 Koreans were living in the Japanese Sector, and the number of Korean increased to 934 persons by 1920.

In 1910 the number of Korean families in Aleksandrovsk in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was about twenty-five. Since April 1920, the Korean population in northern

Sakhalin increased rapidly from 609 to 1,431 persons, but with the Japanese withdrawal from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in 1925, the number of Koreans decreased to 487. Since then, the population of southern and northern Sakhalin has steadily increased, especially the number of Koreans who immigrated to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continuously; from 3,200 in 1925 to 5,880 in 1931. But in 1937, 1,155 Koreans were deported from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to Central Asia of USSR.

During World War II, more Koreans were taken to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as compulsory laborers. At the end of the War, the number of Koreans on the entire Sakhalin Island reached 43,000 to 50,000. From summer 1944 to 1945, a large number of Korean miners withdrew to the southern part of Japan.

Since 1946, the Koreans of Soviet Central Asia had come to Sakhalin and worked as government officials and teachers. From 1946 to 1949,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fishermen and wood cutters immigrated into Sakhali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akhalin Koreans wished to return to their homeland, but the political situation was very unfavorable to them. To make matters worse, the USSR wanted to have Korean labor for the whole industrial branch in this area, so they were not interested in returning the Koreans home. Some of Korean returned to North Korea, and the Korean who could not return to South Korea had to adjust their decision to the given situation.

After a period of adjustment in the 1960s, a relatively stable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pulation in Sakhalin continued until the 1970's.

With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e Koreans in Sakhalin were confronted with a new phase. In 1990, South Korea established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Russia, and the Koreans of Sakhalin were allowed to visit their homeland. Since 1992, the aged Koreans in Sakhalin have been allowed to settle in South Korea.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raised racial conflicts in Central Asia and the Korean who were deported to Central Asia by the forced deportation policy of

USSR experienced a new problem of their identity. The result of this new conflict is that they have lost the security of living and have had to abandon their property; being forced to move back again to Sakhalin, the home of their ancestors. 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Koreans left Sakhalin in order to get a better job in another place.

Since the 1990s, hundreds of merchants, traders, missionaries and students from South Korea visited Sakhalin. Furthermore, hundreds of laborers from North Korea and Chinese-Korean merchants immigrated to Sakhalin either for jobs or business.

On the basis of political and historical situations, Korean immigration to Sakhalin can be divided into six stages, i.e.: firstly, the beginning of migration before the division of Sakhalin into the southern and the northern parts, secondly, the relative free migration period (1905~1937) when the Korean migrated relatively freely between the southern part and the northern parts of Sakhalin, thirdly, the forced migration period by Japan (1937~1945) when the Koreans were forced to migrate from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to Central Asia, fourthly, the confused period (1945~1959) when the Koreans with Japanese wives returned to Japan, and the others fell into abandonment and resignation, fifthly, the resettlement period (1959~1989) relatively stable time, and lastly, the new changing period (1990~) after the occasion of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With the opening policy of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Russia has increased enormously in many ways. As the result of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since 1989, many South Koreans can visit Sakhalin for the purpose of business and missions along with family visit.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former USSR) reached 533,976 in 2007 and the number of Koreans only in Russia in 2009 was 222, 027. Out of them, 30,000 Koreans are settled in Sakhalin of the Russian Far East.

According to the Russian National Census in 2002, the proportion of Sakhalin Koreans accounts for 5.4% of the total population of Sakhalin.

2.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Korean population in Sakhalin

The majority of Koreans reside in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and 40% of them live in Yuzno-Sakhalinsk, the capital city of Sakhalin. This number of Koreans is equal to 10% of all urban residents. The Korean population in two ports, Korsakov and Kholmok is about 17%. Besides the urban dwellers, the Koreans tend to live in mining villages, such as Uglegorsk, because many Koreans came to the Japanese occupied southern part of Sakhalin as forced labors during World War II. Since the end of the war, Koreans in Sakhalin are engaged mainly in the field of mining and the paper industry.

A few Koreans live in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For example in Aleksandrovsk-Sakhalinsk, Tymoskoye, Nogliki, and Okha, only 20 to 30 families resid.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s of workers from North Korea once worked in fishing and oil fiel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Association of Sakhalin Koreans in 1992 and 1994, 43,617 Koreans lived in Sakhalin, but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s in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were not included in these statistics. Through interviews with the Koreans and field work the Koreans living in the northern part of Sakhalin were identified, but accurate statistics don't exist.

3. The character of Korean migrants in Sakhalin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s in Sakhalin due to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has a historically unique character in 20th century world history.

In 1905, Sakhalin was divided by the USSR and Japan into southern and northern parts. In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many Koreans settled down, who immig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sult of the Japanese forced migration policy. After World War II,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also became a part of Soviet territory. The Koreans in Sakhalin became immigrants without nationality in the Soviet Union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 migration is a human activity and it can be a local or international phenomenon. This concept can apply not only to a physical movement phenomenon, but also to a entire process of migration including a migration situation.

The Koreans in Sakhalin had suffered from the Japanese forced migration, and their settlement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ir intric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therefore they had to live through a the series of misfortunes without their own choice. This case therefore differs from the wandering 'displaced persons'. The migration type of Koreans in Sakhalin can be newly named 'accidental migration'.

주 제 발 표

제2부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과 한러교류의 역할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한국과 사할린 주 간 교류의 실태조사)

Пак Сын Ы | 국립 사할린대학교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достижений медици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ефор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주 보건 개혁에서 한국 의학의 업적)

Ку Хен Гу |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Состояние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1945-2013 гг. и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1945-2013년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

Кон Но Вон | 사할린 한국어교육협회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새 고려신문 : 어제, 오늘, 내일)

Бэ Виктория | Сахалин.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 связующий мост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한러 교류에서 사할린 한인의 가교 역할)

Ян С. | Сахалинская писа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문화공연 및 간담회

북방 경계지역으로서의 DMZ지역 답사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Пак Сын Ы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14–15 апреля 2010 г. в Сеуле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алее – РК).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в августе 1948 г. РК была привержена идеям демократии и свободной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но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ее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ретерпели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лись США и СССР, переросло в “холодную войну”, РК развивала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С 1962 г. РК начала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экспорт, и активно вести внешнеторг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сему миру.

С 70–х г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РК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остижение мирного и независимого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олуострова. Страна также укрепляла связи с союзниками и принима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конце 80–х и начале 90–х гг. эпох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и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положили конец “холодной войне”, и РК быстро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новой ситуацией, активно проводя “северную дипломатию”. В дальнейшем, в декабре 1991 г. были заложены основы для ми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между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огда они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имирении, ненападении, обменах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снов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и подписали совместную декларацию о превращ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безъядерную зону.

В сентябре 1991 г. РК стала полноправным членом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ОН), начала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ее вклад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ела соизмерим с ее положением в мировом сообществе.

Развитые государства (США, Япония и страны Евросоюза) остаются глав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РК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торговля,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РК начала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развивающимся странам еще в 60-х гг., когда она приглашала небольшие группы стажеров и посылала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границу. РК также оказывала помощь через та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алютный Фонд (МВФ),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ан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МБРР),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АБР) и еще более десяти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годня, в начале XXI в., когда Корея стала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держав, трудно поверить, что когда-то она была слабой и даже просила российского царя принять ее под свой протекторат. Царь отказал. С этого началась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 тех п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России и Кореи не помешали ни японская оккупация, длившаяся с 1910 по 1945 г., ни большевистский переворот 1917 г.

Истор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В начале XXI в.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оизошли три знаковых события. Это, во-первых, резкий рос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проса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прежде всего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Японии и РК. Во-вторых, практическое проявлени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стран АТР в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ах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наконец, осознание выб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лее – РФ): предпочесть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или частные выгоды крупных нефтяных компаний.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звана сыграть геополитическую роль в обеспечени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ынках в СВА и что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для стран СВА. Интеграция в этом регионе приобретает ресурс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представляют проекты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газа и нефти на о. Сахалин. Контуры участия РК в освоен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ресурсов Сахали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могли определиться.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оверялись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ах, включая приобрет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доли в проектах «Сахалин»,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по сжижению газа, созда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 д. Учитывая особен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корейца, а именно – исключительный прагматизм, можно не удивляться тому, почему РК проявляет интерес к ограниченному спектр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сырьевой рынок,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отрасль, продви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С марта 1989 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ССР взяло курс на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с РК. В апреле 1989 г. в Сеуле было откры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ССР, а в июле того же года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ос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торговли (КОТРА), проведена выставк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с участием крупных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аний.

После этого в РК побывала группа совет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развития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дел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8 октября 1989 г.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ССР в ЮНЕСКО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РК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Это произошло 30 сентября 1990 г.

Со времени их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шло 22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эт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сегда имели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больш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делегация парламентски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РК прибы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июле 1989 г. В переговорах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большое стремление к установлению тесных деловых связей. 17 января 1992 г. губернато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 Федоров и провинции Чеджу РК У Кын Мин подписали Декларацию о заключении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ая такж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в обмене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3].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анам АТР всегда отводилась особая роль. Стремясь к развитию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с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идит себя не только в роли поставщиков 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но и как равноправных партнер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Для этого имеется и богаты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и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 чрезвычайно емкий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Именно эта перспекти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развитием отношений с такими странами, как РК.

Первый 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К состоялся в январе 1992 г., который заложил основу дальнейш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АТР. В ходе визита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областное и район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бизнесмены) изучи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ел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бывали на судовой верфи корпорации «Хендэ».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 бизнесом на о. Чеджу.

С 1992 года происходит значительное ускорение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 РК. Наличие значительного числа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РК,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иска новы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я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требуют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ямых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контактов с различными кругами этой страны. С 1992 г. начин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бизнесменами. В немалой степени это обуславливалось больш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дъемом в РК. Уже в 1992 г.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тоимости завозимых в область товаров широк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показал прямую выгоду ускор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этой страной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В 1993 г. свыше 80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имели деловые контакты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РК. В этот год число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едыдущим увелич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а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в уставные фонды – 5,7 раза. Так, например, АО «Мебель» начало заниматься сборкой мебели из деталей, поставляемых из РК. «Китурами Бойлер»,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ирмы «Китурам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нималась установкой и сервисны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бойлеров на жидком, твердом топливе и газе.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ле прослеживалась устойчивая тенденция к росту. Так, за период с 1993 по 1998 гг.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увеличился в 5,9 раза. По объему товарооборота РК вышла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опередив Японию и США. Удельный вес ее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 33,5%. Экспорт по-прежнему носил сырьевой характер – это рыба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лесоматериалы, металлический лом, транспортные услуги. Основными статьями импорта в 1998 г. стал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товары хозяйственно-бытового назначения, одежда и обувь. В РК доводку прошла морская ледостойкая платформа «Моликпак», котора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1998 г.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В области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57 совм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 уставным капиталом 17,5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авда, в основном инвестируется мелки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Но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наряду с такими уже ставш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вм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как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торгово-закупоч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явились предприятия, охватывающие новые сферы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именно: "Азиана-аэрлайнс" (авиауслуги), "Домастик Групп" (производство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Донг Сенг-Ньюра" (производство бытового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рестораны "Сеул" и "Смак Ко, ЛТД" (общественное питание), "Сахалин Пусан"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т. д.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прямые рей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ус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еул,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лись как авиа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авиатрассы" (САТ), так и "Азиана-аэрлайнс".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предполагало ориентацию на углуб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но и через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кооперацию, привлечение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проработку проект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К - это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развити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делового отношения. Быстр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этой страны после потрясшего ее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1997-1998 гг.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кооперировании наших усилий в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аза с шельфа Сахалина, совмест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лого ряда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области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 д.

С 31 декабря по 3 февраля 2000 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ился с визитом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э Сок Вон.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генконсула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насыщенной и помимо основной цели - участия в проводах уезжающей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групп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переговоры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област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И. Сидо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УВД, а также встреч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МИД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 Касторновым. Сторонами была выражена надежда на расшир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намечены пути возмо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дельно генконсул поблагодарил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помощь, оказанную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айлот” и заявил, что надеется на дальнейшее содействие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деле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ходе встреч генконсула с И.П. Фархутдиновым и С.И. Касторнов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 уже давно объективно существу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чрежд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или хотя бы отделения консульства, открытие которого помогло бы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ить решение целого ряда проблем. Тэ Сок Вон сообщил, что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осозн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сульства РК.

26 февраля 2001 г.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III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уроченное к официальному визиту в РК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В. Путин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Комиссии были,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 освоен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том числе такие, как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разработке ТЭО Ковыктинского газового проек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го разработку Ковыктинского газоконденсат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спорт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в Китай и Южную Корею,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е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разработке нефте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а Сахалине.

4-5 декабря 2001 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Хендай” находили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м визит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далее – КМВЭРС) Владиславом Рукавцом, цель их визита – из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участия корпорации “Хендай” в тендерах по проектам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ставках техники.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порации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илось, в каком статусе “Хендай” могла 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ендерах. В. Рукавец предложил бизнесменам изучить вариант соз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 одной из сахалинских компаний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ендерах в статус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в 70-процентной доле российского участ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ем по разделу продукции (СРП) по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Хендай” – крупнейшая корпорация РК, которая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строительн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производстве автомобилей и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2].

В 2002 г.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Пуллип Саноп” на Сахалине заключило контракт сроком на один год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ищ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офисных зданий с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ампан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занимающейся разработкой нефти и газа. О готовности импортир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ий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далее – СПГ) в РК заяви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Южной Кореи в РФ Чон Тэ Ик 9 октября 2003 г.

24 июня 2004 г.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алахов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ответили также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К Теймураз Рамишвили и коммер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Энди Кэлиц,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озможным будущим поставк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газа в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отметил И. Малахов, 22 июня исполнилось 10 лет с начала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который уникален тем, что первым в России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условиях Соглашения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СРП), для чег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Э. Кэлиц сообщ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уже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я с четырьмя крупным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Японии на будущие поставки и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Г.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эти компании приобретут не менее чем треть СПГ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2”. По слов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дписанию аналогичных соглашений на будущие поставки СПГ велись и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Когаз”.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стретил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этой газовой корпорации, а также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опрос о сахалинском газе был также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и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о Му Хёна в Россию, поскольку в Москве вопроса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деляю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ак отметил Э. Кэлиц,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предлагает Кор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е” цены и экономию на транспортных издержках за счет относительной близости Сахалина. Морской путь от Сахалина до Кореи в пять раз короче, чем от Австралии, и в семь раз короче, чем от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откуда СПГ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возится в РК. По словам Э. Кэлица, максимум поставок СПГ сахалинские месторождения способны обеспечить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 как раз, когда потребление газа в Корее возрастает. Кроме того, коммер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предположил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анкеров для перевоз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Г. О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верхние строения для двух морских буровых платформ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2”

сейчас возводятся на судовой верф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мсунг”.

Э. Калиц выделил и такой фактор, как обеспечиваемую Россией стабильность поставок газа. Теймураз Рамишвил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цены в подоб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 не главное. По мнению посла России в РК, самое важное – это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так как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случ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из-за роста цен, а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йн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Поэтому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импортеров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стремятся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источники поставок.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тил Т. Рамишви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 сих пор не принято ни одного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в плане обеспеч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прежнему осно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углеводородов остается крайне нестабильный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Как известн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ыступают в качестве подрядчиков: модернизация буровой платформы «Моликп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нкеров для эк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нефти, крупный контракт, полученный корпорацией «Дэу Инжиниринг Энд Констракшн Ко., Лтд.»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завода СПГ в п. Пригород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рской платформы «ЛУН-А» компанией «Samsung Heavy Industries» и др. Помимо этого,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выиграла тендер на поставку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 2008 г. ежегодно 1,5 млн. тонн СПГ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Когаз» в разработке Киринского блок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3». Компании из РК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ах, Южная Корея зак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ие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выиграла тендер на ежегодные поставки в эту страну в течение 20 лет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с завода СПГ в п. Пригород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значительных объемах импортируется сахалинская нефть. У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многомиллионные контракты в рамках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имер, по «Сахалину-2» они выполнили модернизацию буровой платформы «Моликпак», в самой Корее возвели верхние строения для двух морских платформ ПА-Б и ЛУН-А. Компания «Daewoo» получила крупный контракт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завода СПГ. В РК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нкеров для эк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неф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тут идет по дву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мпорт нефти и СПГ в РК, инвестиции в сахалинские шельфовые проекты.

11 мая 2006 г. на о. Кодже (РК)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иемки верхних строений морской платформы «Лун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мсунг Хэви Индастриз»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провела проектировочные и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слож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по заказу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омпани Лтд».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х к о. Сахалину была использована специально построенная для этих целей Т-образная баржа длиной 190 и шириной 95 м. Погруженные на баржу конструкции преодолели маршрут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831 км.

14-15 апреля 2010 г. в Сеуле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алее – РК).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в августе 1948 г. РК была привержена идеям демократии и свободной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но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ее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ретерпели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лись США и СССР, переросло в “холодную войну”, РК развивала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С 1962 г. РК начала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экспорт, и активно вести внешнеторг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сему миру.

С 70-х г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РК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остижение мирного и независимого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олуострова. Страна также укрепляла связи с союзниками и принима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конце 80-х и начале 90-х гг. эпох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и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положили конец “холодной войне”, и РК быстро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новой ситуацией, активно проводя “северную дипломатию”. В дальнейшем, в декабре 1991 г. были заложены основы для ми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между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огда они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имирении, ненападении, обменах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снов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и подписали совместную декларацию о превращ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безъядерную зону.

В сентябре 1991 г. РК стала полноправным членом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ОН), начала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ее вклад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ела соизмерим с ее положением в мировом сообществе.

Развитые государства (США, Япония и страны Евросоюза) остаются глав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РК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торговля,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РК начала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развивающимся странам еще в 60-х гг., когда она приглашала небольшие группы стажеров и посылала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границу. РК также оказывала помощь через та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алютный Фонд (МВФ),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ан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МБРР),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АБР) и еще более десяти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годня, в начале XXI в., когда Корея стала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держав, трудно поверить, что когда-то она была слабой и даже просила российского царя принять ее под свой протекторат. Царь отказал. С этого началась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 тех п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России и Кореи не помешали ни японская оккупация, длившаяся с 1910 по 1945 г., ни большевистский переворот 1917 г.

Истор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В начале XXI в.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оизошли три знаковых события. Это, во-первых, резкий рос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проса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прежде всего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Японии и РК. Во-вторых, практическое проявлени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стран АТР в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ах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наконец, осознание выб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лее – РФ): предпочесть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или частные выгоды крупных нефтяных компаний.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звана сыграть геополитическую роль в обеспечени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ынках в СВА и что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для стран СВА. Интеграция в этом регионе приобретает ресурс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представляют проекты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газа и нефти на о. Сахалин. Контуры участия РК в освоен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ресурсов Сахали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могли определиться.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оверялись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ах, включая приобрет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доли в проектах «Сахалин»,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по сжижению газа, созда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 д. Учитывая особен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корейца, а именно – исключительный прагматизм, можно не удивляться тому, почему РК проявляет интерес к ограниченному спектр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сырьевой рынок,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отрасль, продви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С марта 1989 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ССР взяло курс на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с РК. В апреле 1989 г. в Сеуле было откры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ССР, а в июле того же года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ос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торговли (КОТРА), проведена выставк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с участием крупных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аний.

После этого в РК побывала группа совет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развития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дел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8 октября 1989 г.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ССР в ЮНЕСКО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РК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Это произошло 30 сентября 1990 г.

Со времени их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шло 22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эт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сегда имели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больш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делегация парламентски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РК прибы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июле 1989 г. В переговорах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большое стремление к установлению тесных деловых связей. 17 января 1992 г. губернато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 Федоров и провинции Чеджу РК У Кын Мин подписали Декларацию о заключении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ая такж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в обмене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3].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анам АТР всегда отводилась особая роль. Стремясь к развитию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с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идит себя не только в роли поставщиков 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но и как равноправных партнер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Для этого имеется и богаты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и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 чрезвычайно емкий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Именно эта перспекти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развитием отношений с такими странами, как РК.

Первый 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К состоялся в январе 1992 г., который заложил основу дальнейш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АТР. В ходе визита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областные и район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бизнесмены) изучи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ел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бывали на судовой верфи корпорации «Хендэ».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 бизнесом на о. Чеджу.

С 1992 года происходит значительное ускорение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 РК. Наличие значительного числа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РК,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иска новы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я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требуют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ямых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контактов с различными кругами этой страны. С 1992 г. начин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бизнесменами. В немалой степени это обуславливалось больш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дъемом в РК. Уже в 1992 г.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тоимости завозимых в область товаров широк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показал прямую выгоду ускор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этой страной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В 1993 г. свыше 80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имели деловые контакты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РК. В этот год число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едыдущим увелич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а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в уставные фонды – 5,7 раза. Так, например, АО «Мебель» начало заниматься сборкой мебели из деталей, поставляемых из РК. «Китурами Бойлер»,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ирмы «Китурам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нималась установкой и сервисны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бойлеров на жидком, твердом топливе и газе.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ле прослеживалась устойчивая тенденция к росту. Так, за период с 1993 по 1998 гг.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увеличился в 5,9 раза. По объему товарооборота РК вышла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опередив Японию и США. Удельный вес ее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 33,5%. Экспорт по-прежнему носил сырьевой характер – это рыба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лесоматериалы, металлический лом, транспортные услуги. Основными статьями импорта в 1998 г. стал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товары хозяйственно-бытового назначения, одежда и обувь. В РК доводку прошла морская ледостойкая платформа «Моликпак», котора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1998 г.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В области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57 совм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 уставным капиталом 17,5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авда, в основном инвестируется мелки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Но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наряду с такими уже ставш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вм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как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торгово-закупоч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явились предприятия, охватывающие новые сферы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именно: "Азиана-аэрлайнс" (авиауслуги), "Домастик Групп" (производство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Донг Сенг-Ньюра" (производство бытового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рестораны "Сеул" и "Смак Ко, ЛТД" (общественное питание), "Сахалин Пусан"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т. д.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прямые рей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ус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еул,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лись как авиа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авиатрассы" (САТ), так и "Азиана-аэрлайнс".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предполагало ориентацию на углуб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но и через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кооперацию, привлечение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проработку проект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К – это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развити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делового отношения. Быстр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этой страны после потрясшего ее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1997-1998 гг.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кооперировании наших усилий в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аза с шельфа Сахалина, совмест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лого ряда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области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 д.

С 31 декабря по 3 февраля 2000 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ился с визитом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э Сок Вон.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генконсула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насыщенной и помимо основной цели – участия в проводах уезжающей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групп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переговоры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област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И. Сидо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УВД, а также встреч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МИД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 Касторновым. Сторонами была выражена надежда на расшир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намечены пути возмо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дельно генконсул поблагодарил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помощь, оказанную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айлот" и заявил, что надеется на дальнейшее содействие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деле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ходе встреч генконсула с И.П. Фархутдиновым и С.И. Касторнов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 уже давно объективно существу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чрежд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или хотя бы отделения

консульства, открытие которого помогло бы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ить решение целого ряда проблем. Тэ Сок Вон сообщил, что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осозн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сульства РК.

26 февраля 2001 г.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III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уроченное к официальному визиту в РК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В. Путин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Комиссии были,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 освоен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том числе такие, как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разработке ТЭО Ковыктинского газового проек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го разработку Ковыктинского газоконденсат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спорт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в Китай и Южную Корею,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е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разработке нефте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а Сахалине.

4-5 декабря 2001 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Хендай" находили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м визит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далее – КМВЭРС) Владиславом Рукавцом, цель их визита – из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участия корпорации "Хендай" в тендерах по проектам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ставках техники.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порации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илось, в каком статусе "Хендай" могла 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ендерах. В. Рукавец предложил бизнесменам изучить вариант соз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 одной из сахалинских компаний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ендерах в статус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в 70-процентной доле российского участ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ем по разделу продукции (СРП) по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Хендай" – крупнейшая корпорация РК, которая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строительн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производстве автомобилей и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2].

В 2002 г.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Пуллип С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заключило контракт сроком на один год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ищ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офисных зданий с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ампан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занимающейся разработкой нефти и газа. О готовности импортир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ий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далее – СПГ) в РК заяви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Южной Кореи в РФ Чон Тэ Ик 9 октября 2003 г.

24 июня 2004 г.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алахов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ответили также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К Теймураз Рамишвили и коммер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Энди Кэлиц,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озможным будущим поставк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газа в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отметил И. Малахов, 22 июня исполнилось 10 лет с начала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который уникален тем, что первым в России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условиях Соглашения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СРП), для чег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Э. Кэлиц сообщ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уже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я с четырьмя крупным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Японии на будущие поставки и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Г.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эти компании приобретут не менее чем треть СПГ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2». По слов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дписанию аналогичных соглашений на будущие поставки СПГ велись и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Когаз».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стретил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этой газовой корпорации, а также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опрос о сахалинском газе был также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и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о Му Хёна в Россию, поскольку в Москве вопроса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деляю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ак отметил Э. Кэлиц,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предлагает Кор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е» цены и экономию на транспортных издержках за счет относительной близости Сахалина. Морской путь от Сахалина до Кореи в пять раз короче, чем от Австралии, и в семь раз короче, чем от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откуда СПГ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возится в РК. По словам Э. Кэлица, максимум поставок СПГ сахалинские месторождения способны обеспечить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 как раз, когда потребление газа в Корее возрастает. Кроме того, коммер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предположил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анкеров для перевоз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Г. О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верхние строения для двух морских буровых платформ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2» сейчас возводятся на судовой верф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мсунг».

Э. Кэлиц выделил и такой фактор, как обеспечиваемую Россией стабильность поставок газа. Теймураз Рамишвил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цены в подоб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 не главное. По мнению посла России в РК, самое важное – это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так как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случ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из-за роста цен, а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йн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Поэтому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импортеров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стремятся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источники поставок.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тил Т. Рамишиви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 сих пор не принято ни одного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в плане обеспеч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прежнему осно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углеводородов остается крайне нестабильный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Как известн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ыступают в качестве подрядчиков: модернизация буровой платформы «Моликп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нкеров для эк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нефти, крупный контракт, полученный корпорацией «Дэу Инжиниринг Энд Констракшн Ко., Лтд.»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завода СПГ в п. Пригород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рской платформы «ЛУН-А» компанией «Samsung Heavy Industries» и др. Помимо этого,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выиграла тендер на поставку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 2008 г. ежегодно 1,5 млн. тонн СПГ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Когаз» в разработке Киринского блок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3». Компании из РК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ах, Южная Корея зак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ие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выиграла тендер на ежегодные поставки в эту страну в течение 20 лет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с завода СПГ в п. Пригород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значительных объемах импортируется сахалинская нефть. У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многомиллионные контракты в рамках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имер, по «Сахалину-2» они выполнили модернизацию буровой платформы «Моликпак», в самой Корее возвели верхние строения для двух морских платформ ПА-Б и ЛУН-А. Компания «Daewoo» получила крупный контракт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завода СПГ. В РК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нкеров для эк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неф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тут идет по дву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мпорт нефти и СПГ в РК, инвестиции в сахалинские шельфовые проекты.

11 мая 2006 г. на о. Кодже (РК)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иемки верхних строений морской платформы «Лун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мсунг Хэви Индастриз»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провела проектировочные и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слож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по заказу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омпани Лтд».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х к о. Сахалину была

использована специально построенная для этих целей Т-образная баржа длиной 190 и шириной 95 м. Погруженные на баржу конструкции преодолели маршрут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831 км.

Развитие конта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близость, взаимодополняемость экономик, но и наличие на Сахалин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динамикой,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ил 2009 г., в котором в связи с кризисными явлениями, происходившими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объем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с РК сниз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08 г. в 1,6 раза.

Динам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2007	2008	2009	2010	2011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его	9037,1	10068,1	8598,8	12771,8	17174,9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област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4498,0	4826,8	2989,1	4437,0	7358,8
Удельный вес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области, %	49,8	47,9	34,8	34,7	42,8
Экспорт	3642,2	4729,8	2937,1	4381,1	7268,5
Импорт	855,8	97,0	52,1	56,0	90,3
Сальдо	2786,4	4632,9	2885,0	4325,1	71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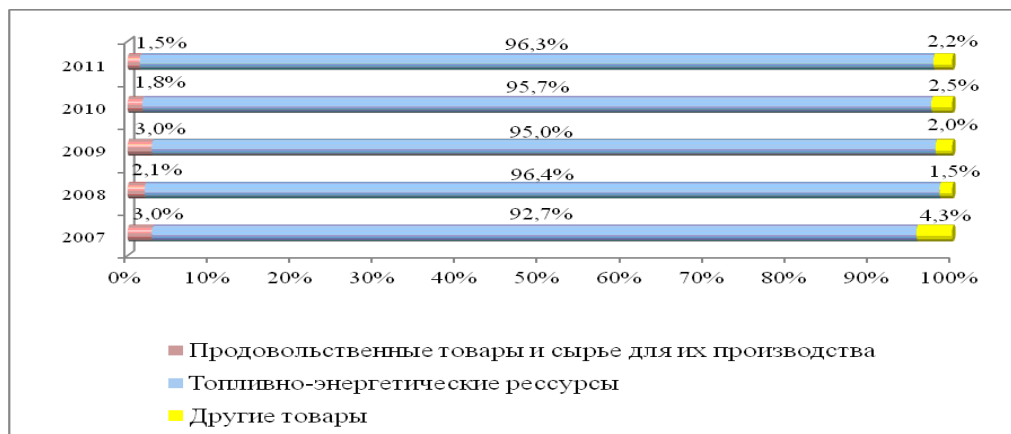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В 2011 г.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составил 7,4 млрд. долларов США и увелич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в 1,7 раза.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а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вызвано значительным ростом, как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так и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из РК. В 2011 г. доли экспорта и импорта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зменились и составили 98,8% и 1,2%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2010 г. доля экспорта – 98,7%, доля импорта – 1,3%). Сальдо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охранилось положительным и составило в 2011 г. 7,2 млрд. долларов США, что в 1,7 раза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2010 г. Основным фактором увеличения сальдо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Экспорт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наблюд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ризисного 2009 г.)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в РК. За период с 2007 по 2011 гг. объемы экспорта выросли почти в 2 раза. В 2011 г. экспорт в РК достиг 7,3 млрд. долларов США и увелич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на 65,9%. Товарная структура экспорта имеет сырьев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ежде всего,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нефть,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далее – СПГ), угол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ми товарами и сырьем для их производства (рыба, рыбо-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Динамика товарной структуры экспорта, в %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lin.ru/korea> 2013.03.13.

Существенных изменений в товарной структуре экспор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Домин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в экспорте по-прежнему занимают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Доля продукции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общем объеме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в РК в 2011 г. составила 96,3% (2010 г. – 95,7%). В структуре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 стоимостном выражении в 2011 г. на нефть приходится 93% (2010 г. – 84,7%), СПГ – 6,8% (15%), уголь – 0,2% (0,3%). В 2011 г.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отмеча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физических объемов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в РК нефти сырой (на 31,8%) и углей (на 18,5%). В то же время зафиксировано снижение по такой товарной позиции как СПГ (на 15,3%), что обусловлено выполнением контракт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Динамика экспорта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 РК

	2007	2008	2009	2010	2011
Нефть сырая					
Количество, тыс. тонн	6100,1	5701,1	5949,9	5870,6	7739,6
Стоимость, млн. долл. США	3377,0	4557,4	2735,8	3550,4	6508,6
Средняя экспортная цена, долл. США/тонну	553,6	799,6	459,8	604,8	840,9
СПГ					
Количество, тыс. тонн	-	-	320,9	3422,6	2899,8
Стоимость, млн. долл. США	-	-	53,6	628,7	472,7
Средняя экспортная цена, долл. США/тонну			167,0	183,7	163,0
Уголь					
Количество, тыс. тонн	-	25,1	39,9	262,8	311,3
Стоимость, млн. долл. США	-	1641	2,2	12,1	14,6
Средняя экспортная цена, долл. США/тонну		65,4	56,3	45,9	47,0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Наряду с нефтью и продуктами ее переработки основой нашего экспорта в РК являются рыба и морепродукты. Удельный вес рыбы, рыбо-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стоимостном объеме экспорта области в РК составил в 2011 г. 1,5% (2010 г. – 1,8%). В целом за 2011 г. экспортировано 95,6 тыс. тонн рыбы, рыбо-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на 109,5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Динамика экспорта рыбы, рыбо-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РК

	2007	2008	2009	2010	2011
Количество, тыс. тонн	90,7	87,9	66,9	67,1	95,6
Стоимость, млн. долл. США	62,8	99,5	87,0	80,0	109,5
Средняя экспортная цена, долл. США/тонна	0,7	1,1	1,3	1,2	1,1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В период с 2008 по 2009 гг.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отрица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экспорта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 2010 г. объемы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увеличиваются. В 2011 г. физический объем экспорта данной товарной позици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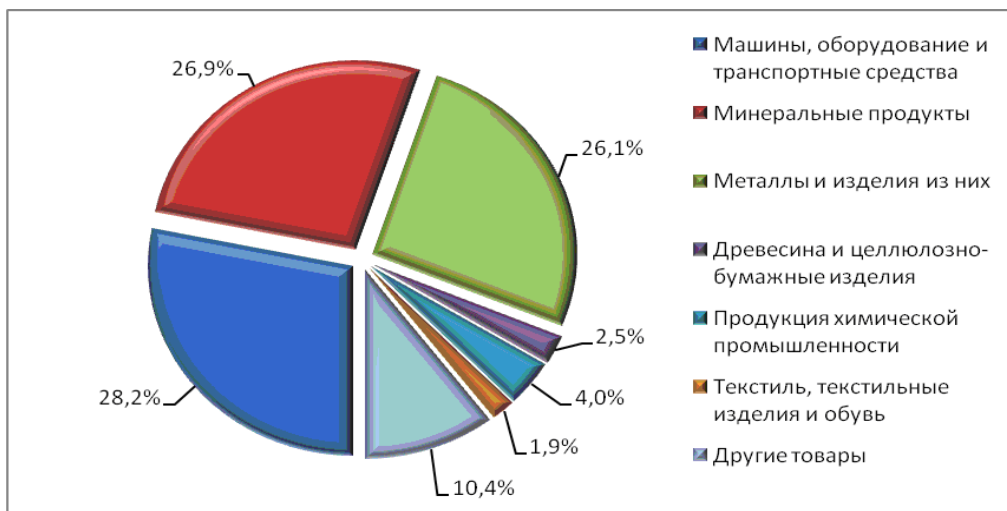
увеличился на 42,3%, стоимостной объем – на 36,9%. Структура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РК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высоким процентом продукции с низкой степенью обработки, а именно рыбы мороженой (90,4% физического объема экспорта). Увеличение экспорта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2011 г. произошло за счет роста физического объема поставок рыбы мороженой (в 1,3 раза), филе рыбы и прочего мяса рыбы (в 3,1 раза).

Еще в страну отправлено 1,3 тыс. кубометров деловой древесины, 2,7 тыс. тонн пиломатериалов.

Импорт

Динамика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из РК имеет нестаби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 частности в 2008 г. объем импорта сниз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07 г. в 9,1 раза. Резкое снижение обусловлено сокращением завоза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ов,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на реализации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С 2010 г.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увеличению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В 2011 г. объем импорта из РК составил 90,3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или 161,4% к уровню 2010 г. Структура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меняется. Основными товарными группами являются машины,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минеральные продукты, металл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продукция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варная структура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из РК в 2011 г.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Отмеч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поставок по такой товарной позиции как суда, лодки и плавуч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 1,6 тыс. долларов США в 2010 году до 15,9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в 2011 году. Также в стоимостном выражении увеличились объемы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бункерного топлива (в 2 раза), изделий из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в 1,6 раза), электрических машин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их частей (в 1,5 раза). Сокращение объемов произошло по таким товарным позициям как пластмасс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в 1,6 раза), черные металлы (на 7,2%).

*Динам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услуг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2007	2008	2009	2010	2011
Объем услуг – всего	43,9	64,3	33,8	25,2	23,4
Удельный вес в общем объеме услуг области, %	17,1	18,4	20,4	18,5	18,8
Экспорт	16,3	18,2	11,1	13,2	9,5
Импорт	27,5	46,1	22,7	12	13,9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услуг в 2011 г. составил 23,4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снижение на 7,1% к уровню 2010 г.), из них 40,7% приходится на экспорт, 59,3% – на импорт. Объем экспорта услуг в 2011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одом снизился на 28% и составил 9,5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импорта – увеличился на 15,8% и составил 13,9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Снижение экспорта услуг вызвано уменьшением объем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Доля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в экспорте услуг с РК в 2011 г. составила 99,7% и осталась на уровне 2010 г. Увеличение импорта услуг обусловлено ростом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удельный вес которых в общем объеме импорта услуг в 2011 г. составил 98% (увеличение на 17,6% в сравнении с 2010 г.). Кроме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в импорте были востребованы услуги бюро путешествий и туристских агентов дл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284 тыс. долларов США).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ится в прям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актив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начало 2009 г. в экономике области накоплено 132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инвестиций из РК. В основном это инвестиции в малый бизнес. Здесь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этнический фактор, когд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з числ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станавливают дел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 партнерам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меры та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 гостиница «Мега Палас Отель», торговый комплекс «Панора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роились они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Другой достаточно показ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кладывают в нашу угольную отрасль, несмотря на кризис, значительный капитал. В 2008 г.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Эмай Контенс Холдингс» и Ури Банк приобрели долю в 56% предприятия «Угледорскуголь». За год им добыто 412,5 тыс. тонн угля, из них реализовано за рубеж 123,7 тыс. тонн. Необходимо еще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в прошедше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г. Хабаровске. Наш регион предложил бизнесменам из Р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газифик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ТЭЦ-1, развитию Мгачинского каменноуголь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 модерниз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На начало 2012 г. в нефинансовом секторе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коплено 152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0,4%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накопленного в области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За 2011 г.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поступ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объеме 22,4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14,3% к уровню 2010 г.

Динамика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РК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2007	2008	2009	2010	2011
Накоплено инвестиций на начало года	18,0	97,1	133,8	162,2	148,5
Удельный вес в общем объеме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области на начало года, %	0,09	0,4	0,5	0,5	0,4
Поступило инвестиций за год	78,7	49,0	43,7	19,6	22,4
Изъято инвестиций за год	2,7	14,0	15,9	33,5	18,9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а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 начало 2012 г. на 2,4%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связано с ростом объемов поступивш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 14,3%) и снижением изъятых инвестиций (в 1,8 раза).

Наибольшие объем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начало 2012 г. накоплены в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е (39,6%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8,9%),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ах (11,7%), строительстве (16%).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отмечено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 13,6% и в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ах на 7,3%. Снижение в добыче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на 10,6%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е на 1,1%.

Структура поступив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2011 г.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очи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93,2%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оступивш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 долю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иходится только 6,8%.

В 2011 г.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оступивших из РК, направлен в производство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79,8%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оступивши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феру транспорта и связи (6,8%). При эт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снизились объемы инвестиц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1,8 раза, а также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поступления в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Предприятия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По данным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ргана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о действу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в 2011 г. составило 22 единицы.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а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 начало 2012 г. на 2,4%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связано с ростом объемов поступивш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 14,3%) и снижением изъятых инвестиций (в 1,8 раза). Наибольшие объем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начало 2012 г. накоплены в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е (39,6%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8,9%),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ах (11,7%), строительстве (16%).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накоп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отмечено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 13,6% и в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ах на 7,3%. Снижение в добыче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на 10,6%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е на 1,1%. Структура поступив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2011 г.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очи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93,2%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оступивш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 долю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иходится только 6,8%. В 2011 г.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оступивших из РК, направлен в производство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79,8%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оступивши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феру транспорта и связи (6,8%). При эт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 снизились объемы инвестиц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1,8 раза, а также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поступления в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Предприятия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По данным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ргана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о действу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в 2011 г. составило 22 единицы.

Действу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2007	2008	2009	2010	2011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приятий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127	137	184	180	156
– из них с корейски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19	22	23	23	22
Доля, %	15	16	12,5	12,8	14,1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lin.ru/korea> 2013.03.13.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емых проект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следующие проекты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1. Компания «Самсунг Эс энд Ти» является совладельцем ООО «Порт Углегорский». Совместно с российским соучредителем (ООО «Углегорскуголь») 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и верхн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рта. Влож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составит 50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ных работ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экспортная отгрузка угля с 800 тыс. тонн до 3 млн. тонн в год.

2. ООО «Терра-Торф» заключило контракт с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АО «СК Инкотек»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ставки в РК топливных торфяных гранул. По договорам лизинга в 2011 г. закуплена техника для добычи торфа и мобильный завод фирмы «СПиКо»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пливных брикетов, который был поставлен и смонтиров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ятс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мощность завода составляет 0,5 тонн/час или 4-5 тыс. тонн в год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торфяных брикет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анализы продукции показали, что он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экологическим нормам, и может быть экспортирована в РК.

3. ООО «Сахалин Девелопмент»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в 2010 г. был построен и сда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Грин Палас»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мпания ве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жил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бизнес-класса в центре г. Южно-

Сахалинска.

4. ОО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уголь» выполняет 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у угля в РК, добываемого на Солнцевском угольном месторождении.

5. ООО «ВостокСпецГаз»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коре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ей «Когаз». Цель создания компании «ВостокСпецГаз» – выполнение второго этапа Генеральной схемы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стоящая перед компанией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жат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автономным газоснабжением удаленных от магистраль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населенных и коммерческ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компания «Когаз» выступает в качестве консультанта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римированного газа.

6. В ноябре 2011 г.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холдинг ООО «Промышленный холод»,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9 российских (6 из них работ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5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Доли сторон в уставном капитале разделены в соотношении 50% на 50%. Холдинг реализует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омплекса по хранению и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ект включает III этапа:

I этап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холодильника на 900 тонн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хранения мороженой продукции (2012 г.).

II этап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холодильника на 1000 тонн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хранения мороже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го здания (2012 г.).

III этап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цеха (2013 г.).

Инвесторы планируют направить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орядка 20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екта успешно завершен. В феврале 2012 г.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холоди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900 т. В нем шесть камер разного температурного режима,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хранения не только рыбной, но и мясной, молочной и другой продукции. В планах холдинг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ов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ланирует оказывать не только услуги по хранению, но и по сортировке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мороже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феврале 2013 г.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лючило с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Транспорта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¹⁾. Своими подписями документ скрепили Губернатор

1)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лючило с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Транспорта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 к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Хорошавин и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Транспорта Ким Ген Чол. Как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Хорошавин,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упор на воздушный транспорт – и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более 90% объема всех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за пределы и внутр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атег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ых властей создать на базе быстроразвивающейся авиа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ие авиатрассы» еди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еревозчика.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новить парк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полет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Остро стоит и вопрос реконструкции базового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авиатрасс»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есь ново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терминала. Меморанду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ющиеся у института опыт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позволят реш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облемы и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в целом. В концепцию включены 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гио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ключающая в себя перешивку узкой коле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реконструкцию мостов и тоннелей. Результатом этого должно стать снижение себестоимости перевозок грузов и ускорение оборота вагон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выситс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дороги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задачей в деле развит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гиона явля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агистрали Селихин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 Ныш (о. Сахалин) с устройством тоннельного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через пролив Невельского и сооруже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линии Ильинский – Углегорск. Реализация этого проекта станет мощным толчком к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 также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транзит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еревозок грузов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Что касаетс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бласти, 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портах, строить пассажирские и грузовые терминалы, вводи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е суда.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и модернизацию прича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развитие порт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что позволит в требуемом объеме восстановить основные фонды. Данный Меморандум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еще один шаг вперед на пути развития

ё синмун, 2013. 02.22.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о откро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заключе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алее – СахГУ) с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РК (Куми–колледжо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ДОНГСО (г. Пусан), Пуса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лледжом туризма Чеджу и Же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онсин)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студенческие обмены (семестровые и годовые), летние языковые школы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практика за рубежом (ежегодно от 20 до 30 студентов посещают летнюю школу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К);

- участ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и семинарах (в 2011 г. в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и симпозиум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 научных сотрудника СахГУ), чтение лекций за рубежом,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 помощью зарубежных коллег, как за рубежом, так и в сахалинских вузах;

- зарубежные стажировк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 целью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2011 г. в корейских вузах прошли стажировку 2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подавателя);

- приглаш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ежегодно на кафедрах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 вузах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2–3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з РК).

В феврале 2009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права и информатики (ЮСИЭПИ) подписал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рей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Тамна на о. Чеджуд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 лучшие студенты обоих вузов 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побратиме. В СахГУ, на базе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далее – ИЭВ) работает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и в 11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учают свыше 1,5 тыс. человек. Лучшие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лучили стипендии РК. Вручение стипендий, 420 долларов США на каждый семестр, состоя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ауреатами денежной премии фонда помощи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ли семь человек. Как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Тен Чан Юн, многие годы фонд помощи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оказывает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студентам в целях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с тем, чтобы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стало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РФ и РК.

В октябре 2011 г.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ся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 учащих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ие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урочено к 20-лет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при ИЭиВ СахГУ.

Есть вс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Один из действен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этом плане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Ассоци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РАССВА). В нее наряду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бласти входит ряд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РК.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комдо (кендо)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первая женская полу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команда по фехтованию. Она будет готовиться представлять Сахалин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и Россию!) на домаш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чиной этого шага послужило бурное развитие женского комдо (кендо) в РК, с которой у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лажены очень тесные связи. В Корее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лет функционирует Же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мдо. В ряде городов созданы женские команды, лучш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ых включены в сборную страны. Ес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стречи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то выяснится, что чаще всего их оппонентами выступ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нечно, регулярными эти контакты назвать нельзя. Были здесь и периоды всплесков, были и своеобразные периоды затишья.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э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стязания являются отдельной странице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В советские времена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могли встречаться толь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НДР. Тогда в СССР для участия в товарищ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тарались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приглашен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ран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блока. Но даже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было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 мало, особенно 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Ситуация несколько изменила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1988 г.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спортивными комитетам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портивным ведомством КНДР.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пока не распался СССР, сахалинцы не раз побыва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 также приняли корейцев с ответными визитами.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1989 г.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товарищеский матч по вольной борьбе между юношескими сборными Сахалина и КНДР,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ся со счетом 4:4. Затем в мае 1990 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области, в котором вольники из КНДР завоевали шесть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обойдя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хозяев ковра. В июле 1990 г. в Холмске прошел матч по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КНДР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яз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десяти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Встреча закончилась вничью – 5:5. Тогда же в Комсомольске-на-Амуре прошел открытый чемпионат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ого совета ВДФСО профсоюзов по плаванию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контактов было у футболистов. Начались они в 1972 г., когда на предсезонных сборах в Сухуми команда мастеров «Сахалин» выиграла у молодежной сборной КНДР – 1:0. Затем возникла 17-летняя пауза. Новая встреча произошла лишь летом 1989 г., когда на остров приехал дублирующий состав армейской команды «Вольмидо» из Пхеньяна. Противостояла им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а, составленная из футболистов 1972–1973 гг. рождения. Осенью того же года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в Хабаровске и выиграла матч у юношеской сборной КНДР (1:0). С 28 апреля по 5 мая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 сыграла в Пхеньяне и Цереоне пять матчей (три победы, одна ничья и одно поражение). Проиграли наши только сборной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НДР (1:4).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20 лет, но больш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анд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НДР не встречались. Зато начались встречи с команд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апреле 1994 г. футболь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 побывала в этой стране на тренировочных сборах и провела там три товарищеских матча. В марте 1995 г. «Сахалин» вновь побыв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В 1996 г. команда мастеров «Сахалин» прекратила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прекратились и футбольные связи между нашим островом и РК. Развивались контакты сахалинских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Летом 2006 г. несколько воспитанников СДЮШОР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ы побыва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сборах, а затем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к нам прибыли юные корей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и их наставники. Обменялись визитами и стрелки. Сначала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Панокеанских игр в Корее, а затем подтвердили закономерность этого успеха в матчевой встрече,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июле 2006 г. в состав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дзюдоисты побывали в Сувоне (РК), где на базе спорти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частвовали в нескольких тренировках. Целью поездки являлось налаживание контактов.

Развив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узей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 их коллеги из РК намерены провести обменные выставки, а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 им.

А.П. Чехова показать свои спектакли на театра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РК, где сахалинские актеры проведут театральные семина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драматурги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этнологическим музеем РК по вопросам изуч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 созд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групп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рамках факультатива. Твор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А. Зражаева является ярким примером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а. Этот коллектив трижды выезжал с концертами в РК. На первых гастролях в июне 2004 г. он дал 12 концертов в гг. Сеул, Гуми, Сунчон, Ансан, Аньян, Тэгу и Кимчён. В том же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с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Сеула. В 2008 г. впервые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депутат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выступил в парламенте РК.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в июне 201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осуществил гастрольную поездку по город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ла совме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Тесное твор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рейс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удалось наладить в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ДШИ) «Этнос», в которой действует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ое открылось в 1995 г. Преподаватели эт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стоянно выезжают в РК, а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 у себя хореографов и музыкантов из РК и КНДР. Воспитанники ДШ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и в Москве и Сеуле.

В 2012 г., в год 6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проведен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Халлю Ёльпун – Теплый ветер Кореи», предложен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м объедин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В перспективе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этнологическим музеем РК по вопросам изуч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 созд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групп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рамках факультати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близость, наличие прям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и разнообрази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определ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К.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и тот факт, что на острове действуют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5 государств – Япо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ША, Королевства Нидерланд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и участии Принца Эндрю Герцога Йоркск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о открыто и почет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се он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оргов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со своей страной. Кроме того,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консульств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визы этих государств, а также шенгенскую визу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острова. Есть вс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Но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мен находится у нас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Здесь очень важно расширить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связ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ереве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в практическую плоскость. Для этого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нуж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установлению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турбизнеса обеих стран, вести регулярный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о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отенциале регионов. Один из действен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этом плане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Ассоци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РАССВА). В нее наряду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бласти входит ряд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Тем не менее, потенциал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й сфере реализуется слабо. В статистике взаим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с РК наблюдается явный дисбаланс. В течение 2011 г.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оездки в РК совершили 634 сахалинца (102,4% к уровню 2010 г.). Въездной туризм из РК развит незначительно. В 2011 г. терри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о всего 5 туристов из РК.

Динамик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токов

	2007	2008	2009	2010	2011
Въезд, чел.	192	17	30	3	5
Выезд, чел.	557	755	680	619	634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В 2007 г. было принято 192 гражданина РК по туристическим визам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В 2008–2009 гг. принято две группы дайверов. В целом, интерес туристов из РК 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является крайне слабо. В целях увелич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токов и продвиж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на внешний рынок в июне 2011 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е «Korea World Travel Fair». Кроме того, в сентябре 2011 г.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ездк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уроператоров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 РК с целью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обратимские связи

Важ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с РК вноси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лини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дной из составляющих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побратимские связи между городами и населенными пунк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К. В августе 2010 г. в г. Корсаков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ях между городами Корсак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Самчок (РК). Цель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экономике и культуре России и РК,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углубленного изу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В ноябре 2010 г.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собой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ровинцией Чеджу РК о дружб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целях установление гуманитар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в июне 2011 г. состоялся визит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ышеуказанную провинцию.

Визиты делегаций

В 2007 г. по ли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етило 85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егаций в количестве 600 человек (в 2006 г. область посетило 56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ег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из Японии – 324, КНР – 67, США – 84, РК – 21, КНДР – 19, других стран – 85. С официальными и рабочими визитами область посет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округа МИД РК Чо Бэк Сан (февраль),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С.В. Лавров (июнь),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оссии МИД Японии Муто Акира (июнь),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Австралии Роберт Дж. Тайсон (июнь),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К в РФ Ли Кью Хен (июль),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Королевства Нидерландов в РФ Ян Пауль Дирксе (июль), Председатель Японо-Росс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езидент «Токио газ» Кунио Анзай.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изитов делегаций являлось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конференциях, проводи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знакомство с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ложение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ерспективами возмо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 течение 2011 г. по ли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гион посетило 25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егаций из РК.

Динамика официальных визитов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2007	2008	2009	2010	2011
Количество делегаций	59	32	21	30	25

Источник: <http://mininvest.admsakhalin.ru/korea> 2013.03.13.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изитов делегаций явля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с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ложением област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возмо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 том числе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граждан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участия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му развитию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пособствует:

1. Наличие прям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К налажено прямое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мое авиакомпа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е Авиатрассы» и «Азиана» по маршру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еул. За 2011 г. на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еревезено 62590 пассажиров (98,8% к уровню 2010 г.), 1673 т. груза (92% к уровню 2010 г.). Прямое мо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Пусан обслуживает ОАО «Сахалинск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За 2011 г. перевезено 59 тыс. т. груза, что составляет 99% к уровню 2010 г.

2. Открыт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С июля 2007 г.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йствует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Основными функциями канцелярии является содействие гражданам РК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ыдача не эмиграционных виз,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сещения РК.

3. Проведение презент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К. Новым импульсом в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К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презент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период с 14 по 15 апреля 2010 г. в г. Сеуле,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крупн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екты ведущих отраслей региона: объектов энергетики, транспорта, переработк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сфере услуг,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Подписан ряд соглашений и протоколов о намерениях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их сферах.

4. Проведение бизнес-миссии Р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ктябре 2011 г.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бизнес-миссия Р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такие как «Когаз», «ПОСКО», «Самсунг», «Хёндэ» и другие. В ходе бизнес-миссии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состоялась биржа контактов, на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К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2012 г. проведена ответная бизнес-мисс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К,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корейскому бизнесу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к совместной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Среди них:

Лес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лесных ресурс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 создание морского биотехнопарка для разведения аквакультуры и её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Топлив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 осво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угольн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Туризм – развити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орите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К обусловлены интересами в сфере освоен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наличием проживающ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амках продолжающего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К в 2007 г. КМВЭРС проводил работ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изита делегации области на треть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Сибир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апрель 2007 г, г. Благовещенск). В рамках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стоялось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и заседания двух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по темам: «Торговля и инвестиц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В связи с реализацией област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массов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06 – 2010 годы и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 ООО «Вайда»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Санг Янг» разработало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выпуску цемента.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является подрядчиком проекта. Мощ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а – 350

тыс. т. в год.

В плане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встреч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2009 г.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только с официальными визитами посетило более 40 делегаций в количестве 3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из Японии, РК, КНР, США, Австрал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Королевства Нидерланды. На Сахалине они обсуждал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легаций приезжали в область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олодежн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менов, по лини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тогом таких визитов стали подписа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обное соглашение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заключи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ольница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линика института Ханьян, г. Сеул.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двумя учреждениями подписано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о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конференций, симпозиумов, семинаров, обмен делегациями и информацией, стажировка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иков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линике института Ханьян, оборудованной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ой. Документ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 момента его подписа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островные врачи уже начали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в РК. В 2007 г. было принято 192 гражданина РК по туристическим визам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В 2008-2009 гг. принято две группы дайверов. В целом, интерес туристов из РК 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является крайне слабо. В целях увелич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токов и продвиж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на внешний рынок в июне 2011 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е «Korea World Travel Fair». Кроме того, в сентябре 2011 г.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ездк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уроператоров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 РК с целью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НДР

В период с 8 по 15 ноября 2007 г.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о 2-ом заседани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итетом по

содейств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КНДР в г. Пхеньян (КНДР).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ивлеч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ую и строительные отрасли, лесное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области, рассмотрены проблемы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с инвестициями из КНДР и намечены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В 2007 г. рабочую силу из КНДР привлекали следу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ОО «Восток строй» – 60 человек, ООО «Долинская ПМК» – 16 человек, ИП Пак Ден Гун – 38 человек, ООО «Россэн» – 86 человек, ООО СП «СакоРенма» – 150 человек, ООО «Сахстройбизнес» – 52 человека, ООО «Сахстройцентр» – 65 человек, ООО «Чилбонсанстрой» – 150 человек, ООО СП «Чхолсан» – 5 человек, всего – 622 человека. Стороны подтверд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1. Расширить обла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КНДР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ремонту жилищных и коммунальных зданий, объекто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проч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2.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заготовке леса и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древесины (на уровне 10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год).

3.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открытия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илиал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лес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ндон Римоб» Министерства лес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НДР.

4.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сширению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и заключению контрактов межд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и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уполномочен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КНДР.

5. Привлека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из КНДР для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поставок на сахалинский рынок из КНДР портландцемента марки 400 и кабе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был проработан вопрос 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оставок цемента: при относительно равной цене поставок из Спасск-Дальнег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учетом взимания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и сборов) на корейский цемент отсутствует сертификац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оссийс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усложняет процесс поставки и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качест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требованиям, предъявляемым к цементу сахалинскими строитель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В январе–октябре 2008 года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НДР составил 81,4 тыс. долларов США. Основными статья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импорта из КНДР являются изделия из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част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машин, механизмо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изделия из резины.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готова поставлять цемент, кафель,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товары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днако они не име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ов качества, что является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КНДР внесла предложение Сахалину о поставке на остров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кимчи мелкой расфасовки, а такж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мысла кальмара и краба в 200–ми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КНДР, о дальнейшем расшир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ше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с инвестициями из КНДР.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09 г. было откры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щества «Кымрын»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го сотрудники будут содейство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обл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автодорог, а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я граждан КНДР, получивших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работающих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оставляет 9,2%. За 9 месяцев 2009 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ло 2599 человек граждан из КНДР: 2241 человек –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96 человек –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123 человека – в сельском и лесном хозяйствах; 74 человека – в сфере услуг (ремонт квартир и др.); 65 – в торговле. Они занималис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роили жилье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объекты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о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г. Невельска,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разрушительн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о время летней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привлекались для обработки рыбы.

Заключение

В июле 2007 г.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тие консуль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упрощению процедур оформления въездных виз в РК для посещ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же выехавших на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г. Ансан, Инчхон, Пусан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РК.

18 – 20 сентября 2007 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11-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выставка «Рыбная Индустрия»,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2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и сопутствующие компании из РК, Германии и России. Общая сум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на выставке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6 млн. рублей.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первый период (1990–1996 гг.) офици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Ф и РК не принес обеим странам ожидае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касается России.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четыре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ы: во-первых, нестабильная внутренняя политик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Ф, невыгод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ого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н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интенсивному проникнов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несмотря даже на то, что южнокорейцы, теснимые с япон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ынков, имели большое желание установить с Россией проч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нвестировать значительные капиталы, во-вторых, хот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возможн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лане и выгодно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н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лане ставит РФ в двусмысл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ак к КНДР, так и другим странам и в целом не мож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ному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в-третьи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доктрина РФ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раженная в документе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 отвеч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КНДР в этом документе заложен тезис о “неизбежном отдалении” от нее 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охраняющихся рычагов нашего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О РК сказано, что Россия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 ней дружественные связи, в-четвертых, как центральные, так 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РФ оставили за пределами своего внимания корейскую общин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ие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огли бы представлять интересы РФ в РК, широко привлек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апиталы в те отрас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оритетное значен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РК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довольно существенны. Прежде всего, факт у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их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значительно ослабили положение КНДР в соперничестве за преобладающее влия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У РК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сваивать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работке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спользовать

Транссибирскую магистраль для быстро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своих товаров в Европ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шестилетние итоги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казались не такими значительными для России, как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ранее. Причины такого положения глубоки, разносторонни и кроются как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так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России конца 1990-х гг. РК с ее соврем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и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оказалась для России для е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ов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высокоразвитой страной, а поэтому недоступной для равноц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Современ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К определяется двумя факторам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интересами 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а влиять на КНДР. С учетом этих факторов нетрудно предсказать,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менно кита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приоритетным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К. При таком развитии событий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еутешительны.

Для изменения ситуации Росс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принять решительные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Что касаетс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то в 1990-е гг. приоритетными объектами инвестиций РК в РФ являлись отрасли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и сырь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добыча газа и нефти, каменного угля, а также лесозаготовки и др.). Другими областями являлись судостроение и портовое хозяйство, производство товаров народ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бытовая электроника, одежда, мебель, обувь и др.), рыболовство, транспорт,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редства защит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конверсия предприяти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др.

Основными инвесторами капитала в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являлись круп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нансово-промышленные группы (ФПГ) “Daewoo”, “Samsung”, “Hundai”, “Kohar”, “Palmeko”, “Jindo”, “Kia Motors Corp.” и др. Каждая из ни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лась на своем направлении. Так, “Samsung” осуществлял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наукоемких отраслях (бытовая электроника,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и, связь). На долю фирмы “Samsung” приходилось 20% общего объема продаж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ники в России. Перспективным для “Samsung” и друг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рм являлос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Так,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ая цифровая линия связи (Россия – Япония – РК), проложенная по дну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портом Находка, японским городом Наоэтусу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ом Пусан. Россия

получила более 15 тыс. но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аналов связи. “Hundai” разработала планы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сырьевых отраслях, а “Daewoo” и “Kia Motors Corp.” и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ПГ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ежду нашими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е существует каких-либо серьез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и оба о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целом. Что каса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о их будущее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внутренн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Потенциально РК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 для РФ инвесторо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егион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разрыв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ой не столь велик, как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Вместе с тем круп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составляющим основу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легче решиться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инвестирование в Россию, чем более мелким китайским или тайваньским. Существует ре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 передов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для доведения их до этапа производства. Однак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были серьезно подорваны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в собственной стране, кроме того, он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ограничиваются нестаби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отсутствием четкой юридической баз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неразберихой и разгулом криминалитета в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когда ситуация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двусторонн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лучает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развит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иод чередования надежд и разочарований в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осле первых лет нового тысячелетия сменил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ложения России, стабилизации ее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азвитием. Сейчас его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ериод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зиций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воего прежнего влияния. Четко оценив опыт прошлого и измен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ожно вести поиск новых фор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цессе нахождения новых парадиг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точек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в вопроса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взаимн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интерес для обеих стран,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долгосрочную и всестороннюю сх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скольку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нет более прочного фундамента, чем стремление к взаимному благоприятию.

Литература

- Бок, Зи Коу. Экономика Сахалина / Бок Зи Коу, М.С. Высоков.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3.
- Визит «Хёндай» на Сахалин.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kholmsk.ru/news/?page=64&pid=2&id=104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 05. 2009].
-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овинции Чеджу.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akhalin.info/news/3527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 05. 2007].
- Догово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akhgu.ru/news/79.htm>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 01. 2010].
- Елизарьев В.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временные формы и пробл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Ю.-С.: Изд – во СахГУ, 1999.
- Мальков Э.Д.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е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1999. – № 8.
-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 М.: ГРВЛ, 1979.
- Сахалин и Корея – гран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opka.net/?pg=1&id=1852&owner=8&page=3475&ndat=&cd=&sid=c02dc88fdc3283917f1c9fb1be8425a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7.02.2009].
- Сахалин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крепл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ежим доступа: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vostokmedia.com/n53885.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01.2010].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akhalin.info/news/6024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2.02.2010].
- Симбирцева Т.М. История Кореи и России в учебниках // Восток (Oriens). – 2004. – №6 – С. 122 – 167.
- 러시아 사할린 ·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Жизнь 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Приморья. –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과 사할린주 간 교류의 실태조사

박 승 의
사할린대학교

I. 머리말

«러한 수교가 이루어진 후 양국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는 우리 두 나라 관계가 현재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양국 협력의 가일층 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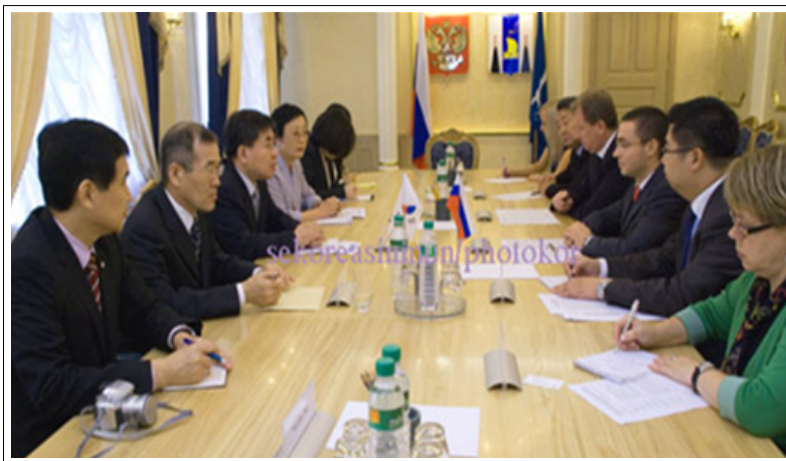
이것은 2006년8월8일 러시아 연방 푸틴대통령이 故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낸 «한국 광복 61주년 축전»의 한 대목이다.

러시아는 과거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완전 회복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재등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G-8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겠다. 또한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회복과 함께 러시아가 주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지금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최대 국정목표로 2010년까지 GDP의 2배 성장을 제시하였으며, 극동-시베리아 개발 전략도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 국가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광활한 영토에다 풍부한 자원까지 보유하고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하루 빨리 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 12월 WTO 가입타결(2012년 7월 의회 비준)과 2012년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시장 개방과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면서 러시아 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일대 전환은 199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으로 구체화되었다. 2004년 기준, 세계경제에서 APEC의 비중을 통계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전

1) “한국 광복 61주년 축전”, http://www.russian-embassy.org/korean/Poslanie_Putina001kor.htm, [검색일: 2012년 11월 18일]

세계 GDP의 약 60%, 전 세계 교역의 46%, 전 세계 인구의 45%, 전 세계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면 바로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환 배경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APEC 협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태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매년 20% 씩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는 2005년 약 250억 불을 기록하는 등, 경제교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러시아는 아태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아태 지역으로의 통합 노력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한-러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사할린주의 경제 협력 발전과 전망이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012년 6월21일 사할린주행정부에서 주행정 지도자 게.이와노브(오른쪽 중앙)부지사가 한국외교통상부 정광균(왼쪽 중앙)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비롯 한국공식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이예식기자 촬영)

II. 한러 관계 평가 및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우선 최근의 한-러 관계 현황 및 동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한-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22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하에서 다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22년의 한-러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의 정상화 추진기”(1988-1991), “우호·협력 관계의 확립기”(1992-1994),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 시대”(1994-2004),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시대”(2004-2008),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시대”(2008-현재)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한-러 양국의 국내정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상대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속에서 이루어졌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였다. 이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이 선언한 <상호 보완적이고 건설적인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또한 2005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시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

최근 양국 간 실질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양국 교역량은 약 80억 불에 달하였고, 이러한 추세이면 조만간 100억 불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년 기준 대 러시아 투자 누적액은 4.7억 불 상당이다. 최근 3차례의 정상회담, 2003년 이후 9차례의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의회, 정부, 공공 및 민간 기관간의 교류와 협력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증진 차원에서 문화, 교육, 청소년,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4년 한해에만 약 11만5천 명이 상호 방문하였다. 하지만 양국간 교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수교 이후 제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러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을 다각적으로 발전, 강화시켜야 한다. 1990년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교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와 비교할 때 한-러 경제교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예를 들면, 2005년 한-중 교역량은 1,000억 불에 달하였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적액은 311억불 수준이다.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며 서로가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극동-시베리아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구상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답은 바로 양국간 추진해야할 사업 중 핵심은 에너지협력과 철도협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 지역 이외, 공급원 다변화 차원에서 현재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5년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의 컨소시엄이 서캄차트카 유전개발 사업에 지분 40%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사할린에너지사 사이에 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08년부터 향후 20년간 사할린-2 프로젝트

2) “노대통령 방러” www.contents.archives.go.kr/.../listSubjectDescription.do?id...(검색일 2013.03.05.)

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간 150만 톤씩, 총 3,000만 톤을 수입하게 되었다. 현재 양국은 가스,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발판을 마련하고자 정부간 가스협력협정과 광물협력약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은 한국이 줄곧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송유관 건설 뿐 아니라 종착지가 될 연해주에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건설 등, 한-러 합작사업에도 한국기업들의 전향적인 진출이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간 연결사업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대륙으로 직접 이어지는 육상 수송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철도산업을 부흥시키며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남-북-러 3자간 철도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다행히도 2006년 3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러 철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 사업 진척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동 회의 결과로 의장성명서가 채택되었으며, 한-러 간에는 철도운영 양해각서, 러-북 간에는 “하산-라진”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에 관한 의정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북한측은 TKR 복원을 위한 국제 콘소시엄 구성에 동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문제만 해결된다면, 동 사업 추진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앞으로 러시아에 있어 한-러 경제협력의 중심무대는 바로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는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이 될 것이다. 우선 한-러 경제협력의 핵심 현안들이 모두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며, 에너지자원 이외에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인 러시아 천연자원(광물, 임산, 수산자원)들이 대부분 이 지역의 땅과 바다에 존재한다. 물론 이 지역은 한-러 두 나라만의 협력무대는 아닐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과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한-러 양국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둘째, 러시아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러시아는 우주항공, 광학, 첨단소재 등의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의 과학과 산업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과 국방산업, 우주항공 및 IT 분야의 우수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양국 정상회담이 합의한 후 2005년 양국 정부는 2007년까지 한국인 우주인을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양성하여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계획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에 이에 성공했다.³⁾ 이 밖에도 현재 양국은 한국형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개발⁴⁾, 원자력, 광학, 방위산업 등 우주-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경제 외에도 학술, 문화교류 등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문화, 학술의 교류가 없이 진정한 국가 관계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극동지역은 앞으로 한-러 민간교류를 발전시키는 중심무대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양국 지방정부 간, 민간단체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Ⅲ. 사할린주의 경제 상황

사할린주는 러시아의 동부(냉혹한 오호츠크해, 태평양)에 위치한 약 59개 (사할린섬, 모네론섬, 출레니섬과 56개 쿠릴섬들을 포함하여)의 섬들로 된 러시아연방에서 유일한 주이다. 사할린섬의 남북의 길이는 약 948킬로미터이고 총면적은 8만7100 평방미터이다. 총 인구는 2010년 10월 49만7900명⁵⁾. 중앙소재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1만 417킬로미터이고 그 거리를 돌파하려면 항공편으로 8시간이상, 철도편을 이용하면 일주일이 소요되고 시차는 7시간이다.

러시아 극동에서 대외경제 및 지역간 교류발전에 있어 사할린주가 리드하고 있다. 국제교류, 대외무역, 외국들과의 투자협력은 경쟁력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정부 자료⁶⁾에 따르면 2012년에 사할린주 총 생산액은 7070억 루블리에 달했다. 가스 채취량은 268억m³, 석유 및 응축량은 1400만톤, 석탄 410만톤, 생물자원은 71만 1000톤에 해당했다. 경제적 지표가 평균 이상을 유지했다. 2012년 어획량은 71만 1000톤에 달했다. 이것은 어획량이 적었던 2010년에 비해 21% 증가한 것이다.

3) 이소연(李素妍), 1978년 6월 2일/음력 4월 27일~)은 대한민국의 연구자로, 2008년 4월,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 비행 참가자(Space Flight Participant)로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11일간 체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475번째, 여성으로서는 49번째 우주인이며, 역대 3번째로 나이가 적은 여성 우주인이다. (그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우주비행사는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와 최초의 영국인 우주비행사인 헬렌 서먼 뿐이다) 그녀는 2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하여 4번째 아시아 여성 우주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세계 35번째 우주인 보유국이 되었다.

4) 나로호(KSLV-I)는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 키크터로 구성되는 2단형 발사체이며, 발사체 조립과 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흐루니체프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2년 이후 로켓 발사를 계획하였고, 2013년 1월 30일 3차 시도만에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나로호(KSLV-I)에 실어 지구 저궤도(근지점 고도300km, 원지점 고도 1,500km)에 쏘아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로 자국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가가 되었다. 나로과학위성(STSAT-2C)은 우주공간에서 타원으로 지구를 돌며 각종 우주 정보를 지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할린주 총인구 49만7900명” [사할린 새고려신문], 2011년 4월29일자.

6)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 문제 심의” [사할린 새고려신문] 2013년 3월1일자

2013년에 총 지역국민 생산은 6-7% 증가할 예정이고 석유생산량은 조금 감소할 예정이지만 2015년 주예산의 석유가스분야 수입은 총 예산의 75%가 된다. 그래서 세계 탄화수소 시장 가격 변동에 예산이 좌우되지 않도록 특별 안전예비펀드를 만들 것이다. 3차 액화천년가스공장 건설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다. 일린스크에서는 사할린 국영지방발전소-2를 건설할 계획이고 새 송전선이 설치된다. 이 공사에 주예산에서 20억 루블리가 지출될 예정이다. 사할린주정부는 가스콘크리트공장, 목재공장, 이투루프에서 <그린 호수> 요양소 건설프로젝트들, 우글레고르스크 및 샤흐초르스크 현대화작업, <자레츠노예> 기업에서 온실 건설 프로젝트를 특별히 감찰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극동지역에서 유일하게 50미터 수영장을 포함한 휴양시설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2012년 계약업무량은 699억 루블리, 투자액은 1612억 루블리이다. 사할린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은 3만2100 루블리에 달했고 평균 노임은 4만44 루블리다. 이것은 2011년에 비해 15% 증가했다. 사할린주 예산에 610억 루블리의 세금 및 기타 금액이 입수됐다. 2012년에 주예산에서 674억 루블리가 지출됐다. 우선적으로 지원한 분야는 사회분야였다. 거기에 300억 루블리(45%)가 지출됐다. 2013년에 사할린주 총 생산고는 7000억 루블리에 해당할 것이다. 2015년에는 9040억 루블리까지 증가해야 한다. 2015년에 1인당 평균 소득은 4만700 루블리, 평균 봉급은 5만9800 루블리에 달할 것이다.

IV. 사할린주와 한국간의 교류 현황과 전망

2010년 11월 11일-12일 이틀동안 한국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정상회담에서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의제 발굴 ▲비 G20회원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정상회의 계기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summit가 개최됐다.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2010년 11월 10일 러시아연방 데.메드베제브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다. 러시아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방한한 사할린주 아.호로샤원지사는 데.메드베제브 대통령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 공식면담, 러시아-한국 회담, 양국간 협정 체결식 등에 참여했다. 방한시에 사할린주정부와 한국 제주도청 간 우호경제협력협정도 체결됐다. 이 협정서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상호이익을 위해 연료에너지, 농산업, 수산업, 석유, 건설 및 운수수단 분야에서 무역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공동 산업구조 설립, 지식 및 과학기술에 대한 교환, 투자프로젝트에 상호참여 하기로 했다. 협정서에는 은행분야에서도 상호유리한 협력을 발전확대하고 투자 및 금융 기업을 상호프로젝트에 유치한데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양국 도시, 지역 간의 자매결연, 여러분야 전문가 교류에 대해서도 예견됐다. 그밖에 서울에서 사할린 및 한국 비즈니스맨들 간에 여러 협정서 및 각서

가 조인됐다. 방한시 아.호로샤원지사는 한국 대기업 대표들과도 만남을 갖고 양측 상호 협력전망을 논의했다.⁷⁾

사할린과 한국간의 경제교류에 대한 경험은 이미 어느 정도 쌓였다. 오늘 현재 사할린주 경제에 한국에서 1억3300만달러(미화)를 투자했고 한국자금이 투자된 사단법인 기업이 약 100개소가 등록됐다. 그들의 활동분야는 근본 건축·유용광물채취·무역·호텔 비즈니스·관광 등이다. 한국측은 <사할린-1, 2>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좋은 청부공사를 맡아했다. 즉 프로젝트의 하부구조건설, 석유가스운송 등이다. 2009년에 사할린주와 한국간의 상호상품유통량이 30억달러(미화)에 이르렀다. 이것은 사할린주의 총 대외무역유통액의 35%이다.

사할린측은 석유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으려 한다. 석탄프로젝트도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탄전(공칭능력 1억3000만-1억4000만 톤), 발전소(공칭능력 330메가와트) 건설, 우글레고르스크와 사호초르스크 항구개건, 철도·차 도로 등 건설을 종합적으로 내포했다. 이리하여 석탄채굴문제로부터 동력분야 협력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합작석탄발전소도 건설할 수 있다. 사할린에서 <사할린우골리>회사(주내 석탄 총 채굴량의 76% 담당), <우골니에 레수르시 사할리나>회사 (10%), <우프라블랴유샤야 우골나야 콤파니아>회사 (8%),- 이렇게 3회사가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나머지 6% 석탄은 소형의 석탄기업들이 채굴하고 있다. 사할린주 석탄채굴분야는 석탄에 대한 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외 남은 석탄은 캄차트카변강과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건축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다. 한국회사들이 사할린주지역에서 주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대상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측에서 건축조립작업량을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최근에 사할린주 건설부문이 러시아극동에서 리드하고 있다. 근본 건설작업은 석유가스채취분야, 동력, 운수, 하부구조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스미르니호구역에 시멘트공장을 또한 건설할 문제도 있다. 사할린주에는 약 360개의 건설회사·기관들(노동자 총수는 1만8000명)이 등록됐다.

다음 수산업종합체에서도, 임산업에서도 합작할 수 있다. 사할린주는 근본 태평양 연송어, 명태, 대구, 청어, 가재미, 콩치, 오징어, 게, 세우등을 채취한다. 2009년에 주는 65만5500톤 물고기를 채취했다. 연송어만 30만1000톤을 잡았다. 사할린주내에 36개의 양어장이 있다. 그들은 1년에 8억마리 새끼고기를 인공부화하고 있다.

사할린주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다. 현재 1000명이 약 360대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한국 비즈니스맨들은 사할린에 투자할 준비가 돼있는데 접촉점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

7) «주지사, 러시아 공식 대표단원으로서 방한», 새고려신문, 2010년11월12일자.

포라이다. 사할린과 한국은 이웃이다. 사할린은 한국과 좋은 운수교통, 즉 해상교통을 설치했다. 선박들이 부산에서 코르사코브항구에 입항한다. 가스탱크도 부산에서 사할린에 입항한다. 때문에 한국과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보고 있다. 해상 교통 외에 2010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서울 항공편으로 승객들을 <사트>사할린항공컴파니아가 약 2만5700명, 한국 <아시아나 에를라인즈>는 3만450명 수송했다.

2010년4월 14-15일간에 한국에서 사할린주 투자박람회(Investment Forum)가 진행됐다. 박람회를 통해 사할린주는 발전·성과 등에 대해 보다 널리 홍보하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로를 함께 찾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한국과 사할린주는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방대하다.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은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큰 <가스프롬>, <로스넬치>회사 등 대표들로 편성됐다. 그들이 <사할린-1, 2, 3-6>석유가스프로젝트들을 설명했다. 사할린주는 2009년도에 1540만톤(2008년에 비해 119,7%)의 석유를 채취하고 61억달러(미화)에 해당하는 1340만톤 석유를 외국에 수출했다. 석유 수입국은 한국(44,5%), 일본(39,8%), 중국(11,7%), 필리핀(2%), 뉴질랜드(1,4%), 타일랜드(0,6%)이다.

사할린주 서부연안지역 우글레고르스크석탄공업 프로젝트도 박람회에 제출됐다. 이 프로젝트도 한국에 필요하다. 2009년에 한국에서 이명박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사할린석탄공업 프로젝트에 이명박대통령도 관심을 가졌었다. 한국 현대회사도 역시, 한국측에서 1년에 약 400만톤 석탄을 수입할 수 있다고 했다. 투자박람회에 많은 문화프로젝트도 제출했었다.

사할린은 한국과 함께 협력할 여러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할린에는 제일 큰 한인디아스포라가 있다. 사할린주 인구수가 약 49.7900명인데 한인들이 약24.993(5,3%)명이다⁸⁾. 이 분들이 사할린과 한국간의 경제·문화 등 교류의 선두자로 되고 있다. 한인디아스포라가 사할린주의 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중소비즈니스를 한다.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할린한인들은 민족문화를 소중히 여겨 유지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다민족 공간에 본질적으로 융합되고 있다. 사할린에 100여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같이 일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눈다.

2010년 사할린주에서 17개의 한인사회단체들이 활동했다. 주정부는 그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09년에 처음 사할린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산 고향마을도 찾아갔다. 안산 고향마을 거주자들과 만남을 갖도록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적극 협조했다. 오늘 현재 사할린한인1세대들이 모국으로 영주귀국하고 있다. 그분들의 요망을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협조하고 있다. 귀국자들은 이중국적을 취득했다. 이 문제는 사할린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 보고를 해놓았는데 다행히도 한러 양국 정부의 합의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됐다. 사할린주 한인사회계의 문제들 중 하나

8) «Корейцы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새고려신문, 2012년01월20일자.

는 한국어교사부족이다. 이 모든 문제가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될 것이다.

극동은 지리적으로 한국하고 가깝고 여기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할린 주민들은 한국에 많이 갔다왔고 하니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그래서 사할린과 한국의 협력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추진해야 하는가?

첫번째, 우선적 순위로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도입,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하면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협력수준도 많이 높아질 것이다.

두번째는 농업이 전망이 있다. 농업은 임산업하고 수산업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첫째 가공, 두번째 가공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의료협력이다. 의료관광이 아니고 최첨단의 병원을 극동에 세워야 한다.

한국과 사할린 협력을 강화·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프로젝트가 서로 관심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해야 한다. 예를들면, 사할린은 석유가스를 개발하는데 한국은 그것을 가공할수 있는 석유화학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석유가스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호 유리하다. 그리고 석유가스 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러면 한국이 동포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큰 프로젝트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마련될 것이다. 한국이 동포들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 세워야된다. 한국어를 유지하는 것이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게 중요하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차세대 교육을 잘 시키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한국과 사할린 협력의 당면 과제이다.

V. 사할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무역·경제협력 지속

사할린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파견 근로자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 대다수가 건축, 상업,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교류, 무역은 별로 발전되지 않았다. 조선 기업가들이 사할린주에 시멘트, 타일, 식품 및 경공업 제품 공급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위 제품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해당한 러시아 및 국제 품질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사할린주가 그 제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연해주품질증명센터 전문가들이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장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공장 수출품질증명서 발급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 대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비회의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는 조선 측이 섬에 김치 가공, 생산 및 포장 특별설비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안, 또 양측이 공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마일 경제수역에서 계와 오

정어채취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또한 건설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전망이 크다. 지역 교류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사할린주 건축장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무자 2062명이 일했다. 그들은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정비작업, 젊은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건설, 네웰스크시 인프라 및 사회 시설 건설 작업을 했다. 그밖에 조선노무자들은 사할린 기업들을 통해 물고기가공작업도 했다. 조선 측은 앞으로 노무자들만 아니라 여러 경제분야 전문가들도 파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할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측은 2013년에도 상호유리한 무역 경제협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실무그룹 공동회의 프로토콜을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사할린주의 무역경제협력공동실무그룹은 2006년에 설립되었다. 목적은 양측간의 무역경제협력의 새 방향 조정·규정, 합작기업 조성, 사할린지역에서의 외국 노동력 채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다. 합작기업, 투자에 대한 최우선 부문은 건설, 농업, 수산업, 무역이다.

VI. 결론

한국과 러시아는 이제껏 좋은 이웃이었고 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늘 길과 바닷길을 통해 매년 수십만이 상대방 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이제 양국이 힘과 지혜를 모아 육상(철도, 도로 등)의 길까지 열게 된다면 방문자 수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서로서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에게는 러시아가 가가린으로 대표되는 우주항공 분야의 선진국이자, 톨스토이, 푸쉬킨, 차이코프스키로 대표되는 문학과 예술의 나라이며, 또 기초과학 우수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 깊이 알고 진향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한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반대로 한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 시대는 한국과 러시아에게 공히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진정한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특히 한국과 사할린을 비롯한 극동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새정부는 북방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추구하는 정책이 매우 일치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가스관 사업을 비롯하여 남북러 삼각협력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은 고려인동포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3년은 고려인 동포 150주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계

기로 극동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이 한국내에서 또 극동러시아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한국정부에서도 재외동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한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조양현. 2012. «한러_경제교류_활성화대책», 【지역이슈분석 2012-23】
- 정여천. 2009.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경제협력의 과제», 모스크바.
- «주지사, 러시아 공식 대표단원으로서 방한», 새고려신문, 2010년11월12일자.
- “사할린주 총인구 49만7900명” [사할린 새고려신문], 2011년 4월29일자.
- «Корей цы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새고려신문, 2012년01월20일자.
-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 문제 심의” [사할린 새고려신문] 2013년 3월1일자.
- “노대통령 방러».
www.contents.archives.go.kr/.../listSubjectDescription.do?id...(검색일 2013.03.05.)
- “한국 광복 61주년 축전”, http://www.russian-embassy.org/korean/Poslanie_Putina001kor.htm, [검색일: 2012년 11월 18일]
- 러시아 사할린·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Жизнь 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Приморья. -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1.
- Сахалин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крепл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ежим доступа: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vostokmedia.com/n53885.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01.2010].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достижений медици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ефор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 Хен Гу
Зам главврача ГБУЗ СОЦМП

Современная мировая медицинская наука развивается динамично, ее достижения раздвигают границы возможного и невозможного в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что еще вчера казалось безысходной ситуацией, а сегодня дает надежду на излечение. Огромные достиж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на местах, если практическ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будет шагать в ногу с наукой.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ние ряда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ая помощь государства;
- жел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стоянной эволюции роста;
- соучастие граждан.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медицина не може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отдельной взятой стране, сегодня мир иной, наука стала интеграционной, 21 век предъявляет миру свой взгляд и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Прорыв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близил весь мир,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с большим пониманием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тносится к значению мира, экологии и здоровья. Цена здоровья высока, поэтому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имеет право н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качественную, недорогую и доступ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Клиники многих стран уловили веяние времени, сегодня ими предлагается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 это стало взаимовыгодны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Ведущие клин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шли на мировой уровень, больные со всего мира приезжают на консультацию, диагностику и лечение, это говорит о больших достижениях Кореи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и практики.

Модер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Модер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ала насущным веянием времени,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желают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технологий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заболеваний.

На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очную копию наследия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 ее на тот период передов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и практики. Но жизнь требует постоя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перед, даже небольшое успокоени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отставанию. Большой ущерб в целом развитию медици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сии нанес политическ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90 годов 20 столетия, до сих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 ощутимы. Недо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дефицит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устарев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е зданий, требующих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низк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ряд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привели к снижению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что отразилось недовольством и критикой населением. Сегодня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праведливо требуют иного отношения и качества обслуживания. С повышением уровня жизни многие жители предпочитают проходить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на материке и за рубежом, особенно в Китае.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деляю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уждам медицины на местах,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медицинские центры, серьез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ривлечению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ступает нов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метно повысилась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се эти изменения приветствуются населением, но, к сожалению, медицинская наука и практика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она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чтобы быть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требуется ряд серьезны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силий:

- желание власти вывести медицину на мировой уровень;
- достаточ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обучение кадров в лучших клиниках страны и за рубежом;
- изменение оценки тру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сколько оперативно произойдут изменения в медицине в полной мере зависит от усилий властей на мест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за 2011 год, приводимы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100 000 тыс.) настоятельно требуют более оперативных решений.

Например:

	Всего заболе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88399,3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83682,4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79740,7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соо-д48)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267,1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1039,1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1110,2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e10-e14)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268,8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202,2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223,2

	Инфаркт мозга (163)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259,1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138,6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161,2

	Астма, астматический статус (i00-i99)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15,4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73,9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71,3

Болезни печени (K70-K77)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13,7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51,0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49,4

Артропатии(M00-M25)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044,8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круг	838,5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980,7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имы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подтверждают фак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у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 другой,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ально провести модернизацию медицины не на словах, а на деле. Сложнейшая задача стоит перед все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работниками Сахалина, перед властью и обществом, н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форм диктуется временем и упустить его нельзя, иб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еще большему отставанию. Опы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эволюции развит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воей страны дает нам надежду, что и мы сможем с помощью модернизации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многому учиться заново, не стесняться, не бояться трудностей, решительно брать все лучшее, что на этот момент накоплено в миро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е и практике во всем мире, а особенно соседней друж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рейские диаспоры России могут стать пионерами и проводникам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сблизить наши народ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к обою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обмену опытом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жизни людей. Корейские врачи Сахалина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 желание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благо дву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ечение многих л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трудничают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чего нельзя сказать о контактах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В конце 2012 г. и в начале 2013 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чали искать и налаживать связи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онтакты на уровне медицинских делегаций. Самое большое, что вынесли обе стороны от этих встреч – обоюдный интере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дальнейших контактов, расширение связей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медицины.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есть чему учиться и перенимать опы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нания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в лучших корейских клиниках,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актикующих врачей, но 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ольшой вклад расширению взаим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адывают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уют медицинский туризм.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 клиниках Кореи нуждаются в дальнейшем наблюдении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возникает насущная потребность совместных дальнейших усилий обеих сторон в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еобходимо обуч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в тех клиниках, где наши граждане получали лечение, это даст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в том, что не будет нарушен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роме того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могут на местах повысить сво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нания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Мировой опыт показывает, если врачи и медицинские клиники разных стран берут все, что есть лучшее в мире на этот момент в диагностике, лечении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больных, они становятся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и люди со всех стран едут туда, ибо они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лучшее.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есть чему учиться и куда стремитьс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этому помогут лучшие клиники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사할린 주 보건 개혁에서 한국 의학의 업적

구 현 구

사할린주 정기 검진센터 부원장

1. 머리말

현대 세계 의학은 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학의 업적은 환자 진료의 가능과 불가능의 한계를 넓혀주고 있다. 어제 절망적으로 보였던 것이 오늘날 치료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의료 과학의 위대한 업적은 실질적 보건의 의학과 보조를 맞추면 각 지방에서 청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좋은 조건, 즉:

- 정부의 목적 지향적인 지원;
- 의학계의 끊임없이 진화하는 성장의 욕구;
- 국민들의 동참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대적인 조건에서 의학은 개별적인 국가에서 발전하지 못한다. 오늘날 세계는 변했고 과학은 적분했으며 21세기는 세계에 자신의 견해와 관계를 표시한다. 정보기술 분야의 돌파는 전 세계를 가깝게 하고 지구상 각 사람은 평화, 환경보호와 건강을 이해하고 책임을 다한다. 건강의 가치가 높아진 이상 각 사람은 첨단 기술, 고품질, 저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 많은 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시대사조를 포착하여 오늘날 의료 서비스의 넓은 범위를 제공하는데 상호 간에 유리한 협력이 되었다. 한국의 최고 클리닉들은 세계 수준에 올라갔고 세계 온 지역에서 환자들이 상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것은 한국의 의료 과학과 실천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증명한다.

2. 사할린의 의료 근대화

사할린의 의료 근대화는 시대의 불가결의 요구가 됐고 지역 주민들은 첨단기술, 첨단 장비, 질병의 치료 및 진단 기술을 사용하여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원한다. 부적절한 용자, 부족한 의료진, 낡은 의료기들, 대수리가 필요한 의료기관들의 건물 상태, 직원들의 낮은 노임 및 기타 문제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감소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비판과 불만을 초래했다. 오늘날 사할린 주민들은 보건의 다른 태도와 서비스 품질에 정당한 요구를 제출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검진과 치료를 대륙에서나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받으려고 한다. 최근에 사할린주정부와 보건부는 지방보건의

수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의료 센터들이 건립되고, 의료 인력의 도입에 큰 주의를 분산시키고 보건에 용자를 증가했으며 새로운 현대 의료기들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노임도 증가했다. 사할린 의학 현대화를 위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사할린 의학을 세계 수준까지 높이려는 정권의 욕구;
- 충분 한 자금을 제공;
- 국내·국외의 최고 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인적훈련;
- 전문가의 직업 평가 개선.

지방 정권의 노력에 따라 보건에서 유능하게 변화가 행해진다.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2011년 통계 자료 (10,000명중)

	사할린주	극동지구	러시아 연방
총발병	88399,3	83682,4	79740,7
신생병(c00-d48)	1267,1	1039,1	1110,2
당뇨병(e10-e14)	268,8	202,2	223,2
뇌경색(163)	259,1	138,6	161,2
천식증(i100-i99)	115,4	73,9	71,3
간염(k70-k77)	113,7	51,0	49,4
관절병(m00-m25)	1044,8	838,5	980,7

대한민국의 보건 발전 진화의 경험은 사할린 주에서 근대화를 통해 보건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준다.

3. 사할린 주와 대한민국 간의 보건 협력

오랫동안 사할린 주와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문화적 관계에 협력하고, 매년 무역 매출이 증가하는데 보건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확인할 수 없다. 2012년 말-2013년 초에 사할린 보건 대표들이 의료기관 사이에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를 찾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양측 보건 대표단들도 이미 접촉한바 있다. 한국 병원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관찰 및 재검진이 필요하고, 추가 치료에 양쪽 공동의 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

사할린 의사들이 앞으로 배울 것이 많고 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의 최고 클리닉들이 도와준다고 믿는다.

Состояние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1945–2013 гг. и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Кон Но Во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 1988 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устной речи и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ной отдел образования мобилизовал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дготовил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и определил место преподавания. Это случилось через 25 лет после прекращен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1963 г. 19 лет я проработ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ла перв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школах, центрах и в институте « Самюк». И,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с 2007 г.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нимаюсь волонтерской работой по об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риобщ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3–4 поколений 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И на основании 25-летне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опыта, коротко изложу о состоян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с 1945 по 2013 гг.

1. Период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а). Мрачный период (1870–1945).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в быту и школе применялись япон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б). Период продвижения (1945–1954). Воодушевленные радостью победы, у корейцев появляется страстное желание изучать родной язык и в школах начинается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Период расцвета (1949–1954). Из-за резкого увеличения потребности в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и учеников;

г). Период упадка (1955–1963). Упадок системы коре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учительских кадров и их низк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д). Период забвения (1963–1988). В связи с переменной политики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кращается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ах Сахалина;

е). Период возрождения (1988–2001). Проведение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 1988 г,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увеличение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повышение рейтинга РК в мировом сообществе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ж). Период застоя (2002–2013). По причине недостатка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из доклада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Им Тхе Сик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 – 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09 г., г.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2. Состояние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начальный период возр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ах с 1945 г. по 1963 г. и за 25 лет забвения, к 1988 г. на Сахалине не было ни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ни учебников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и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ни уч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отдел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здал ассоциацию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пособия. В октябре 1989 г.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ли 3000 учебников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5000 прописей, 540 книг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это всё использовали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И, впервые в январе 1990 г. 10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шли 20-тидневную стажировку в г. Пхеньян (КНДР).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РК в 1990 г., с 27.05.1991г. впервые в г. Сеул, прошли 10-тидневную стажировку 28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 СССР, а в 1992–1993 учебном году из консульства г. Владивосток, Международное Радио Корея KBS, Вести Родины начали отправлять журналы и учебники,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качестве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в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уч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в раз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их, как Ёнсэ, Корё, Ханян, Конджу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институт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3. Состояние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А. Основные орг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а).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ведение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учащихся и взрослых;

б). Корейско-англи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едних школах (1 – 11 классы). Школа № 9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школа № 30 с. Луговое, школа № 2 г. Корсакова;

г).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сле уроков в школах №1 г. Долинска, № 2 г. Томари, № 1 г. Анива,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а также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г. Поронайска и т.д.

В. Частные орг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а) Анив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Надежда» (Лицензия А 537725 от 03,04,1999 г.) Учредитель: Им Хан Гю, ректор: Им Тхе Сик, директор: Кон Но Вон. (В 2013 г. закрыт Центр.)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миссионеров.

в).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спонсор-ассоциация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етские сады	4-ый	5-ый	42-ой	
-	Лебедушка	Полянка	Черемушки	Чебурашка
Период	2002-2005г.	2000- насто	2000-насто	2011-насто
работы		ящее время	ящее время	ящее время
Кол-во	121	444	382	34
-	1 уч-ль	Кон Н. В.	Кон Н. В.	Кон Н. В. Ан Х.Е.
-Всего	2чел	5чел	5чел	1
-уч-ль	Сегодня	нет	Тен Е. Х(5лет)	Кон Н. С.(6лет) Ан Х. (2года)

4.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Неотлож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решение кадрового вопроса. Несмотря на насущность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дело не продвига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где выпускаются уч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 из-за маленькой зарплаты в школы выпускники не идут на работу учителями. Есть предложение: 1. из числ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работающих в средней школе(1-11кл), 2. из учителей, желающих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оздать группу,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аве на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обеспечить местом работы. Возможны и другие варианты. Инициатором решения таких задач должна выступить РО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сами корейц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есть немало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и спонсировать проекты по сохра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Только старания и интересы мест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гут принести большую пользу в сохранен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на основе усвое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5. Заключение.

Среди 7 миллионов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30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ют совсем иную причину пере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теряют родной язык. Происходит постепенная потеря устной речи. Передач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будущему поколению мож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лько посредством языка,

И в этом деле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стремление сам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 изучению языка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и надо разными методами проводить работ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среди взросл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которых Родиной предков являетс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1945-2013년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

공 노 원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부회장
전 사할린제9학교(동양어문학교)교감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조국 금수강산을 수 놓고 있을 그리운 고국을 떠올리며 동토의 땅 러시아 사할린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을 살다가 2007년 10월 25일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인천 논현동에 영주귀국한 공노원입니다. 저는 1964년부터 2007년까지 44년간의 사할린 교직생활 중 19년간(1988년-2007년) 한국어 교육을 하였습니다. 영주귀국 후 지금까지(2007년-2013년) 6년도 공교육은 아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에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1963년 러시아에서 한국어교육이 폐지 된지 25년 후인 1988년에 한국어교육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저는 1988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지가 올해로 25년이 되어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스퍼드대 수전 로메인(Romaine)교수는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수민족들의 언어가 보존돼야 세계적 인류의 지적 자산이 보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한국어는 일제강점기의 말살정책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게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독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 온 한국어가 사할린에서는 잊혀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광복이후 오늘까지 사할린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1.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시대적 변화

가. 암흑기(1870-1945)-모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일제강점기 한국어 사용금지로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일본어 및 러시아어 사용.

나. 태동기(1945-1948) - 광복의 기쁨으로 모국어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시작

다. 전성기(1949-1954) - 한국어교육 수요 급증으로 학교수, 학생수의 증가

라. 쇠퇴기(1955-1963) - 급격한 수요팽창으로 인한 한국어 교사의 부족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로 쇠퇴

- 마. 중단기(1963-1988) - 러시아 교육정책의 변화로 학교의 한국어교육 폐지
 바. 재생기(1988-2001) - 한국 서울올림픽 개최, 한·러 수교,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설, 한국 취업 급증 등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 변화로 한국어교육 재개
 사. 침체기(2002-2013) - 교사 부족 및 실용성 미흡으로 침체
 (임태식, 사할린다문화국제학술대회, 2009. 3)

2.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고찰

(1) 암흑기(1870-1945)

1870-80년대 사할린의 한국인은 사할린 총인구 28,000명 중 조선인 67명(어부53명)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사할린으로 이주하였으며 1923년 북사할린인구는 러시아인 6,571명, 일본인 3,553명, 한국인 1,431명, 중국인 1,207명, 1931년에는 39,119명 중 한국인이 4.5%인 1,760명이었는데 1937년 1,155명이 연해주로 이주 하였으나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여 북 사할린의 한국인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 사할린은 1925년부터 증가하여 1940년대 급증하였으며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으로 1946년 광복 후 한국인은 4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동북아 문호연구 제1집, 2002. pp. 243-271 발췌)

당시의 한국어가 일상생활어로 존속되어 명맥을 유지해 오기는 했으나 1910년 일제 강점기로 한국어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러시아어, 일본어의 혼재 속에 한국어의 뜻 까지 변질되어가는 혼란의 시대로 한국어의 존폐를 예측할 수 없는 암흑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표1)는 광복이후 1963년까지 18년간 사할린 공교육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현황입니다.

<표1> 광복이후 사할린한국어교육 현황

연도	1945	1946	1947	1949	1950	1955	1958	1963
전체 학교수	27	36	39	68	72	54	41	32
초등학교	27	28	28	55	57	32	17	10
7년제 중학교	-	8	11	13	15	22	13	11
10년제 고등학교	-	-	-	-	-	-	11	11
총학생수	2,300	3,000	3,137	4,692	5,308	5,950	7,214	7,239

(공노원, 국제학술대회, 2001.8)

(2) 태동기(1945-1948)

1945년 광복의 기쁨으로 모국어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어 일상생활에서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는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져 가던 모국어가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었고 1945년부터 1963년까지 18년간은 사할린 조선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학교가 많이 설립 되었지만 조선말로 된 교과서가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46-1948년에 4-5학년용 산수, 5-6학년용 식물학, 1-2학년용 러시아어, 4학년용 지리 교과서들이 조선말로 번역 되었으나 우리글 활자가 없어서 발간하지 못하였고 8-10학년용 교과서는 번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등이 준비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열망하나로 한국어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3) 전성기(1949-1954)

1949년 이후 한국어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교사의 수급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1960년대의 교사 임용은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교사들이 사할린주로 이주하여 조선학교에서 근무했으며 1952년부터는 포로나이스크 사범전문학교에서 배출한 200여명의 한국어 교사들이 사할린주 여러 학교에서 정규교사로 활동했지만 부족한 교사를 충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어 학교와 학생 수가 증가한 양적인 전성기에 불과했습니다.

(4) 쇠퇴기(1955-1963)

양적인 전성기는 1955년 이후 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 수가 줄어드는 역기능 현상으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무자격교사들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57-1958년 5,807명의 한국인들이 소련국적을 취득하고 그 중 75%의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위해 러시아 중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한국어는 모국어이면서도 외국어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사회진입을 위한 진학 및 취업문제 등으로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를 선호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63년 5월 13일 사할린주 행정부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육활동 내적인 문제라고 하겠지만 조선학교, 조선극장, 예술단의 폐쇄 등으로 보아 소수민족의 러시아화를 위한 조치였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5) 중단기(1963-1988)

러시아의 교육정책 변화로 1963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25년간 한국어 교육이 폐지됨으로써 당시의 학교 입학 연령인 1956년 출생자(현재 58세)부터 1981년까지의 출생자(현재 33세)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1세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며 1세들의 한국어 사용도 러시아어의 혼용으로 인해 올바른 전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중단기를 제2의 암흑기라고도 하겠습니다.

(6) 재생기(1988-2001)

일제강점기에 의해 버림받은 사할린 동포들의 단절된 반세기는 우리의 말과 글을 잊게 했고 정신적인 문화유산마저 잃어버리게 한 질곡의 세월이었습니다. 모국마저 까마득히 잊어갈 즈음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제24회 올림픽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국에 대한 정서가 불꽃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부강한 모국의 모습과 159개국이 참가한 올림픽에서 당당히 4위를 한 저력에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위가 선양되고 우리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모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우리말과 글,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 되어 사할린한국어교육의 재생기를 맞이했습니다.

① 한국어 교육의 시작

1988학년도부터 사할린 주에서는 러시아 교육청 주교육부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한국어 교사 모집, 한글교과서, 건물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1963년 이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제8조선학교 자리에 제9동양어문학교가 개설되었고 필자가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총학생수 980명중 407명의 한국인학생들과 타민족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992년 3개반, 1993년 7개반, 1994년 9개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만 초창기라 교재, 자료, 지도방법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1993년 사할린TV 방송국은 필자가 작성한 <한국어로 말해요>를 20회 방영하는 등 학교가 아닌 회사, 문화센터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모국방문 기회가 확대되면서 한국어의 보급이 늘어났습니다.

1989년 세계한인 체육대회, 1990년 9월30일 한·러 수교, 1993년 사할린한국교육원개설로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해 짐으로써 교재가 준비되고 교사연수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깊은 뜻과 함께 한국 취업을 위한 수요도

급증하게 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② 교재 준비

1988년 3월 우리말 방송국과 새고려신문사에서 일하던 김화순, 김장녀, 김수만 선생님이 한글교재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0월 주교육부는 북한으로부터 3,000권의 조선어 책과 5,000권의 학습장, 540권의 아동도서를 받아 사할린주 한글교육에 사용했습니다. 1992년-1993년에는 블라디워스토크 한국영사관, KBS 사회교육방송국, 고국소식 편집부에서 보낸 잡지와 책들이 한국어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③ 한국어 교사 임용과 연수

한국어 교육이 재개 되었지만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는 1963년 이전 사범전문학교에서 양성된 50대 후반의 교사들이 대부분으로 그 수도 적은데다가 교직을 그만 둔지도 오래 되어 현직교사로 임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주 교육부는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였습니다.

1988년 주 교육부 주최로 20명의 한국어 교사 연수가 개최되어 일반 학교의 외국어 교육 방법, 현지의 한국어 교수법, 교육실습, 음악실습, 국어교육, 교과서 보급, 그 외 교육 정보 교환 등 많은 문제들을 논의 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할린 주 교육부는 먼저 4명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육 심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할린 주 한글교사 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

1990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10명의 한국어 교사가 북한 평양에서 한국어 교육 연수를 받았습니다. 1990년 9월 30일 한·러수교 이전이라 한국어교육의 교재나 교사연수가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1991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 구소련 전 지역에서 최초로 28명(사할린 최화순, 공노원)으로 구성된 한글교육자 팀이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에 대한 자료, 국어 문법 등 여러 문제들을 집중 논의했고 한국의 명승지, 여러 도시, 기업체들을 돌아보면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모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사할린한국교육원,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공주대, 국립국어연구원,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등에서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참가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7) 침체기(2002-2013)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하늘을 찌를 듯 고조 되었으나 수요가 확대 될수록 많은 역기능이 발생하여 질 높은 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후 한국어 교육이 시작될 때와 똑 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되

었습니다. 모국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다는 의욕은 많으나 정선된 교재와 교사의 확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로 시작한 한국어 교육은 2002년을 정점으로 다시 침체기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할린 한국어 교사 현황은 1963년 이전 사범전문학교에서 양성된 한국어 교사들이 대부분 영주귀국함으로써 한국어교사의 부족현상을 가져왔고 현직 한국어 교사의 평균연령도 50대 후반으로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한국어 교사 부족과 함께 질적 수준도 저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사할린 진출 부진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던 학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지방 소도시의 공교육 이외의 한글 교실 운영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사할린 경제법률정보대학 한국어과의 폐과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입학생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2년초 사할린한국어교육원은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는 3개교(유즈노사할린스크 제9학교, 루고워예 제30학교, 코르사코브 제2학교)에 불과하며 아니와, 돌린스크, 토마리에서는 방과후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고 발표함바 있습니다.(2012년5월 11일 사할린새고려신문)

3. 1988년 이후 사할린 공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현황(표2)

- 2001.8.11.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1차 국제학술회의 보고자료(공노원)-2002년 이후 보완

연도 \ 구분	연차	구역수	총학교수	총학생수	총교사수
1963			32	7,239	
1988/1989	1	8	12	463	15
1989/1990	2	9	13	438	15
1990/1991	3	10	28	800	30
1991/1992	4	11	27	1,124	48
1992/1993	5	11	37	1,998	61
1993/1994	6	11	28	1,504	30
1994/1995	7	11	22	1,277	37
1995/1996	8	9	15	1,100	24
1996/1997	9	9	15	1,105	22
1997/1998	10	9	12	1,030	23
1998/1999	11	10	12	1,018	23

1999/2000	12	8	10	1,020	25
2000/2001	13	8	11	1,017	25
2001/2002	14	8	12	1,060	22
2002/2003	15	8	11	940	20
2003/2004	16	8	11	922	17
2004/2005	17	8	11	910	15
2005/2006	18	7	10	900	13
2006/2007	19	7	10	890	12
2010/2011	23	3	3	594	6

○ 한국어 관련 정규 교육기관 현황(2011.3월 기준), 러시아와한국의소통, 국제학술회 자료, 사할린한국교육원장 박덕호)

교육기관명	교사수	학생수	주당 수업시수	비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학교	3	289	초2, 중3, 고6	제2외국어 채택교
루고워예 제30학교	1	195	1	"
코르사코브 제2학교	2	110	2	"
소 계	6	594		3교
돌린스크 제1학교	1	6	2	방과후 활동
또마리 제2학교	1	7	2	"
아니와 제1학교신규('11.9)	1	32	2	"
에트노스 예술학교	9	80	16	"
뽀로나이스크 문화학교	1	30	15	"
소 계	19	749		5교
사할린국립대	10	160	27	한국어과
합 계	29	909		

(1) 관 주도 교육

- ① 사할린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 : 학생 및 성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사할린국립종합대학경제및동양학대학한영과 한국어 교육
- ③ 중학교(1-11학년)의 한국어 교육 :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학교, 루고보예 제30학교, 코르사코브 제2학교
- ④ 방과후 활동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돌린스크 제1학교, 또마리 제2학교, 아니와 제1학교신규('11.9), 에트노스 예술학교, 뽀로나이스크 문화학교

(2) 민간 주도 교육

- ① 아니와 소망교육센터(허가번호 A537725<1999.4.3>설립자 임한규, 학장 임태식, 교

장 공노원-2913년 현재 폐교)의 기독교 선교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② 유치원 한국어 교육(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지원)

○ 취지 : 소망교육센터 부속 기관으로 모국어를 잃어가고 있는 사할린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가르치고 전통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함.

○ 현황

유치원	4번 레보두수끼	5번 뽀란까	42번 체료무슈끼	체부라슈카	계
운영 기간	2002-2005	2000-현재	2000-현재	2011-현재	
수강 인원	121	444	382	34	981명
시작 교사	공노원	공노원	공노원	안학용	2명
교사 전체	공노원외1명	전영희외4명	공노산외4명	안학용	11명
현재 교사	없음	전영희(5년)	공노산(6년)	안학용(2년)	3명

③ 사할린 3,4세대 모국방문 체험교육 지원(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연도	주관	운영기간	인원	인솔자	교육지도
2009	사할린한국어 교육협회	2009.6.10-8.8	31	공노원	임태식,공노원
2010	사할린한국어 교육협회	2010.6.10-8.10	36	공노원	임태식,공노원
2011	사할린한국어 교육협회	2011.6.2-8.25	34	공노원	임태식,공노원
2012	코르사코브제2학교한 국어반	2011.12.27-. 2012.1.7	22	교강:오소토바엘레 나베뜨로브나 교사:김길수	임태식,공노원
2012	코레이스키클럽	2012.6.4-25	39	배영희, 황은순	임태식,공노원
2012	코레이스키클럽	2012.7.2-19	21	엘레나, 공노순	임태식 공노원,황은순

④ 사할린 한국어교육 물품 지원(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연도	한복	초청		교구교재 소망교육센터	학용품 경우고교에서 초청한학생	학용품 사무용품 사하린유치원	기타용품 사할린3,4세대 입국학생	계
		인원	학용품등					
1996	701							701
1997		4	1,380					1,384
1998		4	1,437	6,605				8,046
1999				797	46			843
2000				1,000	56			1,056

2001					36			36
2002						1,826		1,826
2003						1,353	7	1,360
2004						513		513
2005						376		376
2006						1,265		1,265
2007						636	8	644
2008						1,170		1,170
2009		31				1,328	732	2,091
2010		36				570	267	873
2011		34				320	115	469
2012		82				0	374	456
계	701벌	191명	2,817	8,402점	138점	9,357점	1,503점	23,109

4. 사할린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어교사 양성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1988년 한국어교육이 재개 된 후 사할린의 한국어 교사는 대부분 1963년 이전 사범전문학교에서 양성된 교사들이 담당했으나 현재는 70대의 고령으로 퇴직했거나 영주귀국으로 전무한 상태이며 1991년 사할린국립종합대학에서 동양학과를 개설하고 그동안 한국어교사 170여명을 양성했으나(정창윤, 사할린한국교육원장, 2010년4월9일 새고려신문)현직 임용교사는 2-3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사할린교사자질향상대학에서 자부담으로 한국어교사 자격연수과정을 개설하여 6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한 사례가 있으나 이들 또한 대부분 임용을 기피하였습니다.(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지원)

이 처럼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함에도 이 심각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3만여 우리 동포들의 후손을 위한 제도적 교육기관의 개설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 확보가 시급하지만 보수와 사회적인 예우가 열악한 문제를 해결할 유인책이 없습니다.

사할린 한국어교사 양성을 위해 사할린 현지에서 한국어교육을 직접 수행한 필자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어교사 확충을 위한 대책을 제언 합니다.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이 있어도 열악한 보수로 임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직 교사 중 한국어교사 자격연수 희망자를 발굴하여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케 하고 자격증을 받은 후에는 재직학교에서 일정시수의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 연수비를 지원 단체에서 부담한다면 희망자는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재직학교나 기타 한국어 교육 시설에서 담당하는 한국어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일정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수비와 한국어 수업 수당을 지원한다면 충분한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 사할린 한인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회성 지원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후손들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할린 우리 동포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이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만 국내외의 재외동포 지원 단체가 협력하여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할린에는 60여년 전통의 새고려신문과 우리말TV 방송이 있지만 독자와 시청자의 고갈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으로 이 매체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동포들의 관심과 노력만이 사할린 한국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5. 마칩니다.

700만 해외 동포가 있지만 사할린 3만여 우리 동포들의 이주 원인은 다른 재외 동포들과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한국어 교육의 존재에 대해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국가 차원이던 민간 차원이던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이 존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할린 우리 동포들은 우리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말까지 잃어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은 말과 글이 있어야 이어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어 교사를 시급히 양성하는 일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할 지도자를 파견하는 일입니다. 또한 영주귀국으로 15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따라야 하겠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이들을 찾아오는 3,4세대들의 후손들을 위한 많은 교육프로그램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할린 곳곳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한국어 교육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그 지원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В.И.Бя.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 газета, издающая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 1 июня 1949 г. Она была создана согласн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ВКП(б). Издавалась вначале в Хабаровске, зат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переех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азета трижды меняла свое название. Вначале это был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в 1961 г. газета стала называться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после перестройки с 1991г. и по сей день газета именуется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1 июня 1949 г. в г. Хабаровске вышел в свет перв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Чосон нодондя»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Вот что говорится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бюр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йкома ВКП (б) от 9 мая 1949г. (протокол № 53 параграф 6):

«О газете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ЦК ВКП (б) о организации газе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юро крайкома ВКП(б) постановляет:

1. Организовать в 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газету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размером половинного формата «Правды»,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тиражом 7000 экземпляров.

2. Предложить редактору газеты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т. Ким А.К. начать выпуск газеты с 1 июня 1949 года.

3. Обязать крайсоюзпечать /т.Говзман/ до 1 июня 1949 года провести подписку на газету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в количестве 2800 экземпля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700 экземпляров 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 1500 экземпляров.

4. Обязать Хабаровский горисполком /т.Лемехова/ до 15 июня с.г. предоставить семь квартир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вновь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и к 20 мая 1949 года предоставить служебное помещ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ю и типографию по улице Ким–Ючена.» (1)

В сентябре 1950 г. редакция переех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ее официально пер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ому обкому партии.

Читательской аудиторией газеты стали, во–первых,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их история з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чалась еще 1860–х гг.,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морья/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 1937 г., в то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их было немного, в основном, приезжали на работу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во–вторых,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бывшие по японской вербовке или мобилизации в 1930–1940 гг., а также корейцы, приехавшие по вербовке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работы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Хабаровский,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 после августа 1945 г.

Через два года после переезда редак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ираж газеты увеличился до 12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Такой высокий тираж объяснялся тем, что в период 1946–1949 гг.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а было завезено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0 891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и 5174 человека членов семе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1952 года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меется 5410 рабочих и 4107 членов семей... . Кроме того около 3000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работают в лесной, бумажной и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 да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 годы «в штате редакции, размещавшейся по ул. Ленина, 222, насчитывалось 32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3 литсотрудника, 4 переводчика и 4 собственн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Существовало 5 отдело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школьный, культуры и быта, писем и информации.» (3. с.195)

Штат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оставляли получившие совет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материковские»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е) корейцы. Они были воспитаны в духе советских идей, хорошо владели литературны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ервых три редактора (Ким А.К., Хан И.А., Ким К.К.) были партий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И только в 1989 г. редакцию возглавил м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Сун Дюн Мо (Андрей Степанович).

Редакция заботилась о пополнении кадров, и в середине 50–х гг. на работу в

редакцию принимают пер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из числа мес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рошо владеющих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ью. Затем ряды сотрудников редакции стали пополнять выпускники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чилища.

В те времена газета должна была играть роль коллективного пропагандиста, агитатора и организатора. «Ленины гилло», являясь орган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кома КПСС, конечно же, должна была стать проводником идей партии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ар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препятствия к возрождению и укреплению демократии среди освобожденных от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корейских масс на основе свободы слова и уважения к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м правам». Такой тезис выдвигался и воплощался в жизнь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ом фронте, предопределяя и деятельность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днак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водилась и линия на усиление цензуры во всей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истема контроля печат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дполагала регулирование тематики публикаций, характера их содержания, состава автор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При этом не допускалась никакая публичная критика 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и проводимых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Работники печати и радио испытывали большую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ерегрузку и даже постоянный страх перед тем, что то или иное обращенное к массам публичное слово будет расценено как противоречащее офици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и.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риходилось с особой тщательностью и бдительностью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материал, «вымарывать» из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излишнее свободолобие или, наоборот, усиливать идейно–воспитательные аспекты.» (З. с.195–196)

Но являясь пропагандистом и агитатором, газета сыграла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в начале 60–х гг. стали закрывать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Стоял вопрос и о закрытии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он был поднят на уровне секретар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кома партии, но Москва (ЦК ВКП/б) не дала добро, считая, что редакция должна усилить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работ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Этот факт подтверждает историк–исследователь А. Кузин, ссылаясь на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В марте 1963 г. вносилось предложение в ЦК КПСС об упразднении газеты в связи с «неоправданно большими расходами» на ее содержание». (З. С. 196.)

Так как вплоть до перестройки корейцев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ни на экранах телевизоров, ни на страницах русскоязычной прессы, услышать о них по русскоязычному радио, то газета и передачи 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единственными СМИ,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о заслугам воздать должное трудолюбию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корейцев. Героями публикаций газеты становились люд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стойные уважения.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старейшего сотрудника редакции Ким Ен Бин (Елены Борисовны), начавшей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едакции в далеком 1955 г., в 50–60–ые гг. в редакцию ежедневно приходило по 6–7 писем от читателей.

С 14 мая 1961 г. газета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Ленины гилло).

В 80–ые гг. в редакции существовали следующие отделы: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отдел, отдел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тдел информаци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тдел культуры, отдел писем и рабселькоров. Штат редакции состоял из 29 человек.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использовал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жанры публицистики: репортаж,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я, зарисовка, интервью, фельетон. При редакции существовала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ая сеть внештатн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которые часто присылали вести с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были собственные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в районах, где проживало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Олимпиада–88 в Сеуле заставила говорить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чуд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выходц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и информации о жизни на Родине, где у многих остались родител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жены и дет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ка на Олимпиаде побывал зам.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Сун Дюн Мо. В 1988–1989 гг. он в 15 номерах газеты публикует цикл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под названием «Близкая, но далекая Корея», «Еще раз посетив Корею», где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 сво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ки в Южную Корею. Эти заметки пользовались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х перечитывали, передавали с рук на руки.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еще до установл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установлены 30 сентября 1990 г.)

Тогда же (в конце 80–х–начале 90–х гг., после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ся самый настоящий бум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мые лучши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ботали в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Так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вечерних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ри школах и библиотеках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Были открыты курс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 при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Занят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 1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кончившие эти курсы получили документ об окончании курс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Хангук Ильбо редакция организовала классы-факультатив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СОШ № 9, гимназия № 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рв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факультативного класса стала Ли Сун (Ли Бок Сун), работавшая в то время старшим корректором, а в дальнейшем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газеты.

Также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Бок Дян Не, Ким Су Ман, Бя Ен Сук)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работке и написании первого на Сахалине школьного учебника-буквар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конце 80-х- начале 90-х гг. пользовались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убликуемые в газете. Ведь учебников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 не хватало. Учебным материалом вначале служили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из КНДР (1989-1990 гг.), затем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бные материалы (с 1992 г.). Публиковались и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е разговорники, составленные сотрудниками редак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Ли Хан Фе.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едакция возобновила публикацию уро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как ни странно оказалис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Особенно читателями с материка.

30 января 1990 г. вышел в свет 10 000-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в то время еще называвшейся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Это был своего рода спецвыпуск. В статье на первой полосе, посвященной этому событию, писалось, что газету читают учителя и ученики, рабочие и крестьяне, служащие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Ее получают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но и Москвы, Ленинграда, Калинин, Орла, Рязани, Тынды,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Джамбул),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Киргизии (Фрунзе), Кавказа (Орджоникидзе) и др. Такж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газету, конечно же, знают в КНДР,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итае и Японии, а также в ГДР, Канаде и США. Кстати, на 2-ой полос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отрывки писем от жителей Фрунзе, Джамбула, ГДР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асногор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ронайск).

В стать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30 лет впервые в этом (1990) году подписка выросла сразу на 600 экземпляров и на 1 января 1990 г. составила 4400 экземпляров. Из них 4362 экземпляра ш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 подписке, остальные 38 экземпляров шли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через киоски Союзпечати.

Согласно данной статье на тот момент четверо сотрудников газеты являлись Заслуже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человек являлись членами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этом же номере сообщается о том, что редакция с согласия обла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хотела бы сменить название и узнать мнение читателей на этот сч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1 января 1991 г. газета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З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азета сталкивалась со множеством препятствий и сложностей. *«С разрушением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и партий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устоев бывшего СССР разрушились и финансовые основы деятельност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4. с.77) 2. Не стала исключением и газета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В условиях дальнейшей переориентировки на рыночные отношения, очень остро встал вопрос о выживании газеты.

С 1 января 1992 г. газета официально перестает быть орган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кома партии и станови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газет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содержания газеты полностью на себя берет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Уже в начале 90-х годов многие журналисты-мужчины покинули редакцию, т.к. хоро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зволяло им устроиться на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ун Дюн Мо ищет поддержк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мочь газете в техническом переоснащении согласилось издательство Хангук Ильбо, которая издавала несколько популярных в Корее газет и журналов. В 1991 г. с февраля по март два месяца четверо сотруднико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Хангук Ильбо, где осваивают совершенно новую для себя технику – компьютеры, печатную машину, знакомятся с процессом создания газеты в Корее.

В июне 1991 г. редакция получает в дар от Хангук Ильбо два новых компьютера,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металлических форм и печатную машину (формат А-2). С августа 1991 г. по 2004 г. у редакции была своя типография, но в связи с

окончательной поломкой печатной машины, печатание газеты стало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типографии.

Уже в 1991 г. частота выхода газеты падает с 5 до 3 раз в неделю. С начала 1992 г. газета увеличивает количество полос с 4 до 8, но при этом сокращает периодичность до 2 раз в неделю. С января 1993 года газета начинает выходить по-прежнему на 8 полосах, но уже только 1 раз в неделю, и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охраняется по сей день.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как с техническими, а, впоследствии, с финансов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Самые тяжелые финансовые затруднения пришлось решать Ан Чун Де (Наталья Максимовна), бывшей редактором с 1994 г. по 2006 год. Особенно тяжелыми были, как и у всех 90-е годы. Остро стоял вопрос о закрытии газеты. И тогда газету поддержали читатели, присылая небольшие финансов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в адрес редакции, 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исали письма поддержки в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 встречах с первы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газеты.

Сегодня газета освещает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области, регулярно публикует материал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а также знакомит с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и обычаями Кореи. Так как целевой читательской аудиторией газеты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1,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ладеющие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ью, в газете освещаются все события и проблемы, касающиес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Это вопросы репатриации,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возрождения, сохран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 развалом СССР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ступае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этап. Специф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также во многом были обусловлены установление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1990 г., и активизаци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ССР (а в дальнейшем – России),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и репатриации на рубеже 1980-х и 1990 гг.

Газета сыграла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в поиске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С конца 80-ых гг.,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начале 90-х гг. в газете постоянно публикуются объявления о розыск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иходят письма с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я, Японии

и даже США. Вся эта работа проводилась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снове. И даже сегодня (уже изредка) такие объявления продолжают поступать. Так, к примеру, два года назад поступило в редакцию обращение жителя Южной Кореи с просьбой найт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два дня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в редакцию пришел двоюродный брат южнокорейца. Эта история была напечатана в газет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 редакцию обрат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просьбой помочь отыска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Корее. Эта просьба была выполнена, журналист помог найт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писал их встречи в Корее и на Сахалине. И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немало.

Трагедии судеб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одна из постоянных тем газеты.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газеты стали первыми журналистами, расследовавшие (1991 г.) нашумевшие дела об убийстве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в августе 1945 г. Благодаря журналисту Бя Ен Сук, жительниц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Ген Сун смогла узнать о том, какая участь постигла его отца. Так были раскрыты архивы КГБ, повествующие о трагедии в Камисиска (Леонидово). Она же (Бя Ен Сук) первая поведала о том, как японцами были убиты жители с. Мидзухо (Пожарское) – 27 невинных корейцев, включая женщин и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Эту историю впоследствии описал в своей книге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историк-краевед Константин Гапоненко.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читателей пользуются интервью-зарисовк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аспоры, достигших успехов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Очень много публикаций газеты посвящены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апреле 2010 г.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внима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Газета подготовила спецвыпуск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бизнес-форума, гд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ли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газета придает межэтн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вопросам толерантности.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времен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азета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ам возрождения,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амобы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 1995 г.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газете выходит «Школьная страница». Читатели с интересом читали первые «творения» начинающих изучать язык, которые публиковались под

рубрико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наша надежда и гордость».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полосе печатались сказки, рассказы,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занимательные головоломки, ребусы, словом, все то, что могло бы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юного читателя.

В 2011 г. произошло своего рода новое возрождение «Школьной страницы».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ется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конкурс кроссвордов, осуществляем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С 1992 г. в течение 15 лет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ла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газеты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Мугунхва». Этот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лся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и читателей газеты. Определялись лучшие в номинациях «стихотворение», «очерк» и «рассказ».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ли в конкурсе школь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карова, Красногорска, Поронайска и т. д.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было немало студентов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Хабаров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права и информатики.

В 2006 г. редакция впервые провела 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백일장)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этот язык. Собравшись в одном зал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чинение писало около 60 человек. Эта традиция была продолжена и в марте 2009 г. в СахГУ, где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бекильдан)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60–летию газеты.

В 1995 г. в газете появилась полос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ново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Кореи. Здесь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как о культурном наследии Северной, так и Южной Кореи. Русскоязычная полос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ыходит еженедельно. С июня 2008 г. начат выпуск еще одной полос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основном,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а также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Полоса выходи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ведет и общественно–организато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июле 1990 г.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иезда на Сахалин большой групп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евц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ерв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конце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была телекомпания МВС.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езда, подготовки конце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лежала на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Это была сенсация, прилетели два

чартера с Хабаров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сюда съехались корейцы со всех район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 больше двадца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без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КГБ) взвился национальный флаг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десь же состоялись незабываемые встречи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Все это было до подписа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В мае 2009 г., в преддверии 60-летия газеты, редакцие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Фестивальный тур-семинар «Корея к тебе на дом». Группа самульнор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к Дин Хо провела четыре семинара по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е и искусству для учащихся и жителей районов и дала показательные концерты в Томари, Красногорске, Углегорске и Шахтерске.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авки черно-белой фотографии «Песни печали и радости», прошедшей в стен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Авторами работ стали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Ли Е Сик и друг газеты – японский журналист Катаяма Мичио. Приуроченная к 60-летию газеты, выстав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ентябре 2009 г.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Останкинские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Гость Сахалина – кореевед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Сеул).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о вопросу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с участием А. Ланьк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ИД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В.Носов), Комитета п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вязя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и (С.Пономарев), члено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нации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диаспоры.

В августе 2010 г.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иезда на Сахалин известн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Анатолия Ким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 Сахалинской писате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едакция организовала читатель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Корсако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библиотеках области, 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иаспор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литераторо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Встреча с личностью. Писатель Анатолий Ким. Останкинские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2010».

В 2011 г.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выиграла грант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организовала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Жизнь в Коре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вмест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щест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Кореи и Японии) отправилось жить более 4000 чел.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Ли Е Сик побывал в гг. Ансан, Инчхон, Пхадю, Осан, Хвас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де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ют уехавшие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оторепортажи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с декабря 2011 г. по февраль 2012 г.

С целью привлечения юных авторов и новых читателей в апреле 2012 г. редакция организывает ту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 г. Анива.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такие туры станут постоянными, но пока что из-за финансовых и другого рода трудностей, проведение проект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Кроме того, газета я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спонсором проектов детского лагеря «Чонги» (организатор –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луб: «летняя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школа Чонги–2010» совместно с волонтерским отрядом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летняя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деревня Чонги–2011» совместно с Ю–Сах. отделением «Единой России», «ЛЭШ Чонги–2012 в Корею» совместно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ддержк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За свою более чем 6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газета имеет разные награды.

В мае 1974 г. в преддверии 25–летия со дня выхода в свет первого номера газеты за плодотворную работу по воспитанию трудящихся, мобилизации их на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ч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дакция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СФСР.

В 1999 г. коллектив газеты награжден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09 г. редакции была вручена Почетная грамо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За широкое освещ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2010 г. газета удостоена Диплома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статистики, редакция также отмечен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и т.д.

Газета являлась участни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Пресса–2007», «Пресса–2008». В 2007 г. газета была отмечена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Золотой фонд прессы», именных дипломов Знака отличия удостоились пяте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шей редакции: Ан Чун Де, Ли Е Сик, Сук Хе Ген, Окад Се Бок,

Син Ден Дя.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е раз являлись лауреатами и дипломан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 А. П. Чехова на лучшую журналистскую работу года. Среди них очень знакомые читателям имена Ким Цын Сон, Ким Сен Сук, Цой Дон Гир, Ан Чун Де, Пак Хе До, Ким Юрий Матвеевич, Бя Ен Сук, Бок Дян Не, Ким Бон Ген, Ким Кирилл Васильевич, Ли Хан Фё, Огай Нам Чер, Тян Юн Ги, Хан Гым Себ, Ин Хе Ин, Чо Сан Чан, Сун Дюн Мо, Ли Е Сик, Бя В.И. и мн. др.

Друзьями газеты являются люд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члены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 писатели–поэты Роман Хе, Сергей Ян, поэт–песенник Чан Тэ Хо, члены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Дю Мен Су и Де Сон Ен. Газета постоянно освещает их творчество. В 2010–2011 гг. вышло в свет несколько выпусков литературной страниц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звучие», автором–составителем которой стал поэт Роман Хе. Кстати, первые стихи Романа Х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еще в 60–е гг., когда ему было 9 лет.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тираж газеты составляет 1300 экз.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читателей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ехало на ПМЖ в Корею.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си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читателей, пользующихся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ами. Интернет–пользователи могут читать материалы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 коре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Сегодня редакц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отношения с газетой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РУСКОР, газетой «Сеульский вестник».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ом «Ариран.ру», сайтом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www.mobsk, получены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убликацию материалов известного историка–востоковеда А.Н.Ланькова, собствен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Олега Кирьянова.

С начала 90–х гг. и по сей день основ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газеты являются финансовые и проблема кадров, которые очень взаимосвязаны.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учредителями газеты является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выделен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выпуск газеты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ет, редакция участвует в аукцио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азов по размещению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газете. В 2011 г. газета вновь оказалась на грани закрытия. В августе редакция задолжала типографии за 8 месяцев

печатания газеты, имелась трехмесячна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сотрудникам редакции. И вновь на помощь газете пришли ее читатели, которые вносили пожертвования на счета редакции. Финансовый вопрос остро стоит и сегодня. Доходы от рекламы и плата за выполнение госзаказа на размещ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е покрывают расходов редакции по выпуску газет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циональная газета продолжала существовать необходи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оддержка читателей.

Надо отметить, газета была сохранена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сотрудников редакцион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получая мизерную зарплату, котора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два раза (а то и больше) меньше средней зарплаты по области, ни разу не сорвали выпуск газеты. Все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читателями газета держит.

В 2014 г. газете должно исполниться 65 лет. Сможет ли она его встретить – это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от редакции, а от той поддержки, что смогут оказ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чита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В заключение, говоря о роли и значен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е могу не согласиться с выводами, приведенными в дипломной работе выпускницы ДВФГУ факультета журналистики Ким Де Сун.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ет дли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За почти полтора века пребыва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е их жизненный уклад, привычки, менталитет, язык и гражданско-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менялись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добны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в пост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разнородная по своему составу и гражданству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ступила с целым рядом нерешенных проблем, связанных с:

- возвращением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повторным разделением семей, созданных уже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исторической истины и требованиями к Япони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моральный и материальный ущерб,*
- утрат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 разрывом связи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 межэтниче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и конфликтами внутри диаспоры,*
- сохране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языка.*

К началу 1990-х гг. закрытая для СМИ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корейская» тема стала

все чаще находить отра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 в свете перестроечной политики. Однако с последовавшим распадом СССР и всесторонн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 жизни области интерес областных газет к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цев ограничивался лишь самыми грандиозными и массовыми событиями. И постепенно информация на данную тему в общей массе сахалинских СМИ свелась к минимуму.

На этом фоне особо выделялась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мевшая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ной подход к освещению проблем и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Тем не менее, переход к рыноч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ынудил коллектив газеты, изначально издававшей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рейти к двуязычию. Подобная мера, обусловленная возникше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 расширении читательской аудитории, уже сама по себе являлась ярчайшим индикатором одной из самых серьезных проблем диаспоры – утр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овыми поколениям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еред редакцией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ставала задача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ить газету, но 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читывая массовый отток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а также уменьш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читателей по естественным причинам, основной аудиторией газеты скоро стан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годняшней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не владеющих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ью и утративших национальную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ю.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в целях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дальнейшая популя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стоянная работа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у читателей целост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значении освещаемых вопросов обретают жизненн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И если первое успешн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газетой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многих лет посредством публикуемых уроков и проводимых конкурсов сочинений, то второе требу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дготовки появившихся журналистских кадров и более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к подаче информ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самих журналистов». (4)

Литература

1. Из архива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2. Из справки о состоянии жилищно-бытов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занятых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а. ГАСО. Ф.53.

Оп.7.. Д.105. Л.27–34.

3. А.Т.Кузин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нига третья.
4. А.Т.Кузин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вторая.
5. Проблематика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СМИ на примере анализа материалов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раздел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выпускницы факультета журналистики ДВФГУ Ким Де Сун. 2012 г.
6. Газеты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1961–1990 гг.
7.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1991 г. – 2013 гг.

새고려신문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Russia, Yuzhno-Sakhalinsk, Chehov str. 37
(4242)43-59-80

Tel/fax

E-mail:skr@sakhalin.ru

<http://www.609studio.com>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새고려신문 연혁과 중요사업

- 1949년-〈조선노동자〉신문창간(1949.6.1 하바롭스크 소재, 하바롭스크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 첫 부수 - 7000부 (배포지역 -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연해주)
- 1950년 9월-사할린으로 이전. (사할린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
- 1961년-〈레닌의 길로〉 개칭
- 1974년-러시아 연방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영예표창장으로 표창.
- 1988년-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로 하여 서울 올림픽 후 한국발전상 소개 시작.
- 1989년 주내학교 소학반 학생들을 위한 1-2학년용 한국어교과서 발행.
- 1989년 사할린 최초 한글학습소를 조직하여 사원 다수가 퇴근 후 한국어교사 활동을 하였음.

• 1990년 7월 신문사의 발기로 사상 처음 한국인기가수 사할린위문공연 실현. 가수·음악가 40여명이 참가한 2일간 공연에 근 3만명의 관객들이 모였는데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동포들은 전세기로 왔었다.

이때 사할린상공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게양됐다. KGB의 허락도 없이 신문사가 진적 책임을 지고 태극기를 사할린상공 높이 게양했다. 반세기만에 태극기를 보고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 1990년-소련공산당 사할린주위원회 기관지에서 동포신문으로 독립.
- 1991년-〈새고려신문〉 개칭.

한국일보사 지원(컴퓨터, 인쇄기계 등 장비 기증) 하에 인쇄소 조직, 신문사내 한글

학교 조직(2학년, 학생수 30명).

- 1992년-신문지상에 한글학습시간 게재 시작.
- 1993년부터 96년까지 고교생들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
- 1993년부터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자량과 보람을 일깨울 목적으로 한국통일부의 지원하에 <무궁화>문학콩쿨을 시작하여 15회 실시.
- 1994년 신문지상에 한글학습조직.
- 1995년 1월부터 학생면과 한국을 소개하는 러어판을 만들고 있다.
- 2006년 10월 처음으로 <고국소식>지의 후원하에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백일장(글짓기대회) 개최.
- 2007년 2월 12일 모스크바 전러시아 출판물전시회에서 사할린 새고려신문이 <2007년 출판물 황금폰드> 훈공기장으로 포상. 감사장으로 사원 5명(안춘대, 석혜경, 이예식, 장세복, 신정자)도 표창되었음.
- 2008년 6월, 사할린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러어판 제작.
- 2009년 3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고려신문 창간 6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제2회 사할린백일장(글짓기대회) 개최.
- 2009년 5월 새고려신문 창간 6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사할린 지방들(코르사코브, 토마리,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샬호츠히르스크, 마카로브)에서 “한국이 집으로 온다” 축제-세미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진호 파견강사와 그의 제자들의 순회공연·세미나) 개최.
- 2009년 5월 - 새고려신문 창간 6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사할린한인모습 주제로 <슬픔과 기쁨의 노래>사진전 (이예식 사진기자· 카타야마 미치오 일본 사진작가의 흑백 사진) 개최
- 2009년 5월 사할린주두마(주의회) 표창장으로 포상.
- 2009년 9월 - 아.란코브 한국 국민대학교 교수 사할린에 초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사할린 주정부 관계자, 한인단체 대표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좌담회 개최
- 2010년 8월 - 아나톨리 김 러시아 유명 작가 사할린에 초대, <인물과의 만남>프로젝트 추진 (고르노사위드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독자들과의 만남,
- 2011년 8월 - 새고려신문 살리기 운동 시작.
- 2011년 10월부터 - 학생면 신설 (사할린한국교육원 협조)
- 2011년 11월-2012년 1월 - 한국 언론진흥재단 후원하에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의 생활 모습>취재기획 추진(새고려신문사 이예식 사진자 안산, 인천, 파주, 오산 등 영주귀국자 생활 모습 취재 신문에 산진레포타주 게재)
- 2012년4월부 - 새고려신문 페스티벌 투어 개최(지방을 다니며 새고려신문 소개, 공

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새 구독자와 통신원 유치)

새고려신문사 주요 현황

새고려신문은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사할린 주 사회정치신문이며 주간지로 8면 타블로이드판(1년에 52호, 총 8면중에서6면은 한글, 2면은 러시아어로 구성)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의 유일한 한글매체로 사할린에서 사멸되어가던 한민족문화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다. 새고려신문이 없었더라면(조선학교가 폐교되었으니) 사할린에 한글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문이 여러 차례의 위기 속에서 단 한번도 폐간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늘 본사사원들의 일차적 과업은 본 신문을 계속 유지하여 차세대에 돌려주는 것이다. 신문은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 고취를 위해 한국요리, 한국관광 등 한국관련 소식과 코리아넷의 재외동포소식 등을 주기적으로 게재한다. 특히 11.9월부터 한글 보급 확대 및 독자층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 면을 신설하고, 주요기사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병기하여 발행, 양질의 신문기사 게재를 통한 독자층 확보 및 광고 확대 등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은 사할린한인들의 영주귀국문제, 일본정부의 전후 보상문제, 친지재회문제, 민족의 도덕·양심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기사화하고 있다. 신문은 사할린 정치·경제·사회 정보, 사할린한인들의 사회·문화생활 소식을 전달하고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특히 한글과 한민족 전통 문화 유지·보급 문제에 주목을 돌리고 있다. 새고려신문은 조국의 발전 새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며 사할린동포들이 고국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의 긍지, 자존심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사할린 한민족지 기사들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다.¹⁾ 인터넷 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다만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신문사 운영에 아무 도움이 없다.

새고려신문은 러시아 사할린 매스미디어에서 한국어, 한민족문화 유지보급에 나선 민족지로 인정되고 본 신문 기자들은 위신 높은 사할린 주 기자동맹 상으로 여러 번 시상되었다.

구독자 계층: 1, 2 세대와 현재 한글을 배우는 젊은이들. 3-4세대를 독자로 하기 위해 러시아어면수를 늘리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러시아어면 두개를 제작(한글판 6개). 한 면에는 사할린,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소식을 게재하며, 다른 면은 고국을 소개하고 있다.

재정상태: 1990년 1월부터 사할린정부의 재정상 지원이 없어진 후 사원들은 최하의 월급을 받는 어려운 조건하에서 신문발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신문사의 운영은 광고수

1)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http://www.609studio.com>, 코리아넷, 아리랑. 루

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한글의 불모지였던 러시아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적는데다가 영주귀국확대사업으로 현재 한국에 4000여명의 1세대들이 귀국금년에 주법령에 따라 주정부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문사는 폐간될 정도로 경연 난에 빠졌다. 그럼에도 당 신문사는 사할린지역에서 한글과 한민족의 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긍심 아래 새고려신문을 살리기 위한 노력중이며 특히 11. 10월부터 학생 면을 신설하고 기사에 한·러 시아어로 병행 서술 등 독자층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1년 8월에 또다시 신문 폐쇄위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사할린 지역뿐 아니라 전 러시아, 한국에서도 당 신문사를 살리기 위해 독자들의 성금 기탁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계속되는 경영난속에서 사할린 유일의 한글신문이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사할린 지원자, 재외동포재단 등 한국 측의 관심과 후원 덕분이다. 신문사 직원들은 민족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 한국 정부의 지원, 민간단체·동포들의 관심 없이는 신문 유지가 여간 어렵지 않다.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 связующий мост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Ян Сергей

Сахалинская писа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единственны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России, Сахалин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вязываю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личие на Сахалине самой крупно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в составе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на острове в течение многих десятилет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здало атмосферу, в которой корейцы н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чуждой россиянам культуры. Возникли и укорени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связи. Это касается и браков между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тавшими стали обыденным явлением,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пристрастий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органично вошли в быт, и пользуются спросом у населения), и других сторон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Примером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являетс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ставшая своеобразной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Мастерство и своеобразие танцевальных и музыкальных ансамблей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отделений этой школы известны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Та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озволили выявить родство и сходство традиций таких как: почитание родителей,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таршим,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истории своей страны,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литературе и др.

Народы России и Кореи протяжении столетий живут в одн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ареале. Наши страны никогда не воевали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никогда не имел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етензий, и в настоящем существует взаимн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том, чтобы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был стабильным, безопас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 развитым регионом, а у народов, населяющих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были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жить в

мирной и благополучной среде.

Произошедшие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СССР перемены, сме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ориентиров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наложили свой отрицательный отпечаток на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в Москве постарались забыть, лишь иногда используя южны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как козырную карту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предъявляющей Росс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етензии. В девяносты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очайш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поразившего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ыла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на материковую часть стра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проживания», что привело, с учётом других сопутствующих распаду советской империи на отдельные сувер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чин, к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практически на трет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пятисот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итическая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замен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екторов и сугубо прозападная ориентация не позволили России сформировать чёткий подход в отношении к свои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окраинам. В это же время,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роисходило бурное развитие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Китай, Корея, Индия и Бразилия.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происходило становление остров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ак нов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явления. Актив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обеспе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гражданских свобод оказала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ускорен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Позднее, следуя примеру, стали формироваться общественные структуры украинской, татарской, и армянской диаспор.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более десяти круп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и требования к Японии о признании права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ей полноц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и, возмещение Япони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щерба, возр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защи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В этой связи, совершенно непонятна пози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сем желающим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гражданства своей страны. Более пятидесяти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везены японцами н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с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ни родились и выросли в Корее, и на их

месте мог оказаться любой гражданин нынешн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каким юридическим актам они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в 1945 году утратили своё гражданство? В любой стране мира дети, по праву рождения, обретают гражданство родителей, и имеют право жить вместе с престарелыми родителями, но этого права почему-то лишены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охвативший страны Запада в конце первого десятилетия текущего века,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снижение цен и спроса на сырьевые ресурсы, являющиеся основным продуктом экспорта России, вынуд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 существующее удручающее состояние сво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краин. Была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указанных регион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халин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зда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Сахалин становится выгод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зоной для вло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о многим составляющим. Это и наличи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наработанный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 Кореи и корейцам. Возможно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ах развития строитель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 участи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ья, создание баз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В любом случае для динам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ление более тес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мире все боле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играет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вшая важным дополнением к официальным связям. Она вмещает в себ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а, то есть она охватывает всю многообраз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и тем самым оказывает пози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меет ряд преимущест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ипломати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бо она говорит без всяких преград и в основе своей базируется на универсальных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ях. Именно такие свойства людей как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любовь, сострадание, искреннос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больше всего скрепляет народы разных стран.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ореи не может и не должно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только сил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Важнейшая роль здесь должна принадлежать самому народу и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м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Именно такая совмест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тдельных граждан охватывается понятием народная или, как сейчас принято говорить,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лия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опреде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запасами минер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оенной мощью, но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м, людс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в том числе и наличием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лиятель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диаспор. Роль диаспор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их функц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тали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предметом внимания политологов и учёных (1).

Этнический лоббизм оказывает заметное влияние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облемы диаспор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наглядна на примере Израиля и Армении, где действуют специаль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диаспоры(2). Связи 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людьми разных стран, как часть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звитие туриндустрии и интенсив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мен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необходимый шаг, сделанный для развития межчеловеческих связей.

Население Сахалина отличает уважение к людям, имеющим друг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жизни и другие религиозные ценности. Существует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к восточным религиозным и философским практик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на острове, с помощь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фициальных и религиозных структу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дийского храм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утраченных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матери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будд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зволит населению острова и все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ещё одн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наследия Кореи. Мировоззрение 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олодёж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определяют будущее народов.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потенциал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а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в ряде провин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их и сезонных молодёжных лагерей, летних школ и иных подобного типа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глублению межличностных связей и достижению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Наличие на острове самой крупной 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меющей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сред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а, существующий в этой связи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к истории, традициям, культуре,

литературе древне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огут стать катализатором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ктор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реи направлен в сторону США и стран Европ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я в основном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о страной импортирующей товары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х брендов, и в Корею о ней, по большому счёту, ничего не известно.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направлены в центральные (европейские) регионы. На острове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ют значим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вартыры в жилых домах, возводим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з Кореи или с их участием, не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у населения из-за их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превышающей зачастую стоимость квартир в Москве. Инвестиции в сырьевые ресурсы с участием Газпрома никак не влияют на созда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Кореи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Офици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граничено в виде отдела Консульства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оказателен пример Японии, которая содействовала переезду с Сахалина всем желающим выехать японца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у них гражданства своей страны и создала условия для их адаптации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При этом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страны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и фильмов, организует концерты и выставки, а также в лице сво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участвует почти на всех, значимых для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х культу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казывает спонсорск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мощь. Как правило, почти все работники Консульства Япо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владею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устраивают приёмы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активист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стречаются журналистами, художниками, писателям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более чем скром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остров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отдела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Сахалине.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среди областей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языковедение. Между СахГ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Кореи в Сеуле и Пусане существуют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ие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ов. Однако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вития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языковедческой школ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бы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име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способных осуществить переводы классическ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беих стран.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бы

интересны контакты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археология,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этнология, архитектура, историография 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Помимо существующих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программ, обучение на краткосрочных учебных курсах, волонтерское движение, летние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школы, лагеря и тренинги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ежи углубить знания в раз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ях и лучше узнать друг друга. Наряду с развитием актив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остров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и население области хотели б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дей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ю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з Коре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го лечения и оказания лечебных услуг. В 2011 году в соста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создано отде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раны.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13 года вновь соз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а конкрет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ерьезность намер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а в возрождении указанного региона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здаёт хороши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странами АТР, в том числе и Кореи, будь то инициатива юридических ил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вобода и защита пра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состав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рейцы не раз становились жертвами этнической чистки, депортаций и геноцида. Достаточно вспомнить депорт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егионы Средней Азии СССР, бесправно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ктически до начала девяносты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Известны факты бесправн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в период до 1945 года, когда южная часть острова принадлежала Японии. Корейцы, вывез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в качестве рабочей силы, содержались в трудовых лагерях, подвергались репрессиям и всяческому унижению (3). В книге К. Гапоненко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 Пожарское) описан факт жестокого убийства нескольких семей корейцев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Назре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ъектив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юристов и учёных России, Кореи, Японии и США с целью у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Нужно раз и навсегда разрешить наболевшую проблему репатриации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предели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Японии за судьбы поколений корейцев, раз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ег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К сожалению, в мировой практике единственная страна Германия, признала свои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годы нацизма, извинилась за них и возмещает живым

жертвам нацизма нанесённый ущерб (в частности евреям и узникам концлагерей), более того, привлекает к судебному преследованию граждан своей стран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овершивших та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признала свою причастность к судьбам людей, вывезенных с оккупированной ей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Россия так же не осудила в судебном порядке геноцид сталинск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и народов СССР, не признала свою причастность к трагедии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более пятидесяти лет, удерживаемых на Сахалине в качестве рабочей силы. Массо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и репрессии совершенные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зависимо оттого со стороны как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они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должны стать известны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обще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детально изучить факты геноцида и кажд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чтобы дать им чёткую и обоснованную юридическую оценку. США и Россия, напрямую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повлиявшие на судьбу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должны инициировать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в положительном разрешении наиболее болезненного вопроса, с учётом мнения остров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сутствие»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в виде участия в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ах и эк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 про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звестных всему миру компаний, учитывая наличие на остров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вершен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Существующи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явно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жиданиям сахалинцев.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на уров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популяризацию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в Корее, посредством организаций разного типа фестивалей, концертов, выставок, и других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было бы интересно знакомство с танцами, песней, фольклорной музыкой, ремеслом, изобразительным искусством, зодчеством, историей. В области современной авторской культуры – знакомство с театральным искусством, кино, литературой, песней, живописью и др. Важ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и обеспечить финансами перевод и издание произведений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в част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в Корее, и перевод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В области спор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средств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желательно проведение разного вида совмест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еобходим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помощь и влож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звитие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учение и передача опыта в таких видах спорта как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шортрек и др., в которых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в мире. Установление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народами Сахалина, где проживает диаспора, максимально поможет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оставшимся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за пределами родины и их потомкам, сохранить свою самобыт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ый в 1997 году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4) в декабре 2005 приняло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ах СНГ.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подобной программы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кроме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родившихс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отрыве от своих семей) населению острова ничего не известно. Назре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живой и масс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ила бы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кренне любящих обе страны, и потенциально способных реаль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экспансии дружбы между двумя народам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где в противовес глобализации стало усиливаться влияни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движений и проявление фактов терроризма очень важно сохран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забота о создании и сохранении взаи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дву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меет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новому подойти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потенциала и ресурс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как связующего звена в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В рамк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Фонда по поддержк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можно было бы создать совместную комиссию или специальной совместный орган для вы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в жизнь программ по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сем указанным выше предложениям.

В Российских и, в част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представлена.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островн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е Корё синмун», однако, отсутствие долж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е позволяет издавать её массовым тиражом. В новостях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и культуры постоянно фигурирует Китай, арабские страны и страны Южн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ента. Большую часть информаци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жители нашей области, в основном корейцы старшего и реже среднего поколений, получают по каналам кабель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Интернет, как средство информации,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задействован. В октябре 2012 года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ё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уществуют языковые курсы. Вектор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цев направлен на Китай. О существующих в Корее программах,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знакомство россиян со страной, народом, культурой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на Сахалине ничего не известно. Существующая телепередач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силу нехватки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роб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телезрителей о жизни Кореи.

С чем ассоциируется Корея в сознании большин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Это чаще всего автомобили, бытовая техника, телевизоры и смартфоны Самсунг, национальные танцы, в исполнении ансамб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Этнос.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нтересу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музыка, театр, фильмы, природа страны, возмож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барьером служат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ие цены).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Кореи существует в основном благодаря положительному имиджу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умевших заслужить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сохранить язык,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Литература

- (1) Дятлов В. Диаспора: экспансия термина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практику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 Там же. 2004. № 3. С. 126–138; Brubaker R.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8 No. 1 January 2005 pp. 1–19.
- (2) Sheffer G. A New Field of Study: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L., 1986. P. 1–15.
- (3) А.Т.Кузин.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9
- (4) См.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http://www.okf.or.kr>
- (5) Ракишева Б., Тукаева Д. Современный имидж Южной Кореи в Казахстане и пути его повышен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щество.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 1 (2), 2010, с. 42–46.
- (6) Федосова Л. Н. Национальный брендинг как двигател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http://www.rusnauka.com/5_NMIV_2009/Economics/40612.doc.htm

한러 교류에서 사할린 한인의 가교 역할

양 세르게이
사할린작가협회

최근 20여 년 간 사할린과 한국은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할린은 한국과 함께 협력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제일 큰 한인디아스포라가 있다. 사할린 주 인구수가 약 49.7900명인데 한인들이 약 24.993 (5,3%) 명이다. 이들이 사할린과 한국간의 경제·문화 등에서 교류의 선도자가 되고 있다.

한인디아스포라는 사할린주의 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중소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할린한인들은 민족문화를 소중히 여겨 유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다민족 공간에 본질적으로 융합되고 있다. 사할린에는 100여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같이 일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눈다. 사할린과 한국간의 교류 선도자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를 지적할 수 있다. 한민족과 러시아민족은 수 백 년 간 지리적으로 한 지방에서 살아왔다. 우리 두 나라는 역사상 교전국이 아니었고, 영토 분쟁도 하지 않았다. 현재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극동지역의 안전·안정·경제발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 정치 진로의 전환, 러시아가 친 유럽을 목표로 삼는 것 등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태지역에서 중국, 한국, 인도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현상으로 사할린한인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 사할린 한인들의 정치·경제·공민적 자유의 청구 운동이 사할린의 민주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사할린한인 단체들의 활동 기본방향으로는 일본이 사할린 한인들의 조국으로의 영주 귀국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완전한 영주귀국을 한국과 공동 실천하는 것, 한국국적 취득권, 보상 문제, 민족문화 부흥, 러시아와 한국에서 정치·경제권 보호 등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모든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제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5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랐다. 이런 처지는 현재 한국국민 누구나 처할 수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1945 년에 어떤 법률 행위에 의해 그들의 국적을 잃게 되었는가?

사할린은 한국 자본의 유익한 투자 지역이다. 천연 자원, 원유, 가스 산업 협력의 축적된 경험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할린 주민들의 친절한 태도 등이 이를 보증해준다. 사할린과 한국의 교류는 공공 기관에 의해서만 실시 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

할은 주민과 그들의 가장 진취적인 대표들이 해야 한다. 정부, 비정부 단체들 및 개인의 공동 활동이 민간외교 관례를 이룬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족 로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에서 디아스포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특수 디아스포라 정부부서를 설립하였다. 민간 외교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의 주민 사이의 친교관계가 국가 간에 우호 관계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 활발한 관광 교류의 개발은 대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사할린 섬의 multi-ethnic 인구 중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 역사, 전통, 문화, 고대와 현대 한국 문학에 상당한 관심이 우리 국민 간의 우호 관계 수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대관계는 경제 협력 개발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주로 세계유명 브랜드들을 수입하는 나라와 연상되어 한국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영사관 사할린출장소와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미흡한 활동을 지적해야 한다.

상호 협력의 우선순위 영역 중 하나가 언어학이다. 사할린대학과 서울 및 부산 등 여러 한국대학 간에 교환학생, 교수들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언어학 학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정부의 전후 책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확립하기 위해 러시아, 한국, 일본 및 미국의 학자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문제의 완전한 해결, 사할린 잔류 한인에 관련 특별 프로그램 작성, 군국주의 일본의 전후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의 산업 제품의 수입으로 사할린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진출은 완전히 부적절하다. 기존 문화 교류는 명확하게 사할린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다. 축제, 콘서트, 전시회 및 기타 공개 이벤트를 통해 한국에서는 러시아 문화 홍보, 사할린에서는 한국 문화의 대중화의 확보를 위해 국가·사회 기관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간의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는 스포츠이다. 여러 공동 스포츠 이벤트를 조직하고 진행해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탁구, 쇼트 트랙과 같은 스포츠 종목에서 스포츠 인프라의 발전, 교육 및 스포츠 경험의 전달에 제도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1997년에 외교통상부소속 아래 특별히 설립한 해외동포 재단을 통해 2005년 12월 CIS 국가에 살고 있는 교포에 대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러시아에서 사할린 한

인에 대한 프로그램(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 사할린 한인의 미 가족 동반 영주귀국 프로그램 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사할린,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단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양국 관계를 연결시키는 요소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잠재력과 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사할린한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TV 및 삼성스마트폰, 사할린 아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인 예술단들의 공연일 것이다. 사할린 주민들은 현대 한국 작품들, 음악, 연극, 영화, 자연, 건강검진 및 요양소-스파 트리트먼트(가격은 비교적 높지만)등에 관심이 있다.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할린 한인들이 조국의 언어, 풍습 및 전통을 보존하고 다른 민족한테서 존경을 받았기에 존재한다.

참고문헌

- 브.자틀로프, 디아스포라: 현재 러시아 사회생활에 용어침투, 2004 - 3, 126 - 138면;
Brubaker R.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8 No. 1 January 2005 pp. 1-19.
Sheffer G. A New Field of Study: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L., 1986. P. 1-15.
쿠진 아.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적 운명, 2009, 제3권.
<http://www.okf.or.kr> (검색일: 2013.03.12.)
라키쉐바, 투카예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현재 이미지, 2010 - 1 (2), 42 - 46면;
http://www.rusnauka.com/5_NMIV_2009/Economics/40612.doc.htm (검색일: 2013.03.13.)
«Корей цы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새고려신문, 2012년01월20일자.
«Корей цы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새고려신문, 2012년01월20일자.

문화공연 및 간담회

〈 한국 민속 예술문화 공연 〉

1. 시 낭송

〈자루비노 어느 여름에서〉

- 낭송 : 정정조(시인,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사무국장)

2. 판소리 공연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 출연진 : 박양순(한국판소리보존회 강원도지부장)
김혜자(고수)
황성주; 정지인(한국판소리보존회)

3. 수필 낭송

〈전원을 꿈꾸며〉

- 낭송 : 김백신(수필가, 춘천여성문학회장 역임, 춘천시 복지기획담당)

4. 민요 공연

〈한오백년〉 〈아리랑〉

- 출연진 : 여성퓨전국악그룹 S.O.S(Season of soul)
- 김영림(가야금); 임수진(대금)
- 어이령(판소리); 정인경(해금)



〈 러시아 민속 예술문화 공연 〉

1. Клип Чан Тэ Хо - **Далекая, но близкая Корея** - перевод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장태호 : 작곡 «가깝고먼 한국»)
2. **Колыбельная (Полины Гагариной)** - поет Терехова Кристина
(크리스티나 체레호바 : 노래 «자장가»)
3. **Листья желтые** -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Кристина
(크리스티나 체레호바 : «노란 잎» ;러시어와 한국어)
4.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танец** - А.Елисеева
(А. 엘리세예바 : 러시아 민속춤)
5. **восточный танец** - Терехова Кристина
(크리스티나 체레호바 : «동양 춤»)
6. песня О.Митяева **«Как здорово, что все мы сегодня собрались»** - исполняет группа работников культуры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돌린스크시 문화회관 합창단 : «우리 오늘 함께모았으니 참 좋다»)
7. **Зима все сделала сама** - песня - Кристина
(크리스티나 체레호바 : «겨울이 다 했다»)
8. **Ариран, Лодочник**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 Кристина
(크리스티나 체레호바 : «아리랑», «뱃사공»)
9. **Ну что тебе сказать по Сахалин** - группа
(합창단 : «사할린에 대해 뭘 얘기해줄까?»)



〈 분야별 간담회 참가자 명단 〉 (무순)

1. 정치·경제

LIEDE / SAN BOK : ООО «Вифлеем»

PAK / OLGA : Бухгалтер

PAK / OLGA :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при Сахэнерджи

CHE / IN CHER : ООО «БИТОМ»

CHE / TON CHUN :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BELOUSOVA / TATIANA : ЦБ, отдел культуры МО ГО «Долинский»

ABSUSHINA / ALENA :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엄광열 :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장

윤병길 : 강원도의회의원

신애경 :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성원용 : 인천대학교

유향자 : 번역가

김용환 : 한국산업은행

조성환 :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최태강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영형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용권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 의료

KU / KHENGU : ГБУ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KIM / DENSUN : Городская больница им. Анкудинов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SELEDTSOVA / FLORENTINA : Целитель

OSTAPENKO / VLADIMIR : Сахалинский базов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олледж

GIBADULINA / NATALIA : ОАО «Сахморнефтемонтаж», аппарат управления

김미정 : 서울대학교병원

이순용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나유정 : 약사

김예나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수연 :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3. 교육

BUSHAEVA / IRENA : МБОУ СОШ с. Стародубское
IUN / DENE : МОУ СОШ г. Шахтерска
KLIMKOVA / ANASTASIIA : СОШ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VOEVODA / OLGA : г. Оха,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CHUBAROVA / NINA : СахГУ , Охинский филиал
KAZIMIRSKAIA / MARINA : МБУК ДЦБС, г. Долинск
IRGIZTCEVA / OLGA : МБУК ДЦБС, г. Долинск
GVOZDEVA / LIUDMILA : МБУК «Долинская ЦБС»
PODOBED / ELENA : МБОУ ДОД «ДШИ» с.Быков
홍광자 : 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담당 장학사
임태식 : 전 서울초등학교교장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장
공노원 : 전 사할린제9학교(동양어문학교) 교감
김철윤 : 부산 성모여고
이성애 : 부산 경지회
백인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문화·예술

YAN / SERGEY :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Ф, писатель
KOVALENKOVA / LIUBOV : Собрание МО ГО «Долинский»
POPOV / ANATOLY : МБОУ ДОД ДШИ
TEREKHOVA / KRISTINA :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альный колледж
IELISIEIEVA / ALLA : МБОУ ДОД «ДШИ», с. Стародубское
OSTAPENKO / IRINA : Сахалинская писа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KIM / VASILISA : Художник-модельер
김백신 : 춘천여성문화회장 역임 (춘천시 복지기획담당, 수필가)
박양순 : 한국관소리보존회 강원도지부장
배영규 : 무지개인형극단 예술감독
금송화 : 무지개인형극단 기획담당
이현순 : 강원도여류서예가협회 부회장
박경자 : 춘천문화원 이사
유재춘 :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정정조 : 강원애니고등학교 교사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사무국장)
김혜자 : 한국관소리보존회
황성주 : 한국관소리보존회
정지인 : 한국관소리보존회
김영림 : 한여성퓨전국악그룹 S.O.S
임수진 : 한여성퓨전국악그룹 S.O.S
어이령 : 한여성퓨전국악그룹 S.O.S
정인경 : 한여성퓨전국악그룹 S.O.S
목진호 : 사할린 국악예술공연 지도자
윤숙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다용 : 홍익대학교 상품디자인학과

5. 학술

IKONNIKOVA / ELENA : СахГУ,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KIM / EN SUN : Заместитель проректора по науке, к.э.н., доцент
IZMAYLOVA / IRINA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김복남 : 한림성심대학교 교수(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박승의 : 한인1세, 사할린대 교수
김소자 : 한인1세
김영길 : 한인1세
이경자 : 한인1세
란코프, A : 국민대 교수
한종만 : 배재대학교
김정훈 : 배재대학교
백영준 : 배재대학교
공우석 : 경희대학교
윤상원 : 동국대학교
홍옹호 : 동국대학교
계용택 : 러시아리서치센터
이재혁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정해룡 : 강원대 DMZ HELP 센터

정성훈 : 강원대 DMZ HELP 센터

이태희 : 강원대 DMZ HELP 센터

6. 언론

BYA / VIKTORIYA :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ё корё синмун»

김중석 : 강원도민일보 사장

박미현 : 강원도민일보 기획국장

양영희 : 강원도민일보

이화순 : 강원도민일보

※ 진행 및 통역 지원

-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 안영철 이형민 한재석 김민수 정의재 양 원
전혜인 박예은 박단비 장 미 강다하미 김수민
박진영

북방 경제지역으로서의 DMZ지역 탐사

- 한인 디아스포라의 북방경계지 또는 결절지 -

**강원대학교 부설 DMZ HELP 센터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양구군 DMZ지역 답사

I. 개 요

- 일 시 : 2013.04.13(토), 09:00~14:00
- 장 소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해안면 일원 (Янгу, Канвон-до)
- 참석대상 : 2013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 답사진행 : 정해룡(강원대 DMZ HELP 센터), 이태희(강원대 DMZ HELP 센터), 윤숙(한림대 러시아연구소), 김예나(한림대 러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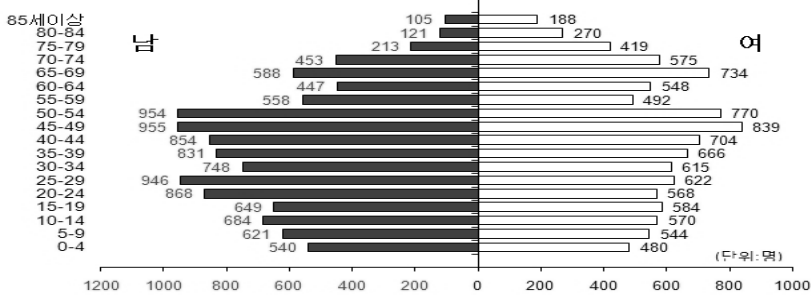
II. 시간계획 Расписание экскурс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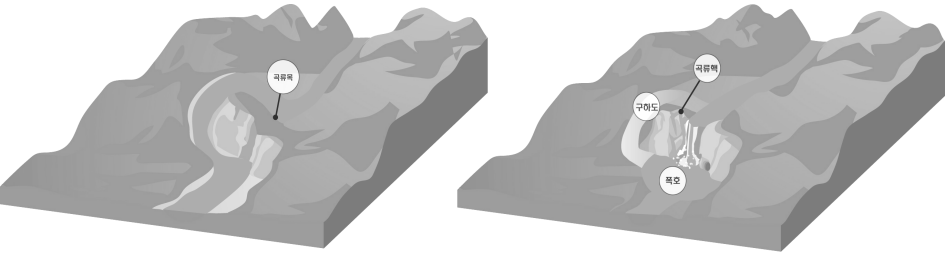
- 방산면(두타연), 해안면(해안분지) 일원

구분	시 간	내 용
춘천	09:00	○ 한림대학교 출발 (выезд из Чунчона)
양구	09:00~10:20	○ 한림대학교→ 두타연 이동
	10:20~11:00	○ 두타연 답사 (Дутаён)
	11:00~11:40	○ 두타연 → 만대리 마을 → 통일관 (Дутаён → Деревня Мандэри → Тонил зал) - 을지전망대, 4땅굴 관람신청
	11:40~11:50	○ 통일관 → 을지전망대 이동
	11:50~12:20	○ 을지전망대 답사 (Ылджи обсерватория) - 해안분지 조망 - 을지전망대 관람
	12:20~12:30	○ 을지전망대 → 식당
	12:30~13:10	○ 점심식사(해안면 정주골) (время на обед)
	13:10~13:20	○ 식당 → 제4땅굴
	13:20~14:00	○ 제4땅굴 관람 (Четвёртый туннель)
	14:00~	○ 복귀 (возвращение в Чунчон)


Ⅲ. 주요내용


□ 양구군 소개



구 분	내 용
개 관	<p>강원도의 중부에 위치하며 춘천시, 인제군, 화천군, 북한의 창도군, 금강군과 접하고 있는 군이다. 면적 700.84 km²이고 인구는 22,777명(2013년)이다. 전체적인 지형은 기복이 심한 내륙 산간지역으로 양구읍과 해안면은 전형적인 침식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p>
심볼마크와 캐치프레이즈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청색의 물방울 속에 흰선은 양구의 영문 이니셜 y로 대지를 감싸고 흐르는 맑은 계곡과 약동하는 양구의 미래를 담고 있다.</p> <p>국토정중앙 양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청춘 양구 등</p> </div> </div>
인 구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체 인구가 22,777명(2013년)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적은 군이다. 이는 주민등록 상의 인수로 이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수를 합할 때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구구조는 남성 청장년 층의 수가 적고, 여성 노령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비율이 낮으며 인구 노령화 지역임을 보여준다.</p> </div>
산 업	<p>양구군 내의 산업은 농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으로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다. 최근 '국토 정중앙'이라는 이미지와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p>
축 제	<p>봄 : 곰취축제(5월) 여름 : 도솔산 전적문화제(6월), 배꼽축제(7월), DMZ마라톤대회(8월) 가을 : 양록제(10월) 겨울 : DMZ편치불시래기축제(11월), 국토정중앙달맞이축제(2월)</p>
주요관광지	<p>양구 8경 : 두타연, 편치불(해안분지), 사명산, 광치계곡, 파서탕, 파로호, 후곡약수터, 생태식물원</p> <p>관람시설 : 박수근미술관, 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양구백자박물관, 이해인 문학관, 팔랑민속관, 국토정중앙 천문대 등</p> <p>안보체험 : 통일관, 을지전망대, 제4땅굴, 전쟁기념관 등</p> <p>생태탐방로 : 소지섬길, 양구 10년 장생길(국토정중앙 인근), 편치불 둘레길</p>

<p>명 칭</p>	<p>두타연 [Дутаён, Dootayeon(Plunge Pool)]</p>
	
<p>내 용</p>	<p>두타연은 수입천의 지류인 사태천이 감입곡류(嵌入曲流, incised meander)하는 과정에서 곡류절단(曲流絶斷, meander neck-cutoff)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폭포(瀑壺, plunge pool)이다. 본래 이름은 '드레소'였으나, 부근에 있었다는 사찰인 두타사에서 이름을 따와 두타연으로 불리고 있다. 폭호는 폭포 밑 암반에 깊게 파인 등근 와지(窪地)로 낙하한 물이 암반에서 암설(자갈이나 모래 등)들을 회전시켜 마모작용을 함에 따라 형성되는 지형이다. 폭호의 위로는 높이 10m, 폭 60여m 의 두타폭포가 위치한다.</p> <p>두타연은 곡류절단 현상에 의해 과거의 유로를 버리고 새로운 유로를 따라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과거에 물이 흘렀던 유로를 구하도(舊河道, old river channel)라 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두타연 일대의 곡류절단 현상과 폭포, 구하도의 형성과정〉</p> </div> <p>하천침식에 따른 곡류부의 폭 감소(곡류목 형성) → 하천침식으로 곡류목 절단(구하도 형성) → 곡류절단 이후 상하류의 낙차(높이차)에 의해 폭포 발달 → 폭포에서 낙하하는 유수가 폭포아래의 기반암에 침식을 가하여 현재와 같은 폭호 형성</p>

<p>명 칭</p>	<p>돌산령 지게놀이 [Нематериальное культурное достояние Долсанрён,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Dolsanryung(Mt. Passes)]</p>
	
<p>내용</p>	<p>해안분지와 연결되는 험준한 돌산령 아랫자락에는 돌산령 지게놀이(강원도무형문화재 제7호)로 널리 알려진 팔랑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돌산령 지게놀이는 강원도와 양구의 지형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향토성이 짙은 민속놀이이다. 과거 산이 많고 농토가 없는 지역에서 지게는 필수적인 운반수단이였다. 팔랑리 사람들은 과거에 지게를 활용하여 곡식과 퇴비, 땃감 등을 운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일에 능률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놀이를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팔랑리 사람들은 일상에 가까이 있는 지게로 싸움놀이를 하고 장례의례를 놀이화하여 즐거움을 얻고 노동의 고단함을 잊었다. 이러한 놀이문화가 정착되어 현재의 '지게놀이'로 발전하게 되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08 1205 726 1458">  <p style="text-align: center;">〈지게걸음싸움〉</p> </div> <div data-bbox="775 1205 1193 1458">  <p style="text-align: center;">〈지게상여놀이〉</p> </div> </div> <p>돌산령 지게놀이에는 지게걸음싸움과 상여놀이가 있다. 지게걸음싸움은 지게의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머리를 잡고 걸어가서 상대를 부딪쳐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곧 여러 명이 두 편으로 갈라 서로 상대를 쓰러뜨린다. 이때 쓰러진 쪽은 자기 대열에 돌아가고, 이긴 쪽은 계속해서 상대를 쓰러뜨려 나간다. 맨 마지막으로 남는 쪽이 완전히 승리하는 놀이이다.</p> <p>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묶어서 상여처럼 만들고 그것을 메고 구성된 상여소리를 부르며 어르다가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린다. 이긴 쪽은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고, 진 쪽은 신으로 땅을 친다. 승부가 끝나면 진 쪽은 이긴 쪽의 지게 짐을 운반한다.</p>

<p>명 칭</p>	<p style="text-align: center;">해안분지 [Хэан бассейн, Haean Basin]</p>
	
<p>내 용</p>	<p>해안분지는 차별침식(差別侵蝕; differential erosion)에 의하여 형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식분지(侵蝕盆地, erosion basin)이다. 해안분지는 남한 최북단에 위치한 면소재지이며 분지 안에 해안면 전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p> <p>분지(盆地, basin)란 주변이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낮은 지형으로, 해안분지는 가칠봉(加七峰, 1,242m)을 비롯하여 해발 1,000m 내외의 높은 봉우리(변성암)들이 외곽을 이루고 있는 반면, 분지 바닥(화강암)은 해발 400m 내외로 고도차가 상당하여, 저면이 넓은 대접 형태의 분지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안(亥安)’이란 지명은 옛날 이곳에 유달리 뱀이 많았는데 조선 말 어느 스님의 권고로 돼지를 키우면서부터 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여 ‘돼지(亥)가 마을에 안녕(安)을 가져왔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6.25 전쟁 당시에는 그 형태적 특성 때문에 UN군에 의해 펀치 볼(punch bowl)로 불리기도 하였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장 력 →</p> <p>이중계 및 평장 중생대 화강암 관입 (심층풍화 진행)</p> <p>유수의 침식에 의한 풍화물질 제거</p> <p>변성암 구릉 중적층 해안 변성암</p> <p>화강암(기반암, 풍화물질)</p> <p>〈해안분지의 형성과정〉</p> </div> <p>선캄브리아대 변성퇴적암 지대에 중생대 주라기 화강암 관입 → 관입 시 작용한 장력에 의하여 기존암층 상부에 파쇄(갈라짐) 발생 → 파쇄부가 유수의 침식으로 제거되는 한편 수분의 침투로 화강암의 심층풍화 진행 → 유수의 침식과 지반 융기로 인하여 심층풍화를 받은 화강암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 현재와 같은 분지모양을 형성</p>

<p>명 칭</p>	<p style="text-align: center;">만대리 마을 [Деревня Мандэри, Village of Mandae-ri]</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내 용</p>	<p>해안면 만대리는 남한과 북한의 긴장으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주거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해안면은 6.25전쟁 때 남한에 수복되었고, 1956년 ‘휴전 후 난민정착사업’의 일환인 재건촌 조성 에 의해 160가구, 956명을 입주시키면서 마을을 형성하게 된 곳이다.</p> <p>현재 해안면에 소재한 마을은 크게 현리, 오유리, 만대리로 구분된다. 이중 만대리는 북한 군인을 상대로 한 선전용 마을로 조성된 것이 특이점이다. 선전용 마을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DMZ와 인접한 곳에 조성한 독특한 유형의 마을로 마을 의 정비가 잘되어 있고, 실제 거주규모보다 가옥을 크게 짓는 등의 위장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p> <p>북한에 조성된 선전용 마을에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마을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는 선전용 마을 조성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심리전의 측면에선 상 대방 체제 붕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만대리가 선전용 마을로 조성된 것은 북한 쪽에서 서희령을 통해 해안분지 내부가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분지 내부에서 북측으로 분지 외륜의 능선부를 바라보면 고도가 살짝 낮아져 V자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 관찰되는데 그곳이 바로 서희령이다. 만대리 마을의 가옥들은 동일한 형태로, 북한 초소에서 잘 보이도록 모두 북향으로 지어져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별이 잘 드는 남향의 가옥을 선호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마을입지임을 알 수 있다.</p>

<p>명 칭</p>	<p>제4땅굴 [Четвёртый туннель, The 4th tunnel]</p>
	
<p>내 용</p>	<p>제4땅굴은 양구군 해안면 후리에 위치한 인공 땅굴이다. 이 땅굴도 철원의 제2땅굴과 같이 북한이 기습작전을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땅굴로 1990년 3월 3일 양구읍 북동쪽 26km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다.</p> <p>땅굴을 발견하고 바로 다음날인 1990년 3월 4일, 땅굴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군은 땅굴 수색 및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제1땅굴 소탕 당시(연천, 1974년), 국군은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제2땅굴 수색작전 때에도(철원, 1975년) 국군 8명이 부비트랩에 의해 순직했을 정도로 땅굴 수색작전은 위험하였다. 따라서 국군은 수색작전에 군견 한 마리를 투입하게 된다.</p> <p>군견의 이름은 '헌트' 독일산 셰퍼드로 당시 나이는 4세였다. 헌트는 수색대원들과 함께 땅굴로 진입하여 유독가스와 부비트랩 등 위험을 감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수색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수색대원들과 헌트는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접근하였다. 수색대원들은 군사분계선을 330m 앞두고 헌트의 이상 신호에 수색을 중지한다. 그리고 헌트는 혼자 땅굴안쪽으로 정찰을 나간다. 이윽고, 북한군이 설치한 부비트랩을 발견한 헌트는 이를 대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돌아오던 중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고 그 자리에서 산화한다.(1990. 3. 4, 12:05) 만약 헌트가 앞서나가지 않았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한 목함지뢰에 의해 수색대원은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에 임무 중 장렬히 산화한 헌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받고, 군견으로서 최초로 '소위'로 추서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리기 위해 제4땅굴 앞에 헌트 소위의 묘와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다.</p>
 <p>〈헌트동상과 묘〉</p>	

한러 교류 중개자로서의 러시아 한인

찍은 날 2013년 4월 11일

펴낸 날 2013년 4월 11일

주관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강원도민일보,
사할린 새고려신문, 강원대 DMZ HELP 센터

후원 한림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강원도, 양구군, 한국연구재단

인쇄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주소 200-707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2

전화 (033)260-9400

팩스 (033)243-7008

〈비매품〉

